

2-15-2008

성경적 효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 연구: 순복음 인천교  
회를 중심으로

Yong Suk Choi 최용석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최용석, "성경적 효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 연구: 순복음 인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HOLISTIC SPIRITUAL GROWTH THROUGH BIBLICAL FILIAL PIETY (HYO)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LL GOSPEL INCHON CHURCH**

written by

**YONG SUK CHOI**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Hyo Shick Pai

---

Chi Young Kay

---

Seyoon Kim

February 15, 2008

**HOLISTIC SPIRITUAL GROWTH THROUGH  
BIBLICAL FILIAL PIETY(HYO)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LL  
GOSPEL INCHO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NG SUK CHOI**

FEBRUARY 2008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 연구: 순복음인천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배효식 교수

최 용 석

2008년 2월

## Abstract

Holistic Spiritual Growth through Biblical Filial Piety (HYO)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ll Gospel Incheon Church

Yong Suk Choi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goal of pastoral ministry is to help a congregation's faith become holistically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Authentic growth in faith is revealed by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our daily lives and is holistic, including spirituality, personality, relationships, and practice of life. Korean churches today need "application-centered" education and training that promotes church members' growth in faith and life change through hearing and acting on the words in order to live mature Christian lives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a biblical and theological methodology for whole-person growth in faith through biblical filial piety (HYO).

The pastoral strategy of biblical filial piety (HYO) is a "faith practice movement" that began within the Full Gospel Incheon Church in 1995. It means returning to the Bible, the Word of God the Father, and living by the Word of our Father God. The definition of Biblical HYO is that Christians, being children of God by believing Jesus Christ, enter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Father God, and then with others such as one's own parents, family, neighbors, nation, and natur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is living a life that brings harmony (unity) with God and people as Jesus commanded (love God, love neighbor, Mt. 22:37-39). Churches must teach and train congregations these commandments by practicing Biblical HYO. Biblical HYO is divided into seven missions: (1) serving God as a father; (2) honoring parents, elders, and teachers; (3) loving children and youth (4) loving family (5) loving one's nation (patriotism)

(6) loving and protecting nature (7) loving neighbors and serving mankind

The first chapter begins by describing the context of Christian life and faith at present, and the goal, extent,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offers a biblical definition of growth in faith based on the teaching of Jesus and the apostles through a literate search of the Bible. The third chapter classifies aspects of faith growth into three spheres: spirituality (with God), personality (with oneself), and life (with others). The fourth chapter introduces the Biblical HYO, its biblical basis, its postmodern necessity and association with faith growth, and its training contents. The fifth chapter formulates a methodological praxis as the principle and method of Biblical HYO training, which consists of four stages of training programs: to be a believer, to be a disciple, to be a minister, and to make disciples. The sixth chapter describes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the Full Gospel Incheon Church congregation's growth in faith by surveying three sample groups, each consisting of 30 random persons, and through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influence of the Biblical HYO training on whole-person faith growth.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is study and verifies that training congregations through Biblical HYO causes their faith to grow holistically in whole sphere of their spirituality, personality, and lives. It demonstrates that the Biblical HYO training is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for whole-person faith growth.

Theological Mentors: Hyo Shik Pai, PhD  
Chi Young Kay, PhD  
Seyoon Kim, PhD

## 현 사

영혼구원과 성경적 효를 위해 지난 30년을 한결같이 달려오신 존경하는 목회자요 사랑하는 아버지 최성규 목사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 감사의 글

M. Div를 시작하던 1995년, 성경학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던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다른 학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하였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D. Min을 하러 2005년 이곳 Fuller에 왔을 때 또 다시 지난 10년간 무지와 교만으로 목회 아닌 목회를 해왔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신실하신 사랑으로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모르면서 향방 없이 이리 저리 뛰어 다녔던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사명과 교회와 목회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해주신 김세윤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세심하고 자상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배효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과 삶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목회자가 되어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까지 신앙과 목회의 뿌리가 되어준 순복음인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깎이 학생 남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어린 두 자녀의 좋은 엄마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주는 효원, 효민, 그리고 2주 후에 태어날 효준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2월 최용석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연구 목적 .....	4
제 3 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제 4 절 용어 정의 .....	6
1. 성경적 효 .....	6
2. 전인적 신앙성장 .....	7
제 2 장 신앙성장에 관한 문헌적 연구 .....	7
제 1 절 신앙성장의 정의 .....	7
1. 예수님의 가르침 .....	7
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사랑의 이증계명의 실천 .....	8
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 .....	11
다. 행함을 통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생활화 .....	13
2. 사도들의 가르침 .....	15
가. 구원의 완성: 칭의 이후 점진적 성화의 과정 .....	15
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영성, 인성, 도덕성, 공동체성의 전인적 성장 .....	19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감: 제자도 .....	22
제 2 절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정의 .....	25
제 3 장 신앙성장에 필요한 요소들 .....	27
제 1 절 영성 영역에서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	27
1. 그리스도 중심적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혼구원 .....	27
2. 성령 충만: 성령사역에 동참 .....	28
3. 말씀: 인지적 성장 .....	29

4 기도: 정서적 성장 .....	30
5 예배: 영적 행위의 성장 .....	31
제 2 절 인성 영역에서의 성장: 참된 인간성(인격, 하나님의 형상) 회복 .....	33
1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 .....	33
2 새로운 자아상과 자기부인: 새로운 피조물과 십자가의 도 .....	35
3 순종: 거룩함과 책임 .....	36
4 섬김: 타자중심주의 .....	36
5 사랑: 천국마음의 완성 .....	37
6 하나님 나라 윤리와 도덕성: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성화 .....	38
제 3 절 생활 영역에서의 성장: 타인과의 관계 회복 .....	39
1 가족: 부모공경, 자녀사랑, 돕는 배필(부부) .....	40
2 이웃: 교인, 지역주민, 인류, 사회적 약자 돌봄 .....	42
3 사회와 문화: 일상적 삶의 성화 .....	43
4 자연: 청지기적 사명과 책임 .....	44
제 4 절 신앙훈련의 필요성 .....	46
1 신앙훈련의 목회적 필요성 .....	45
2 신앙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	46
제 4 장 성경적 효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내용 .....	49
제 1 절 성경적 효에 대한 이해 .....	49
1 성경적 효 운동의 시작 .....	49
2 '성경적 효'의 성경적 근거와 의미 .....	51
가. 성경적 효의 성경적 근거 .....	51
(1) 구약 성경적 근거 .....	52
(2) 신약 성경적 근거 .....	53
나. 성경적 효의 의미 .....	54
제 2 절 성경적 효의 현대적 필요성과 신앙성장과의 연관성 .....	55
1 성경적 효의 현대적 필요성 .....	56

2 성경적 효와 신앙성장과의 연관성 .....	57
제 3 절 성경적 효 훈련의 내용 .....	58
1.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	58
2. 부모, 어른, 스승공경 .....	60
3. 어린이, 청소년 사랑 .....	62
4. 가족사랑 .....	63
5. 나라사랑 .....	65
6. 자연보호 환경사랑 .....	66
7. 이웃사랑 인류봉사 .....	67
제 5 장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와 방법 .....	70
제 1 절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 .....	70
1. 단계적 성장의 원리 .....	70
2. 전인적(균형적) 성장의 원리 .....	72
3. 평신도 사역의 원리 .....	72
4. 공동체적 훈련의 원리 .....	73
제 2 절 성경적 효 훈련의 방법 .....	74
1. 신자 되기: 새가족 교육(10주 과정) .....	75
2. 제자 되기: 효비전 훈련학교(12주 과정) .....	76
3. 사역자 되기: 효사역 훈련학교(12주 과정) .....	78
4. 제자 삼기: 효지도자 훈련학교(12주 과정) .....	80
제 3 절 순복음인천교회의 성경적 효 훈련과 실천 사역들 .....	81
제 6 장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의 신앙성장 측정 및 분석 .....	87
제 1 절 측정 장치와 측정방법 .....	87
1. 측정 장치 .....	87
가. 측정 장치의 구성 .....	87
나. 주요 조사 내용 .....	88

2 측정 방법 .....	88
가. 표본 설계(Sample Design) .....	88
나. 조사 방법 .....	89
제 2 절 신앙성장 측정 결과분석 및 평가 .....	89
1. 인적사항, 신앙경력, 교회출석기간과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분석 ...	89
가. 결과분석 .....	89
나. 평가 .....	90
2. 교회 5대 비전과 교회생활 참여도에 대한 분석 .....	94
가. 결과분석 .....	95
나. 평가 .....	97
3.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한 분석 .....	101
가. 결과분석 .....	101
나. 평가 .....	103
4.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에 대한 분석 .....	105
가. 결과분석 .....	105
나. 평가 및 제언 .....	117
제 7 장 결론 .....	118
제 1 절 논문의 요약 .....	118
제 2 절 논문 연구를 통한 저자의 발견에 대한 진술 .....	123
제 3 절 결어 .....	124
부록 .....	125
참고 문헌 .....	131
Vita .....	135

## 표 목 차

<표 1> 새가족 교육의 내용과 일정 .....	76
<표 2> 효비전 수련회의 내용과 일정 .....	77
<표 3> 효비전 훈련학교의 내용과 일정 .....	78
<표 4> 효사역 훈련학교의 내용과 일정 .....	79
<표 5> 효지도자 훈련학교의 내용과 일정 .....	80
<표 6> 성경적 효 훈련의 전체 과정 .....	81
<표 7> 측정결과 1-1 인적사항, 신앙경력, 교회출석기간, 신앙의 목적 .....	91
<표 8> 그룹별 신앙경력 비교 .....	92
<표 9> 그룹별 교회출석기간 비교 .....	92
<표 10> 그룹별 신앙이유 비교 .....	92
<표 11> 측정결과 1-2 교회출석이유 .....	93
<표 12> 측정결과 II-1 교회의 5대 사명과 교회 생활 참여도 .....	96
<표 13> 측정결과 II-2 교육훈련 참여도, 신앙성장에 도움 되는 사역 .....	97
<표 14> 그룹별 일주일 평균 성경 읽는 시간 비교 .....	98
<표 15> 그룹별 하루 평균 기도시간 비교 .....	98
<표 16> 그룹별 예배 참석 비교 .....	99
<표 17> 그룹별 최근 1-2년간 전도 인원 비교 .....	99
<표 18> 그룹별 교회 안에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인원 비교 .....	99
<표 19> 그룹별 일주일간 봉사 시간 비교 .....	100
<표 20> 그룹별 월평균 수입 중 현금 비교 .....	100
<표 21> 그룹별 교육훈련 비교 .....	100
<표 22> 그룹별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역 비교 .....	101
<표 23> 측정결과 III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	102
<표 24> 그룹별 영성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	103
<표 25> 그룹별 인성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	103

<표 26> 그룹별 생활실천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	104
<표 27> 그룹별 신앙훈련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	104
<표 28> 그룹별 영적 재생산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	104
<표 29> 측정결과 IV-1 성경적 효의 7대 사명에 대한 전체 이해 .....	105
<표 30> 그룹별 성경적 효와 7대 사명에 대한 전체 이해 비교 .....	105
<표 31> 측정결과 IV-2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하나님 섬김 .....	106
<표 32> 그룹별 하나님 섬김 실천에 대한 비교 .....	107
<표 33> 측정결과 IV-3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부모·어른·스승 공경 .....	108
<표 34> 그룹별 부모·어른·스승 공경 실천에 대한 비교 .....	108
<표 35> 측정결과 IV-4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	109
<표 36> 그룹별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실천에 대한 비교 .....	110
<표 37> 측정결과 IV-5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가족사랑 .....	110
<표 38> 그룹별 가족사랑 실천에 대한 비교 .....	111
<표 39> 측정결과 IV-6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나라사랑 .....	112
<표 40> 그룹별 나라사랑 실천에 대한 비교 .....	112
<표 41> 측정결과 IV-7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자연보호 .....	113
<표 42> 그룹별 자연보호 실천에 대한 비교 .....	113
<표 43> 측정결과 IV-8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이웃사랑·인류봉사 .....	115
<표 44> 그룹별 이웃사랑·인류봉사 실천에 대한 비교 .....	116
<표 45> 측정결과 IV-9 성경적 효 실천에 따른 축복 .....	116
<표 46> 그룹별 성경적 효 실천에 따른 축복에 대한 비교 .....	116

## 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목회론적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말로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교회론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들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점검하며, 자신과 교회를 갱신하고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교인들의 전인적 신앙성장을 연구함으로써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방법과 범위를 제시하고, '성경적 효'와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용어를 설명할 것이다.

### 제 1 절 문제 제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이라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 대답들은 "정답"일 뿐이지 자신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잘 출석하고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혹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인격적 미성숙으로 서로 상처를 주며 싸우거나, 혹은 성경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은 신앙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고 있다.

왜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은 교회(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고전 1:1,2)의 모임이라는 특권의식은 갖게 하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즉 나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소홀하였던 것에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구원, 말씀, 기도 등과 양적 성장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였던 반면, 수평적인 관계인 가족·이웃과의 관계, 직장, 사회생활 등의 일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필요를 어떻게 돌보고 채울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에 따라 사는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질적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소홀하였던 것에 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개인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내세 지향적이고 기복적이며 실천이 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실제 생활과 무관하게 여기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영적이고 질적인 성숙이 없는 양적 성장은 세속화를 가져올 뿐이다.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온전한 신앙(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이웃과의 수평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신앙이며(마 7:24)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이다(롬 12:2). 신앙은 생활(삶)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옳은 대로 사는 것(삿 17:6)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개인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가족의 붕괴, 가치의 혼란과 정체성을 상실한 오늘날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롬 12:2).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신앙성장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 영향을 이웃과 교회, 직장과 사회로 확산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이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며, 영성 뿐 아니라 인격, 대인관계, 윤리, 그리고 사회성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증진되고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롬8:29).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효과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과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의식,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 신앙과 생활, 전도와 사회적 책임 등의 균형 있고 전인적인 신앙성장을 위한 훈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회란 그리스도인들의 '전인적인 신앙성장을 위한 사역(ministry)과 돌봄(care)'이며,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말씀 실천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적용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영성)뿐 아니라 인격과 사회성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 2 절 연구 목적

교인들의 전인적인 신앙성장을 위해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목회 전략은 '성경적 효(孝)'이다. 성경적 효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αββα)'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과 부모, 가족, 이웃, 나라, 자연 등 타자(他者)와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sup>1)</sup> 다시 말해 성경적 효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이자 영성·인격·사회성을 포함하는 "신앙의 생활화"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성경적 효의 삶"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제자의 삶)이라면 이는 곧 성경적 효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효는 가장 한국적이고도 성경적인 정신<sup>2)</sup>이며, 인류 보편적인 윤리(倫理)<sup>3)</sup>이고, 모

1) 최성규, *효신학 개론* (서울: 성산서원, 2004), 18-19.

2) Ibid., 16.

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효 훈련은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말씀의 생활화,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 책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함을 증명하고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를 교인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와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성경적 효 훈련이라는 목회 방법을 통해 목회의 목적인 교인들의 삶의 변화와 전인적(영성, 인성, 사회성) 신앙성장-성경적 세계관(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제 3 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신앙성장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효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성경적 효 운동"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교인들의 신앙 성숙도 측정은 "전인적 신앙성장 측정을 위한 설문"을 제작하여 사용하며, 측정대상은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 중에서 샘플집단을 구성하여 측정하게 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2장에서 신앙 성장에 관한 성경적 연구를 통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신앙 성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릴 것이다.

3장에서는 신앙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영성 영역(하나님과의 관계), 인성 영역(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생활 영역(타인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신앙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3)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서울: 삼일서적, 1994), 20. 윤리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인간 관계에 관한 이치를 말한다.

4장에서는 성경적 효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성경적 효 운동의 시작, 성경적 근거, 현대적 필요성과 신앙성장과의 연관성, 그리고 훈련의 내용이 되는 성경적 효 운동의 7대 사명을 설명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와 그 방법으로써 성경적 효 훈련프로그램들(2박 3일의 단기 영성훈련을 포함한 12주의 교육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지난 12년 동안 성경적 효를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하여 왔는지를 소개하게 될 것이다.

6장에서는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성경적 효 훈련이 전인적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측정 장치(설문조사), 샘플집단,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를 분석·평가할 것이다.

7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들을 진술할 것이다.

#### 제 4 절 용어 정의

##### 1. 성경적 효(孝)

‘성경적 효(孝) 운동’은 순복음인천교회에서 1995년부터 시작한 신앙실천 운동이다. 전통적인 효사상이 부모를 공경하고, 인간관계의 규범이며, 더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라면, 성경적 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의 모형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효’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자녀로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 실천의 삶이었다. 진정한 효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마 22:37-40)은 바로 성경적 효의 핵심이 된다. 이 두 계명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7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이·청소년을 사랑하고, 부모·어른·스승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웃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sup>4)</sup> 성경적 효란 이러한 7대 사명

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적 효 운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성, 인격, 가족, 이웃, 사회, 나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국적' 말씀실천 운동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성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성경적이고 인류 보편적이면서 한국 전통적 개념인 '효'를 사용하여 교인들(특히 불신자와 초신자)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인격과 정신을 고양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꺾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하나님 섬김과 인류 사랑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전인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전인(全人)적 신앙성장

'영성발달(Spiritual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앙성장(Faith Growth)'이 더 성경적 개념이기에 사용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성장이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신앙이 영적인 면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엡 4:13). 누가복음 2:52를 보면 예수님의 전인적인 신앙성장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신체, 인격,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성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 자아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타인중심(사랑의 이종계명; 마 22:37-40)의 성경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전인적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인적으로 성장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도요 신앙성장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명에 충성하셨고(요 17:4)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뜻)에 순종(실천)하신(눅 22:42; 갈 1:4; 빌 2:8), 즉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면적 신앙의 변화가 가족, 교회, 사회 등 외면의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최성규, *효신학* 제론, 20-21.

## 제 2 장

### 신앙성장에 관한 문헌적 연구

이 논문은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 본 연구자는 신앙성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영적 아버(고전 4:15; 살전 2:11)이면서 교사(엡 4:11; 딤후 1:11)로서 가장 주된 관심을 교인들의 신앙성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철학 안에서 신앙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목회 방법과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성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제 1 절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을 말씀하고 있다.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기초로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1.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을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고 요약하고 있다.<sup>5)</sup>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임박했다는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였고<sup>6)</sup> 또한 이 하나

5)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7.

님 나라의 복음은 공관복음서들의 공통된 내용이기도 하다.<sup>7)</sup> 따라서 신앙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사랑의 이증계명의 실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다(마 4:17; 마 13장; 마 24:14; 막 1:15; 눅 4:43; 요 3:5).<sup>8)</sup>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과 그 통치권이 구현되는 영역과 사람들을 의미한다.<sup>9)</sup>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로 인하여 수반되는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눅 4:43). 즉,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짐으로(마 6:10)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온 우주 안에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미래에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지만(막 9:47; 10:23; 14:25; 마 7:21),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현재 여기서(hear and now)' 실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더 많이 증거하고 있다(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 11:20; 눅 17:21).<sup>10)</sup> 우리는 아직 현재의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가올 시대는 여전히 미래에 속하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서 견짐을 받아 더 이상 이 시대에 예속되어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sup>11)</sup>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죄와 죽음)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현재적으로 세워 나가는 과정이다. 사단은 아담의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주장 의지'를 충동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었다.<sup>12)</sup> 이것을

6)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2), 49.

7) G. R.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15.

8)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17.

9) Ibid., 50.

10) 김세운, *예수와 바울*, 57.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측면, 곧 '이미'(already) 성취된 것과 미래적 측면, 즉 '아직 아니'(not yet)로 특징지을 수 있다.

11) G. E. Ladd,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42-43.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sup>13)</sup> 창조주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게 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번영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행동, 즉 교만으로 창조주와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내재적 자원(피조물적 유한성)에 의해 살게 되면서 지혜와 능력의 결핍이 생기고 고난이 시작되었으며,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통치(죄와 죽음) 아래로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이미 죽음의 상태에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성령의 능력(초월자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사단의 통치(죄와 죽음)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현재적으로 세워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영생은 지금 이 땅 위에서 만민에게 열려 있는 그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sup>14)</sup>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역은 내세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위한 복음인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는 사단의 통치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인 병고를 제거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치유”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눅 19:10). 또한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요 10:10).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9:35).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언제나 치유가 있다. 그리고 이 치유는 개인의 육체적인 치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들, 즉 심리적 불안,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심지어 자연적 재해 등 사단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증상들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치유(구원)’를 의미한다.<sup>15)</sup>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단순히 내세에서 자신의 영혼의 안녕을 보장받는 구원 정도로, 또는 현세의 물질적, 육신적 축복을 약속받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곤 한다. 이런 자아 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아

12)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31.

13) Ibid., 32.

14) Dall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0), 22.

15)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65-70.

무 능력도 갖지 못하며 도리어 진정한 복음에 역행하여 교회와 교인들 안에 억압, 분열, 갈등 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국제회의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복음 전도와 정치, 사회참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사회활동은 복음 전파의 결과인 동시에 복음 전파에 이르게 하는 다리로서 이 둘은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다. 복음은 뿌리이므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모두 그 열매이다.<sup>16)</sup>

이제 21세기를 맞은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르는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내면적 영성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진정한 영적 생활은 적극적인 생활이다. 역사의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지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 역사의 현재의 순간에서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향해 살고 사람들과 진정한 인격적 입장에서 교제도 나누어야 한다.<sup>17)</sup>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막 12:29-31)의 실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이증계명의 실천으로 오는 것이다.<sup>18)</sup>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마 13:31-32)와 누룩 비유(마 13:33)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한다. 겨자씨 비유는 외연적인 성장을 말하고 누룩의 비유는 점진적이며 영적이며 내면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9)</sup>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은 내면적인 성숙과 외연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말한다.<sup>20)</sup> 외연적 성장은 내면적인 성숙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먼저 사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아들됨, 상속자의 신분 회복),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솟아나는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상호용서, 화해, 살림). 또한 인간 자신의 내재된 제한된 자원(결핍과 그에 따른 맘모니즘, 고난

16) John Stott,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6.

17) Francis A. Schaeffer, *진정한 영적 생활*,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35.

1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07-116.

19) 김세윤, *주기도문감해* (서울: 두란노, 2000), 160.

20) Ibid., 158.



과 죽음)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확보하려는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심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구원, 영생)를 누려야 한다.

신앙성장은 이러한 점에서 영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어느 한 쪽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 분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영성'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의 '현재적 구원'과 '전인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과 화해, 섬김 그리고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사회성'의 균형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신앙성장의 궁극적 열매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 여기'에 이루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의 모든 영역들-가족·이웃과의 관계와 정치·경제·사회·문화·자연 등 인간의 모든 실존 영역들-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때 그곳들에서 고난이 제거되고 온전케 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신앙성장이고,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이루는 것이요, 참된 복음이다.

#### 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이 충만해져야 함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계명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하신 것이다(요 10:30; 14:31; 10:32)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요 17:21; 요 14:10).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막 12:30).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늘 기뻐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sup>21)</sup>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이고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품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신념이 바뀌어야 한다. 성경은 “무릇 지키기만 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다(잠 4:23).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마 12:34). 마음(사고,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이 기분의 상태를 정하고 다시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sup>22)</sup>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마 3:2)고 명령하신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오던 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오랜 인생을 살면서 신체적, 사회적 자아의 일부로 굳어진 잘못된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구습과 그 “노예(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신다(요 8:34; 롬 6:6). 죄의 습관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거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혹은 “인간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됨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재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선한 습관’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요 16:13; 마 4:4; 막 1:35; 눅 6:12).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순종을 실제로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요 14:23).<sup>23)</sup> 말씀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요 14:15; 요일 5:3), 신앙성장의 열매이다(마 7:17; 갈 5:22; 엡 5:9).

신앙성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인간의 진정한 존재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

21)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427.

22) Ibid., 432.

23) Ibid., 447.

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다.<sup>24)</sup>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확신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 행함을 통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생활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막 12:31). 진정한 신앙은 영성(하나님과의 관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성장의 또 다른 정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신앙)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요 17:3). 믿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한다(요 3:16; 1:12).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보시는데(마 8:10 백부장; 막 2:5 중풍병자 친구들; 눅 8:48 혈루병 여인), 이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은 그들을 치유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 또한 예수님은 ‘실천하는 믿음’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믿음(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셨지만 많은 곳에서 믿음의 크고 적음을 말씀하고 있다(마 6:30; 마 8:26; 마 14:31; 마 15:28; 마 16:8; 마 17:20; 눅 12:28).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을 믿으며(요 4:48),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전제로 하신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가르치신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눅 8:11),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마 7:24), 좋은 믿음 혹은 신앙성장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

24)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35.

난다고 말씀하신다(마 7:17).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말, 행동, 인격, 대인관계 등을 통해 우리의 믿음(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이다(마 7:20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하심으로 모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의 모본을 보이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요 5:43),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요 10:37), 아버지 안에 거하였으며(요 14:11),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요 14:31) 온 인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셨다(요 19:30).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요 17:4).

예수님의 삶의 또 다른 모본은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52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되어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많은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며(요 15:5,8),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마 28:19-20).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7-40; 요 10:10,12).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이증계명”을 실천할 때 “대사명”도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요 13:35).

지금까지 살펴 본 신앙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본은 우리의 믿음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

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믿음은 치유와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오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인적이고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신앙은 생활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모든 생활이 신앙의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장은 신앙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겠다.

## 2.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포에 담긴 구원의 약속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빛에 비추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의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활 이후 사도행전과 바울 그리고 요한의 케리그마들은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 사건의 핵심으로 이해하며, "예수가 우리(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고전15:3-5; 롬4:25; 8:3; 갈3:13; 고후5:21 등)는 신앙고백과 케리그마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사도들의 복음 가운데 나타난 신앙성장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구원의 완성: 칭의 이후 점진적 성화의 과정

신앙성장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롬 10:9,10).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구원 받은 것(칭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벧전 2:1-2에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한다(현대어성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칭의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성장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구원에는 과거(엡 2:8), 현재(고전 1:18), 그리고 미래(롬 5:9-10)가 있다.<sup>25)</sup> 바울

은 구원이 칭의에서 시작하여 성화를 거쳐 영화로 들어가는 연속이라고 가르친다(롬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sup>25)</sup>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sup>27)</sup> 증생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갈 4:19)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소명, 회심,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완성되어 간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고 그리고 그 예정이 인간에게 실현되고 실감되는 최초의 사건인 소명(부르심)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롬 8:30). Berkhof는 성령(내적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 증생의 효과적 원인이라고 말한다.<sup>28)</sup> 설교 말씀(외적 부르심)의 도구를 통해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 내적 부르심으로 전이되고,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새 생명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출생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소명은 회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성령의 사역이 된다(행 16:14; 롬 9:16; 빌 2:13; 겔 11:19).<sup>29)</sup>

성령의 특별사역에 의한 부르심은 회심을 일으킨다. 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 회개는 과거와 관련이 있고, 신앙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sup>30)</sup>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인의 의식 영역에서 야기되는 변화”로, 신약성경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인 메타노이아(μετανοια)는 죄의 회개 뿐 아니라 지적·정서적·의지적인 행동(삶)의 방향전환을 뜻한다(딤후 2:25; 고후 7:10; 행 8:22).<sup>31)</sup>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신앙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신앙은 성령에 의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신뢰)으로 지성적·감정적·의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전인간적인 행위

25) Francis A. Schaeffer, *진정한 영적 생활*, 119.

26) Ibid.

27) Michael Wilkins, *제자도, 이역부 역* (서울: 은성, 1995), 273.

28) Louis Berkhof, *조작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721.

29) Ibid., 723.

30) Ibid., 735.

31) Ibid.

이다(롬 4:21; 롬 14:14; 고후 3:4).<sup>32)</sup> 이 신앙은 칭의의 “도구적 원인”<sup>33)</sup>이 된다.

회심을 통하여 받게 되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이다.<sup>34)</sup>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칭의; 롬 8:30).”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다(롬 3:24) 칭의에는 소극적 의미의 죄의 용서와 적극적 의미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이 있다. 이러한 신앙(믿음)과 회개를 통한 죄인의 칭의는 구원의 중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엡 2:8-9). 신앙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이러한 절대적 의미의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에 의해 육체적 생명(βίωσις)과 구별되는 영적 생명(ζωή)을 받는 것으로 일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난다.<sup>35)</sup>

중생으로 새로워진 영적 자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인 갱신을 위한 죽고 다시 살아남은 평생을 걸쳐 계속되어야 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이다.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이러한 전 생애에 걸쳐 계속 되는 옛사람과의 끝없는 영적인 투쟁을 “계속적 중생” 또는 “성화”라고 한다.<sup>36)</sup>

성화(聖化)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로는 ‘거룩하다’(출 29:37; 레 6:18) ‘거룩하게 하다’(창 2:3; 대하 29:5)라는 뜻으로 사용된 “카다쉬(קָדַשׁ)”, 헬라어로는 ‘거룩하게(聖化)한다’는 의미인 “하기아조(ἁγιαξω)”가 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 의미는 ‘따로 떼놓다’, ‘구별하다’는 분리의 개념이다.<sup>37)</sup> 거룩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 전통이 신약으로 연결된 것으로(레위기 4장 속죄제, 레 16:30; 히 9:13-14) 성경 전체를 통해 공통된 점이 있다.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 또는 사물의 귀한 상태, 아니면 그와 같이 구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32) Louis Berkhof, *조직신학*, 754.

33) Ibid., 774.

34) Ibid., 765.

35) 이 중생에는 ‘새 생명의 발생’(generation)과 새로운 생명이 감추어진 심연에서 표출되는 ‘출생’(bearing)의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Louis Berkhof, *조직신학*, 714, 718.

36) Berkhof는 “칭의 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며 그가 선행(성화의 열매)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을 성화라고 정의한다. Ibid., 784.

37)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5.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1993), 52.

성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계시된다.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살전 4:4)이요 명령이다(레 11:45, 뵤전 1:15).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기록함을 추구해야 하며(히12:14),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딤후4:7).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성화된(기록한) 사람들(ἡγιασμενοι)”과 “성도(ἁγιοι: saints, 고전 1:2)”라고 하였으며 이는 항상 복수로만 사용되었다. 이는 ‘공동체적 성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최악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을 지닌 채 개인적인 성화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에서 분리되어 타자중심이 되는 것이 기록이고, 그 과정이 성화(신앙성장)이다.

성화의 삶은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약 2:26). 진정한 믿음(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신앙의 세 요소인 지성, 감성, 의지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고후 5:15-20).<sup>38)</sup>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부인과 순종을 통한 십자가의 삶, 전인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칭의 중심적 구원관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순간에 받는 칭의와 증생을 구원의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적 구원만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완전한 성화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sup>39)</sup>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이 먼저 역사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응답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sup>40)</sup>고 주장하는 소위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웨슬리의 성화론을 경청하여 실천적이고 균형 있는 신앙으로의 혁신과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칭의가 없는 성화는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복음은 아니다. 반면에 성화가 없는 칭의는 한 인간과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체가 없는 성도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뵤후 3:18). 또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38) 김상복,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햇불, 1993), 10.

39) Ibid.

40) 김흥기 외,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224.



을 이루"어야 한다(빌 2:12).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앙성장은 구원을 완성하는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다. 참된 신앙성장이란 증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롬 5:15-17, 딤후 1:9)인 '의롭다 하심(칭의)'에서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통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의지적인 자기부인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빌 2:12) 영적 발전의 긴 과정이다.

#### 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영성, 인성, 도덕성, 공동체성의 전인적 성장

신앙성장의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sup>41)</sup>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높임 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바울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의 회복이라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고전 15:45ff.)과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고후 4:6)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롬 8:29; 골 1:18), 인간은 그와 연합하여 변화 받음(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후 5:16-21; 갈 3:28; 6:15; 골 3:11; 고전 12:13).<sup>42)</sup>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며(롬 8:30),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골 1:28),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롬 8:29)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성취가 완료될 종말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함을 강조한다(엡 4:22-24; 골 3:12ff.; 롬 12:1f).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인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창 1:26-28). 순수하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성(靈性)을 소유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었다. 이 영성은 지성

41) 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2003), 220. 그리스도를 *eikón tou theou* (하나님의 형상)로 칭하는 것(고후 4:4; 골 1:15)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또는 그 형상으로 변화 받는다는 사상은 신약 중에서 바울 서신에만 나타난다.

42) Ibid., 542-543.

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영혼 전체의 성품을 가리키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개념이다.<sup>43)</sup> 하나님과의 영적·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기독교적 인간론의 근간을 이룬다.<sup>44)</sup>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참된 본성(인간성,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영성과 인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도덕성, 공동체성(사회성), 자연과의 관계 회복까지도 포함한다. Glasser는 인간성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한다.<sup>45)</sup>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으며, 또한 이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만물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Norman Schawchuck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은 내면적 차원과 대인관계의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만남의 차원 등 인생의 전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삶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6)</sup> 권택조는 기독교는 최고의 도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sup>47)</sup>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개인의 도덕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도덕적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하여 H. W. Wolf는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시킨다.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피조물(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8)</sup> Dallas Willard는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영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고 정의한다. 전인적 영적 성장이란 생각(thought, 이미지, 개념, 판단과 추론), 감정(feeling, 감각과 느낌), 선택(choice, 의지와 결단과 성품), 몸(body, 행동과 물질적인 세계와의 상호행위), 사회적인 상황(social context,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관계) 그리고 영혼(soul, 하나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요소)이라는 6가지 분야<sup>49)</sup>에

43) 이정석, *신앙성장론*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5), 41.

44)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135.

45) Arthur F.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운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52.

46)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54

47)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1999), 57.

48) H. W. Wolf,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272.

49) Dallas Willard,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3), 50..

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며 이들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 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변질'되어 버렸고 그릇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sup>50)</sup>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까지 단절시켰다. 따라서 인류의 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성취를 보게 된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며, 교제의 장을 열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성으로 복귀하는 역사인 것이다.<sup>51)</sup> 그로 인하여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웨슬리는 성화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의 체험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로서 우리를 내적으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likeness)으로 회복시킨다고 말한다.<sup>52)</sup> 참된 기독교적 삶의 양식은 거룩한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온전한 인간'으로 진보, 성장하는 성화와 완전의 삶이다(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서 영적인 중심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전인완성에 힘쓸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sup>53)</sup>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참된 인격과 영적인 성숙은 일어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롭게 창조, 회복,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영성)'인 것이다.<sup>54)</sup> 또한 동시에 인간의 '책임성 있는 참여'를 필요로 한다. 성숙이란 감정의 변화가 전부라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새롭게 조명됨으로 지·정·의를 동반한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50)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167.

51) 한상민, "구약의 중심으로서의 효와 성경의 통일성," *효와 성경* (서울: 한들출판사, 2002), 20.

52) Sermon 43,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Works* 2:153-169.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32.에서 재인용.

53) Howard Clinebell, *전인건강*, 이종현·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6.

54) 이후정, *성화의 길*, 228.

이처럼 신앙성장은 중생과 성화를 통해 타락으로 오염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영성, 인간성, 도덕성,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전인적인 성장이다.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기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전인, 즉 영혼과 육체(살전 5:23), 지성(골 1:10), 감성(살 5:22,24)과 의지(빌 2:13)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결코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며, 아담의 범죄로 변질된 하나님과, 이웃들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총체적인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감: 제자도(Discipleship)

신앙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의이면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는 제자도(Discipleship)라는 말이 없고, “제자(μαθητής)”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230번, 사도행전에서 28번 사용되었다.<sup>55)</sup> Michael Wilkins는 제자도를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자라감(제자도: discipleship)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제자화: discipling)”이라고 정의한다.<sup>56)</sup> 제자도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며, 실제적인 인격과 삶을 통해 전인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sup>57)</sup> 또한 제자라는 용어는 특정인을 지칭할 때(요9:28; 마10:24; 눅6:20; 행9:10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복수형 “제자들(μαθηταί)”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sup>58)</sup> 이점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제자란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라는 용어는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생겨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는 다른 이름들(‘믿는 자들’, ‘형제들/자매들’, ‘그리스도인’, ‘성도들’)로 대체되었다.<sup>59)</sup> 그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행 11:26).

55) Michael Wilkins, *제자도*, 40.

56) Lois & Steve Rabey, *21세기 제자도 사역핸드북*,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3.) 351.

57) Michael Wilkins, *제자도*, 42, 404.

58) Ibid., 40.

59) Ibid., 330-340.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엡 4:13; 갈 4:19). 이것이 신앙성장의 목표이다.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16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13, 15절)

바울이 말하는 신앙성장은 신앙과 지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피상적이거나 낭만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일치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정신을 철저히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신자들 중에는 약한 자와 강한 자(롬 15장),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고전 2장),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고전 13:11)이 있다. 전자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라 행하며 자아 중심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시기와 분쟁에 시달리는 신앙의 초보자들로서 성장이 필요한 자들이다.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다.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권면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반복적으로 가르침만 받지 말고 “완전”을 향해 전진하라고 강권한다(히 6:1-2). 또한 베드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한다(벧후 3:18). 이는 신앙성장은 제자도로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며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뜻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초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완전무결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끊임

없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Bonhoeffer는 당시의 독일 루터교회가 제자도를 희생시키고 은혜만을 강조함으로써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없는 은혜이다”라고 말한다.<sup>60)</sup>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순종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제자도요 신앙성장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엡 4:16a “그(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머리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골 2:19).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갈 2:20),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희생(막 8:34)이 요구되며, 고난(롬 8:17; 뱀전 2:21)과 생명(행 20:24)까지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맡기는 인격적 위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고 고백한 바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데서 신앙성장은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는 대인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개인의 신앙성장과 열매는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들(교인)과 얼마나 견고히 연결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가에 달려있다(엡 4:16b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종(doulos)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종의 삶을 사셨다(빌 2:7,8; 막 10:45). 예수님에게는 종이 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sup>61)</sup>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온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셨다(골 1:20).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종된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후 5:18).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구제, 봉사, 전도-을 열심히

60)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6.

6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164.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 있고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신앙성장이란 제자도의 과정이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전적 위탁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며, 봉사·희생을 통해 자기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제자도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닮아가야 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들과의 관계성(공동체: 가족, 직장, 교회, 지역사회, 인류, 자연) 안에서 형성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 제 2 절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정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성경적인 신앙성장이란 첫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이증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즉, 가정, 교회, 사회와 문화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체험하며 이루어 가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신앙성장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회개, 말씀과 기도 등의 선한 습관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일상가운데 실천하는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칭의(의롭다 하심)에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부인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영적 발전의 긴 과정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영성) 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공동체성)의 회복을 이루는 관계성의 회복이며,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기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살전 5:23), 지성(골 1:10), 감성(살 5:22,24)과 의지(빌 2:13)가 우리 속에 완성되는 전인적인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신앙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 봉사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신앙성장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종합하여 신앙성장을 정의하면, 신앙성장이란 첫째, 영적 신분의 변화(영혼구원)에서 시작되어 인격과 삶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증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이루어 가며,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둘째, 신앙성장은 관계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성품)을 회복함으로 다른 모든 영역과 관계들(공동체)에서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신앙성장의 모습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성장은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실천되는 신앙의 생활화이며,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사람들을 섬김으로 신앙·인격·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제자도이다.

신앙성장의 과정은 먼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고(엡 2:8; 요 6:39),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일어난 내면(영성)의 참된 변화를 통해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타인중심으로 자신의 윤리 도덕적 인격을 성숙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든 영역-가족, 교회, 직장, 지역사회 등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각각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성장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신앙은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공의, 봉사와 희생의 삶이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성장이다. 예수님의 제자요 “성경적 효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은 ‘말씀의 생활화’이며,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성의 성장’이어야 하고, 또한 영성과 인격과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성장’이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인격·생활에서 전인적으로 변화된(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엡 4:13),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성장(부흥)하게 될 것이다(행 2:47).



## 제 3 장

### 신앙성장에 필요한 요소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전인적 신앙성장의 요소들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관계성이요 전인적인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 신앙성장을 위해서는 영성, 인격, 삶의 세 영역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신앙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제 각 영역이 어떠한 요소들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영성 영역에서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세속화된 현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를 자기 존재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한다(창 1:1).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요1:12 갈 4:6).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신 10:22 신 6:4-5; 마 4:10)은 신앙성장의 기초가 된다. 영성 영역의 성장은 내면(영)적 성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원, 성령, 말씀, 기도, 예배 등이 있다.

#### 1. 그리스도 중심적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서 시작된다. 참된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오늘날이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영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많은 현대인들이 뉴에이지를 포함하는 종교다원적인 자연종교적 영성, 관계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초자연적이고 신비적 영성, 삶과 연결되지 않는 감상적인 낭만적 영성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sup>62)</sup> 이러한 일반 영성은 인본주의적 영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엄격한 자기훈련과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도덕적인 개선이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이러한 영성은 모두 인간의 교만이요 헛된 일이다.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죄 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한다(고전 6:11).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요 1:12)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참된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된다.<sup>63)</sup>

## 2.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에 동참

영적 성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의지의 힘과 결심을 통해서도 결코 내적 변화를 얻을 수 없다.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인격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적인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성령의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성령은 우리로 죄(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요 16:7-9).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바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전 12:3). 우리는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전 6:11).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롬 8:2). 성령은 죄악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

62) 이정석, *신앙성장론*, 37-40.

63) Francis A. Schaeffer, *진정한 영적 생활*, 15.

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롬8:5).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롬8:6) 우리가 하나님  
 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해 주신다(롬8:16).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롬8:26-30).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  
 게 하신다(요14:26). 우리의 인격과 삶을 성화시키신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을 강건하게 하시고(엡3:16)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롬15:16)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  
 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갈5:22-23)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화의 삶을 말한  
 다. 그리고 성령은 서로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  
 사를 주심으로 공동체(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도모하게 하신다(롬12:4-5, 고전  
 12:7).

성령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며(속4:6; 행1:8), 성화의 전체 활동을 촉진  
 시켜 준다.<sup>64)</sup> 또한 증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 모든 성령의 역  
 사를 개인 뿐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상을 변모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  
 져오게 한다. 영적 성장의 주체는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리스  
 도인의 삶을 바로 살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성령께 드리고 성령을 좇아 행하기로 작  
 정하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가 될 것이다. 즉 인간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영적 성장이 가능케  
 된다. 이러한 영적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다.

### 3. 말씀: 인지적 성장

영적 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 참 제자도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64) Stanley M. Horton, "오순절 교회 입장",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IVP, 1991), 153. 오순절 교회의 입장은 증생도 성령의 사역(요 3:3-8)이지만, 성령 세례를 증생과는 다른 경험으로 인식한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성령에 의한 세례와, 그리스도께서 세례 주시는 자로 계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신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목적인 성령 안에서의 세례(눅 24:49; 행 1:8; 2:4)를 구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학적 경향은 오순절파만의 것은 아니다. Ibid., 165-166.

의미하는데(요8:31-32),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뜻이다.<sup>65)</sup>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로고스)자체이시며(요1:1) 생명의 말씀이시다(요일1:1). 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벧후3:18; 골1:10). 진정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요14:14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 22-24).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막14:36; 빌2:6-8).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 성경의 본문에서 출발하여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고(관찰; observation),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해석; interpretation), 그 뜻을 구체적 삶에 적용(application)하며 실천하고자 해야 한다.<sup>66)</sup>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법을 알려 주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 성장시킨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음식을 잘 먹고 활동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신다(계1:3 "복을 얻나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이다. 말씀의 생활화가 목표이어야 한다.

#### 4. 기도: 정서적 성장

영적 성장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

65) Michael Wilkins, *제자도*, 424.

66) 오성춘, *영성과 묵회*, 295.

하신다(마6장; 눅11:9 18:1 골4:2 살전5:17).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히4:16)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고전3:9), 하나님과의 대화요 인격적인 교제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진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행위이다. William Carey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밑뿌리에 있다”고 말한다.<sup>67)</sup>

영적 성장에서 있어서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뜻)를 이루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막1:35; 눅6:12 9:28; 22:44).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점점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모델을 보여 주기 위해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생활을 하셨다. 예수님에게 기도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Richard Foster는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킨다고 한다.<sup>68)</sup>

기도는 인간의 부정적 정서들(열등감, 무의미, 걱정, 죄책감, 두려움 등)을 치유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감사와 소망 등의 정서를 발달시킨다.<sup>69)</sup> 신앙의 초기 단계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개인적 간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져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족, 교회, 사회, 세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으로써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하며, 기도와 행동은 하나이어야 한다.

##### 5. 예배: 영적 행위의 성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다른 표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67) E. M. Bounds, *기도의 능력*, 이정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23.

68)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개정 2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56.

69) 권택조, *영성발달*, 169-173.

것이다. 예배(worship)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계 4:11; 5:12-13),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sup>70)</sup>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사 43:7, 골 1:16). Hoekema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성화의 최종 목적이 된다(엡 1:4-6; 빌 1:9-11)고 말한다.<sup>71)</sup>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대표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시 22:3),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에 만날 수 있다(렘 29:13),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sup>72)</sup>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배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in Spirit and in truth)”에 있다(요 4:23-24).<sup>73)</sup>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이 포함된 예배를 요구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는 명령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 영과 감정 모두를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함을 입게 된다(롬 12:1). 또한 우리는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될 것이다.

예배와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말씀(인지)과 기도(정서)에서의 성장은 삶(행동)에서 성장을 가져온다. 예배를 가리키는 독일어 “Gottesdienst”는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는데, ‘하나님에 의해 비롯되는 행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라는 상호관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74)</sup> 또한 “예전”(Liturgy)이라는 말은 ‘공공사업’ 또는 ‘사람들의 일’을 뜻하는 희랍어 “Leitourgia”에서 비롯되었다.<sup>75)</sup> 이는 예배가 나눔과 봉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써(롬12:1),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전 존재)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역(통치)으로 옮기는 것이다.

70) Donald S. Whitney, *영적 훈련*,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7), 116.

71) Antony A. Hoekema, “개혁주의 입장,”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115.

72) Dallas Willard, *영성 훈련*,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3), 204.

73) Richard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28.

74) Todd Johnson, *Worship in Theory and Practice* (Syllabu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Fall 2006), 8.

75) Ibid., 9.

따라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신앙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 제 2 절 인성 영역에서의 성장: 참된 인간성(인격;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성과 더불어 인성의 영역에서도 성장해야 한다. 인간의 참된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창조 목적과도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인격으로의 변화가 없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Bonhoeffer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고 제안한다.<sup>76)</sup>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교제)를 맺음으로 참된 인간성(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내면의 자아(마음과 영혼)가 달라지면 외면의 삶(행동과 관계)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간됨(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새로운 자아상, 자기부인과 십자가의 도, 순종, 섬김, 사랑, 윤리와 도덕성 등의 요소들을 통하여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다. 우리의 인격은 그분을 본받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된다. 바울에게 도덕적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롬15:7; 고후10:1; 엡5:25).<sup>77)</sup>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며(빌2:5),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에는 인격적/영적 실체의 가장 깊은 핵심을 이루는 '의지'가 흔히 '마음'으로 표현되곤 한다.<sup>78)</sup> 또한 마음은 인격의 핵심으로, 지성과 감성, 의지와 덕 등 인격의

76) Frank Sherman, "Dietrich Bonhoeffer," Martin E. Marty and Dean G. Peerman, *A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ians*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84), 476.

77) Stanley J. Grenz,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신원하 역 (서울: IVP, 2001), 144.

전체를 포괄하는 전인적 자아의 중심이다.<sup>79)</sup> 그래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릇 닮은 사람의 교훈(마23:25-26)과 좋은 나무의 교훈(눅6:43-45)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과 행동과의 연관성을 가르치신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꾀방과 거짓말 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새사람”의 마음을 입어야 함을 가르친다(골3:5-12). 즉,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sup>80)</sup>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격;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겸손과 순종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죄를 소멸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같이 새로운 신적 생명으로 충만한 인격과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의 열매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맺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성령 안에서만 진정한 인격적인 삶이 가능하며, 참된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등의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가르친다(갈5:22-23).<sup>81)</sup>

또한 바울은 아무리 성령의 인도가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갈5:17; 롬7:15-23). 우리의 의지(인격적) 결단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롬8:5-6).<sup>82)</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는 성령(요엘2:28-29)의 충만함을 받으며(엡5:18), 인격적 결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신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78)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125.

79) 이후정, *성화의 길*, 204.

80)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286-298. Bonhoeffer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말한다.

81) 오성춘, *영성과 목회*, 136.

82) Ibid., 163.



## 2. 새로운 자아상과 자기부인: 새로운 피조물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건강한 자아상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자아상은 타락으로 인해 자만, 이기심의 상향적 자아상과 수치심, 열등감의 하향적 자아상으로 변질되었다.<sup>83)</sup>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예속된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전5:17).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죄된 자만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게 된다.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솔직히 인식하고(롬12:3),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빌2:3), 우리의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벧전4:10).<sup>84)</sup>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마16:24).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 “자기 부인”으로 압축한다.<sup>85)</sup>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게 하는 것이다(빌 1:21).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이 포함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명예”를 메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쉼을 얻게 된다(마11:28-30). 교회는 영광의 신학 뿐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도 있어야 한다. 웨슬리는 자기부인과 십자가의 도가 온유와 침묵 속에서 고난과 악을 감내하는 겸비와 인내와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괄이라고 보았다.<sup>86)</sup>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포기(resignation)하고 복종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83)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181-182.

84) Ibid., 185-186.

85)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489.

86) 이후정, *성화의 길*, 146.

### 3. 순종: 거룩함과 책임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Bonhoeffer가 말한 대로 은혜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복종 없는 신앙 곧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sup>87)</sup> 하나님의 말씀(명령)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관계(창1:27-30; 9:9-11; 12:1-3)에서 발생하며, 인간의 윤리적 삶의 토대가 된다.<sup>88)</sup>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무리"(출12:16)이며, 이 거룩함은 언약의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로 순종함을 의미한다(신6:5, 20).<sup>89)</sup>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우상과 세속적이고 오염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룩'(ἁγία: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성별됨)인 것이다. 거룩함, 의, 자비,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반영하는 도덕적 형상은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인격의 형상이다.<sup>90)</sup>

순종은 율법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포된 '책임'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91)</sup> 예수님은 의의 성격,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율법 자체의 적합한 해석에 관해 당시 청중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셨다.<sup>92)</sup>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양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준수가 아니라 중심, 곧 인간 존재의 내면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참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요14:21). 그리고 순종은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

### 4. 섬김: 타자중심주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타인을 섬기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려는 것이었다(마20:28). Bonhoeffer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정의한다.<sup>93)</sup>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교회론과 인간론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87)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24-26.

88) Stanley J. Grenz,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118.

89) Ibid., 119.

90) 이후정, *성화의 길*, 228.

91) Stanley J. Grenz,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120.

92) T. B. Maston, *Biblical Ethics*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82), 148..

93) Andreas Pangritz,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John W. de Gruch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50.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는 교회이며,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도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다.<sup>94)</sup>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자기 아닌 타자들(others: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타자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타자중심주의란 위로는 하나님중심(God-centeredness)이며 아래로는 타인중심(people-centeredness)을 의미한다.<sup>95)</sup> 진정한 신앙성장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중심으로 사느냐에서 나타나게 된다.<sup>96)</sup> 영성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타자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인중심적인 인격은 바로 성경 모든 말씀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 준다.

##### 5. 사랑: 천국 마음의 완성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인격이다. 성화의 목표인 완전한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또한 사랑은 율법과 계명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며, 완전한(성화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써 그 전체를 지키게 된다. Dallas Willard는 천국 마음의 완성이 아가페 사랑이며,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 천국과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sup>97)</sup>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천국마음을 품은 자는 일상생활에서 주변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유, 겸손, 자기부인, 희생, 순종, 섬김 등의 인간 내면의 성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전14:1).

성경이 사랑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곧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

94) Larry L. Rasmussen,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Nashville, Tennessee: Abindon Press, 1972), 19-21.

95) 권택조, *영성발달*, 25.

96) J. O. Sanders, *Spiritual Maturity* (Chicago: Moody Press, 1962), 191-192.

97)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255.

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 교제와 연합으로 사랑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4:11).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윤리가 된다.

#### 6.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성화

윤리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원리이며 ‘인간관계에 관한 이치’이다.<sup>98)</sup> Stanley J. Grenz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윤리학이란 “성경과 기독교적 확신에 준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sup>99)</sup> 또한 L. H. Marshall은 예수님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게 될 때 필연적으로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한다.<sup>100)</sup>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막1:15),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개인이기주의, 물질주의, 출세주의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돌보심과 풍성함을 누리며,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추구하는(마6:33)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막 12:29-31)의 실천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이다. 이것은 심리학자 Kohlberg가 그의 도덕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인 “완전히 자아를 버리고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sup>101)</sup>과 동일한 개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비도덕적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원리이며 율법의 완성이 된다(롬13:10).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에클레시아’(교회)를 이루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고전12:12),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고(고전

98)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20.

99) Stanley J. Grenz,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26.

100) L. H. Marshall, *The Challenge of New Testament Ethics*(London: Macmillan, 1947), 31.

101) N. A. Sprinjal & R. C. Sprinjal, *Educational Psychology*(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90), 174-179.

12:5), 피차 섬기며(엡5:21),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희생적으로 배려하고 살며(갈2:2 빌2:1-11),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전 10:23-33).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제 3 절 생활 영역에서의 성장: 타인과의 관계 회복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은 인간 자아의 모든 본질적 요소(영혼과 마음)가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유지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올바르게 변화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다.<sup>102)</sup>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이원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103)</sup> 첫째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구원의 문제와 교회성장 문제에만 집착했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주로 수직적 신앙만 강조했지, 수평적 사랑 실천은 무시해 왔다. 셋째로, 거룩성과 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이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등 세속적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모순적 사실이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의 상실은 기독교의 신앙과 행동의 통일성이 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노력해야 한다.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은 말씀실천이고, 생활이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이웃 사랑의 명령에 기초한 공동체적/사회적 책임의식과 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천의 영역은 가족(부모, 부부, 자녀), 이웃(교회 성도, 지역주민), 사회와 문화, 국가, 세계 모든 인류뿐 아니라 자연에까지 확장된다.

102) Larry L. Rasmussen, "A Question Of Method," William J. Peck, ed., *New Studies In Bonhoeffer's Ethics*(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87), 122.

103)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56-58, 165-167.

### 1. 가족: 부모 공경, 자녀 사랑, 부부상조(돕는 배필)

이웃 사랑의 실천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가족, 특별히 부모가 자리하고 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의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다(출 20:12).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적한다(엡6:2). 이 약속은 인간 영혼의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명이 길고 건강한 실존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감사할 수 없는 것이다.<sup>104)</sup> 부모는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 하지 않으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된다.

성경에서 ‘공경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카베드’(כָּבֵד)는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잠 3:9)과 부모님(출 20:12 신 5:16)뿐이다.<sup>105)</sup>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 부모공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엡 6:1-3),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잠 23:25). 이러한 부모 공경은 또한 우리나라 전통의 윤리인 ‘효(孝)’와 일치한다.

부모는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엡 6:4). 자녀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고, 자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하나님 중심의 윤리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본을 보임으로 바른 인성과 신앙으로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와 가족, 이웃,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남녀는 동등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104)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449.

105) 최성규, *효신학* 개론, 46.

남자와 여자를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창1:26-31). 이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 통치권을 대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06)</sup> 창세기 2:18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한다. 돕는 배필에 해당되는 히브리말은 ‘에제르 크네그도’다. 이 말은 우리말 성서에서 ‘돕는 배필’(개역), ‘거들 짝’(공동번역),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표준새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다.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이고, ‘크네그도’에는 ‘-와 마주보는/동등한’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적용하면 ‘동등한 돕는 자’라는 의미다.<sup>107)</sup>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란 ‘완전한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동반 관계’를 말한다. 여자가 아담을 돕는 열등하고 부속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며’,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남녀관계가 창세기 3:16부터는 타락의 구조 속에서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종속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질서로 인해 타락으로 왜곡된 인간관계를 바로잡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한다(갈3:28).<sup>108)</sup> 새 창조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며,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원칙이요 열쇠로 작용해야 한다.<sup>109)</sup> 따라서 부부는 동등하며 또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엡5:21-33) 전체에 대한 핵심이 된다.<sup>110)</sup> 갈라디아서 3:28의 동등성의 원칙하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자기희생과 타인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공경, 자녀사랑, 부부가 동등하며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살 때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106)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14.

107) 김정우,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 *구약해석학논문집*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138-140.

108) 김세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 22.

109) Ibid., 23.

110) Ibid., 70.

## 2. 이웃: 교인, 지역주민, 인류, 사회적 약자 돌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마 25:40).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요일 3:17).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은 교회 안과 밖, 지역, 민족이나 나라의 구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자매이기에(행 17:26; 사 64:8) 우리는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며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우리를 불러 고난당하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신 13:4), 감사(삼상 12:24), 기쁨(시 100:2) 그리고 사랑(갈 5:13)에서 나온다.<sup>111)</sup>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은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영적 은사를 활용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한다(엡 4:12; 고전 12:7).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은사 발견하고 그 은사를 교회를 비롯해서 직장, 지역 사회,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선하고 충성스런 일꾼으로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과부와 고아를 비롯하여,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노숙자, 북한을 비롯해 국제 난민들과 기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 나눔과 돌봄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눅 10:25-37).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촉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섬김을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숙이 시작된다.

111) Donald S. Whitney, *영적 훈련*, 159-167.



### 3. 사회와 문화: 일상적인 삶의 성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성장은 한 개인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화로 이어져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는 것으로 신앙성장은 사회와 문화적 성숙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출발하고, 삶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사회는 곧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12)</sup> 즉, 신앙은 사회와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롬 12:2). 이것을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인 성숙은 한 개인이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세속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결혼, 성, 가정, 노동과 여가, 돈, 이웃과의 관계, 예배 등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sup>113)</sup> 따라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삶이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문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형성된다.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성화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sup>114)</sup>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세속화를 소극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Richard 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교회가 문화에 대해 다섯 가지 유형의 태도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립유형(Christ against culture), 일치유형(Christ of culture), 그리고 중간유형이 그것인데, 긍정과 부정을 공유하는 중간적 입장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인정하는 초월론적 유형(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그리스도의 영역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유형(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리고 문화변혁론적 유형(Christ, the transformer

112) 임성빈 외,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1997), 4.

113) 강영만,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책임," 임성빈 외,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1997), 23.

114) Ibid., 24.

of culture)으로 다시 나누어진다.<sup>115)</sup> Niebuhr의 주장과 같이 각자의 문화와 사회 안에 있는 인간을 개선시키는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를 평가하며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현대 음악과 영상문화를 사탄의 것이라고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성숙시켜야 한다. 정치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뚜렷한 성숙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도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 속에 같이 빠져 있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신앙성장에 대한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 4. 자연: 자연과의 관계 회복과 청지기적 사명과 책임

자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이며 우리의 이웃이다. 여기서 창조는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돌보고 가꾸는 것이다(창 1:27-28).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한 ‘봉사자’인 것이다.<sup>116)</sup>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자연과의 관계 또한 파괴되었고 창조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인간의 교만,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한 물질주의,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주의로 생태계파괴,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였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산성비, 오존층파괴, 물 부족, 토양오염, 기근, 식량부족, 쓰레기, 방사능 오염 등과 같은 현상은 이제 인간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본래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과 책임을 깨닫고 자연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보호는 환경단체의 몫이 아니라 신앙인의 몫이며 인간 전체의 책임이다.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부추겨진 물질만능주의, 개인이나 기업의 무절제한

115)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5-60.

116)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12-14.

이익추구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양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과 책임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성장의 요소가 된다.

영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게 하여 삶의 영역에서 대인관계와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요일 4:20-21; 요일 5:3). 신앙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사랑과 섬김, 나눔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야 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성장은 영성과 참된 인간성과 삶의 영역이 골고루 성장하는 전인적 성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관계적 성화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적 성화인 것이다.

#### 제 4 절 신앙훈련의 필요성

##### 1. 신앙훈련의 목회적 필요성

목회는 교인들에게 전인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으로, 교역(敎役: ministry)과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이라고 할 수 있다. Thomas Oden은 교역이란 교회에 '봉사(디아코니아)'하는 일로써 목사가 실행하는 설교, 성례전, 교회의 관리 및 운영, 평신도 지도, 상담, 훈련 및 교육 등의 모든 행위와 사역을 지칭한다고 말한다.<sup>117)</sup> Howard Clinebell은 목회가 이러한 교역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주기를 따라 베풀어지는 상호 치유와 성장을 전제로 한 넓고 포괄적인 목회적 돌봄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18)</sup> 각 시대와 교파들의 전통에 따라 목회의 개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영혼의 성장과 발달, 치유, 구원을 중요시하는 "영혼의 돌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계승되어왔다.<sup>119)</sup> 여기서 말하는 영혼

117) 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5.

118)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47.

119) 이주영, 현대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4.

은 인간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과 영이 하나가 된 인격적인 전인(全人)으로서의 영혼이다. 따라서 목회는 '교회 안의 여러 사역(봉사)들을 통해 교인들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인적 돌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돌봄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공동체 안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롬 8:29).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도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총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엡4:11-13). 따라서 목회자는 신앙훈련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 2. 신앙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신앙은 훈련을 통하여 성장한다. 신앙훈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은혜를 받고 경건함에서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 훈련을 주셨다. Richard Foster는 신앙 훈련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단지 무엇인가 달성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20)</sup> 따라서 신앙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롬 5:17).

신앙성장을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의 전인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신앙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신앙 성장은 이루어진다. 신앙훈련은 인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고후 7:1). 훈련이란 서툴고 잘 안 되는 일을 능숙하게 되기까지 반복해서

120)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4.

연습하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쌓아야 하듯이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훈련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말씀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함과(벧전 1:15-16)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딤후 4:7) 명령하신다.

신앙성장은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것이다. 제자(disciple)는 그 단어의 어원이 의미 하듯이 “훈련을 받으며 따르는 자(disciplined follower)”이다.<sup>121)</sup>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단순히 그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따르는 자인 것이다.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한다(빌 2:12). 헬리어의 ‘완전함(τέλειος)’이라는 말은 ‘목적(τέλος)’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는 성숙이란 흠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완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이루어 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빌 3:12-14). 구원론에서 구원의 일차적 목적이 성화이기에(엡 1:4-6) 구원은 일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것이다.

신앙훈련은 ‘보통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22)</sup> 신앙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상 활동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Dallas Willard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훈련을 중심으로 짜여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3)</sup>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고(롬 8:13),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골 3:9-10) 비결이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 친구들 사이의 관계, 교인과 이웃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의 공동체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신앙훈련은 내면과 외면을 포괄하는 전인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21) 오성춘, *영성과 목회*, 17.

122)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16.

123)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486.

행하도록 훈련하는 일은 신앙이 '전인격'을 다해 믿도록 해준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영성 훈련의 대표자인 Richard Foster는 영적 훈련을 내적훈련(묵상, 기도, 금식, 학습), 외적훈련(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 단체훈련(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음, 기뻐하는 훈련)으로 나누었고,<sup>124)</sup> Dallas Willard는 절제의 훈련(독거,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입이 무거움, 희생)과 참여훈련(성경탐구, 예배, 찬양, 봉사, 기도, 친교, 죄 고백, 복종)으로 구분하였다.<sup>125)</sup> 이들 훈련의 공통점은 내면의 참된 변화를 통해 외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적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을 좇아 행하기로 작정하는 신앙훈련을 신실하게 쌓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칭의와 은혜를 강조하면서 신앙의 실천적인 행위를 잃어버린 오늘의 개신교회는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순종과 실천의 신앙 훈련을 통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어떠한 영역들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신앙성장은 회심과 더불어 시작되며 그 과정은 일평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 신앙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 영성(구원, 성령, 말씀, 기도, 예배)과 인성(성품, 자아상, 자기부인, 순종, 섬김, 사랑, 윤리와 도덕성)과 생활(가족, 이웃, 사회와 문화, 자연)에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앙성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삶에서의 성장까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성장이다. 자아중심성에서 분리되어 타자중심이 되는 이 신앙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인간의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신앙성장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전인적 신앙성장을 위한 성경적 효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4) Richard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29-283.

125) Dallas Willard, *영성 훈련*, 182.

## 제 4 장

### 성경적 효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내용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신앙성장이 무엇이며 어떠한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전인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성경적 효’ 훈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성경적 효가 무엇이며, 신앙성장과 성경적 효와의 연관성, 그리고 ‘성경적 효’가 주장하고 있는 7대 사명을 통해 신앙성장의 세 영역(영성, 인성, 생활)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제 1 절 성경적 효에 대한 이해

오늘날 한국사회와 교회에서 ‘효’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유교적 이념이라고 생각하며 형식적이고 봉건주의적인 관습 정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효는 성경적이며, 한국 고유의 전통윤리이고, 모든 인간의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 1. 성경적 효 운동의 시작

‘성경적 효(孝) 운동’은 순복음인천교회에서 1995년부터 시작한 신앙실천 운동이다.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화, 즉 성경 말씀대로 사는 알곡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던 최성규 목사는 1995년 한국사회에 대단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통해 효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완공한 지 5년밖에 안된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

너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효를 깨닫는 촉매제가 되었다. 매몰된 현장에서 죽음과 싸워 이겨 구출된 세 청년이 있었다(11일, 13일, 17일 만에).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모두 불신자였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효자라는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효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효에 대한 진리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sup>126)</sup>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 5 계명을 통해서 효를 명령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부모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마15:4-6; 엡6:1-3; 골3:20; 딤후5:4).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받을 수 있지만, 축복은 부모공경을 잘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신계명만 지키고, 대인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인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부모공경(효)을 지킴으로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요15:8).

따라서 교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공경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과 실천에도 같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은혜를 너무 강조함으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포스트모던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영원한 진리에 대한 부정과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 이기적 자기중심주의, 가정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 회복(화합)과 사랑실천,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성경적 효 운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효의 실천은 행함 있는 믿음이며 신앙

126) 최성규, *효신학* 제론, 15-16.



과 삶이 일치하는 말씀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 운동인 것이다(마22:37-40).

순복음인천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성경적 효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환경사랑, 이웃사랑·인류봉사라는 7대 사명으로 구체화하여 교인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하여왔고,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성산청소년육성재단, 효행봉사단 등을 설립하여 교육과 사회계몽, 지도자양성 등을 하고 있다.<sup>127)</sup>

## 2. '성경적 효'의 성경적 근거와 의미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고등종교에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신 일반계시들일 뿐이다(롬1:19-20). 우리가 효를 온전히 알려면 효의 원조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효와 관련된 내용들과 의미를 살펴봄으로 '성경적 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성경적 효'의 성경적 근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활동, 약속과 성취, 옛 언약과 새 언약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 그 가운데 효(부모공경) 또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성경에는 효행에 관련된 교훈과 그 예들이 58개, 불효에 관한 교훈과 그 예들이 52개,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20개, 부모의 사랑과 자녀교육에 관하여 부모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17개, 효와 불효가 비교된 성구와 그 예들이 10개가량이 있다.<sup>128)</sup>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신14:1; 삼하7:14; 시68:5; 사63:16; 렘3:4; 말2:10; 마6:9; 마5:16; 요5:19; 갈4:6 등). 이는 하나님께서 초월적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 존재”이심을 증거 한다.<sup>129)</sup> 삼위일체의 조직신학적 설명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산출과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부는 인간 그리스도의 아

127) 순복음인천교회의 효운동과 사역들은 5장 참고.

128) 최성규, *효가 살아야* (서울: 성산서원, 1998), 189-261.

129) 박동화, *성서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45. 그라프-벨하우젠(Graf-Wellhausen)이론에 따르면 오경은 다양한 특색을 지닌 여러 문서의 집합체(J.E.D.P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E문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며, J문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이 인간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신인동성동형론(神人同性同形論)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버지가 되신다.<sup>130)</sup>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가 계시되며(요1:14-18: 6:46), 성부는 인류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요 3:16: 4:9: 롬 8:32: 갈1:4: 엡1:3-10).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상은 성부와 성자의 “아버지와 아들(父子)”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부자(父子)관계’는 인간의 효(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게 된다.

### (1) 구약 성경적 근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부모공경(효)을 명령하신다(출20:12). 하나님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출 19:4-6: cf. 신14:1에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표현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앙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다.<sup>131)</sup> 이것은 언약 가운데 주어진 계명과 율법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만민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첫머리에 십계명을 말씀하신다(출20:1-17). 십계명은 예배공동체요 선교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삶의 핵심규범인 것이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1-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5-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곧 인륜(人倫: 倫理)을 말하고 있다.<sup>132)</sup> 여기에 사용된 ‘공경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카베드(קָבַד)’는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잠3:9)과 부모님(출20:12: 신 5:16)뿐이다.<sup>133)</sup> 이는 부모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삼하7:14: 대상 17:13: 시68:5: 89:26: 사63:16: 64:8: 렘3:4,19: 말2:10).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의 아들이고(출4:22: 신14:1: 렘31:20),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신32:6: 렘 31:9). 이러한 ‘부자(父子) 관계’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시라는 것과(사43:1),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며(호11:1),

130) 김광식, *조직신학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08.

131) Arthur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125-126.

132) 최성규, *효신학 개론*, 90.

133) Ibid., 46.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당연히 경배 받아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34)</sup>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Karl Barth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강조한다.<sup>135)</sup> 부모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세워지는 것으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존경받기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존경과 복종과 감사를 드려야 하고, 최선의 봉사를 다하여야 한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안식일)을 서로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레19:3).<sup>136)</sup>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고, 부모세대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된다(신6:2f, 7).

## (2) 신약 성경적 근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효(부모공경)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막15:34; 마27:46)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로 호칭했다.<sup>137)</sup> 이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부자(父子) 관계임을 나타내며(마7:21; 10:31f; 11:27; 막13:32; 요5:19-23), 그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역사적 예수’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된다.<sup>138)</sup>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효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빌2:6-7),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요7:16-17),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빌2:8). 예수님께서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드림으로 효를 실천하셨고(마13:55),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친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주도록 부탁하셨다(요19:26-27).

134) 최성규, *효신학 개론*, 85.

135)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Bd. III 4, 272. Ibid., 40.에서 재인용.

136) 최성규, *효신학 개론*, 90.

137) Joachim Jeremias, *신약성서의 중심 메시지*, 김경선 역 (서울: 은성, 1987), 26.

138) Joachim Jeremias, *신약신학*,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1), 70, 102-111.

에베소서 6장 1-3절의 '공경'(τιμα)과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효'(εὐσεβῆν)는 효(부모공경)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들이다. τιμα는 τιμαω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써 '존경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sup>139)</sup> 이 단어는 하나님(요 5:23), 부모(막 7:10; 엡 6:2), 참 과부(딤후 5:3), 통치자(벧전 2:17) 등에 사용되었다. εὐσεβῆν이라는 단어는 '숭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σεβουμαι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고, 이것의 변형동사 εὐσεβεω는 '경건한 생활을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들에 대한 존경과 나라, 부모, 영웅, 위엄, 은인에 대한 존경의 뜻을 지닌다.<sup>140)</sup> 즉 εὐσεβῆν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용되는 말로써 존경, 경건, 예배의 뜻이 담겨 있다. 이는 생활방식을 나타내며(딤후 4:7; 6:3,11; 딤후 1:1),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존경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포괄한다.<sup>141)</sup>

이상의 내용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아버지"되심을 명백히 드러내며, "부자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또한 구약성경의 공경(כבד)과 신약의 부모공경(τιμα)과 효(εὐσεβῆν)는 일관된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사람(부모, 어른, 스승, 지도자 등)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예배, 경건, 존경'의 뜻을 지닌 εὐσεβῆν이 '효'라는 말로 표현되었다는 것(딤후 5:4)은 효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효사상은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주제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

#### 나. 성경적 효의 의미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행(百行)의 근본(根本)으로 인격 형성에 근간이 되며 인류보편의 가치로써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가 유교의 산물이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실천하여 왔던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윤리이고 인간본연의 도리이다. 더욱이 효는 공자(BC 552-BC 479)가 태어나기 약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139)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 *신약성서 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1314-1316.

140) Ibid., 1121-1126.

141) 최성규, *효신학* 개론, 113.

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는 하나님의 절대명령은 하나님(대신계명)과 인간(대인계명)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효의 원조는 성경인 것이다.

전통적인 효사상이 부모를 공경하고, 인간관계의 규범이며, 더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라면, 성경적 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의 모형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효의 본질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높은 효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이를 최고 최대의 효라고 할 수 있다.<sup>142)</sup>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자녀로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효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마 22:37-40)은 성경적 효의 핵심이 된다. 이 두 계명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7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이·청소년을 사랑하고, 부모·어른·스승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웃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sup>143)</sup> 이러한 7가지를 사명들로 제시하는 성경적 효 운동은 영성, 인격, 가족, 이웃, 사회, 나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한국적’ 말씀실천 운동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성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 효 운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명령이며, 인류 보편적이고, 한국 전통적 윤리인 ‘효’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인격과 정신을 고양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 하나님 섬김과 인류 사랑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전인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 2 절 성경적 효의 현대적 필요성과 신앙성장과의 연관성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 신앙성장은 성경적 효 실천운동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 특히 가치관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에 꼭 필요한 시대정신

142)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52.

143) 최성규, *효신학 개론*, 20-21.

이요 신앙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1. 성경적 효의 현대적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교파와 교단, 진보와 보수 간의 분열과 분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들이 물질적이고 주관적인 것들로 대체되고 타락되어가고 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부모형제도, 법과 양심도 소용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방법은 어떠하던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정부패, 성적 방종, 이혼, 낙태, 무자녀,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동성애 등의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삶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며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만 되지 말고, 교회 밖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144)</sup>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기도, 성경공부를 하듯이, 사람을 사랑하여 봉사, 나눔, 공경, 화합을 실천해야 한다. 신앙은 삶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효’의 실천이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성경에서 찾아 실생활에서 회복시켜야 한다.<sup>145)</sup>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효는 시대를 거쳐 내려오는 한국 교유의 정신문화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써 하나님과 세상과의 다리 역할을 한다. 역사학자 A. Toynbee는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sup>146)</sup> 유교적 효의 폐단-형식화, 우상숭배, 개인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무시

144) 최성규, *효신학 개론*, 15.

145) Ibid., 29.

146) 손인수, *한국인의 효도문화* (서울: 문음사, 1997), 488.

되고 부모의 권위만을 강조-을 제한다면, 효는 인류에게 있는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고르반(하나님께 드림)”이라 하여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막7:10-13; 마15:4-6). 효는 자신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시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켜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발로로써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는 인간관계와 윤리와 도덕의 시작이 된다.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낸다.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도 공경하고 사랑하는 교인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2. 성경적 효와 신앙성장과의 연관성

성경적 효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 신앙성장의 목표는 동일하다. 신앙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회심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 영성과 인성과 생활에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실천운동(신앙의 생활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삶에서 효를 실천함으로 화해를 추구하는 영성, 인성, 생활의 변화운동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실천이 더욱 요구된다. 그동안 교회는 효, 즉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부모공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하늘 아버지와 지상 부모에게 복종하는 효 실천의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은 효를 통하여 연결되고 실천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신앙이 전수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의 부모공경이 하

나눔 섬김으로, 이웃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신앙성장이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 효는 전인적인 화합(Harmony)이다. 부모공경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타자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sup>147)</sup>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화합, 자신과의 화합,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 나라 간의 화합, 자연과의 화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합과 일치(엡2:13-19)하는 것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sup>148)</sup> 신앙성장은 우리 삶에 전인적인 회복(화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성경적 효자”들이 필요하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효자’가 되어야 한다. 효가 살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른 인격과 윤리를 교양하며, 가족이 행복해지고, 학교 교육이 바르게 되며,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복음화와 살림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 제 3 절 성경적 효 훈련의 내용

성경적 효의 신학적 근거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를 인간(부모, 형제, 이웃, 나라)과 자연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sup>149)</sup> 성경적 효란 인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전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성경적 효는 다음과 같은 7대 사명을 교육하고 훈련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 1.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다(눅 3:38; 고전8:6). 그리

147) 최성규, *효신학 개론* (개정판; 서울: 성산서원, 2007), 25.

148) Ibid.

149) 최성규, *효신학 개론*, 42.



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신 14:1; 삼하7:14; 시 68:5; 사63:16; 렘3:4; 말2:10; 마6:9; 마5:16; 요5:19; 갈4:6 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 효의 뿌리요 완성이다. Karl Barth는 하나님을 참다운, 그리고 최초의 아버지라고 말한다.<sup>150)</sup> 하나님은 아버지의 참된 본질이요 모상(模像)이 되신다.<sup>151)</sup> 따라서 인간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부자(父子)관계”에서 시작된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갈3:26)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요1:12).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갈4:6)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구원의 완성이다(출23:25-26; 눅19:10).

둘째, 하나님 섬김의 기본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계 4:11; 5:12-13),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sup>152)</sup>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사 43:7, 골 1:16). 따라서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될 때, 다른 모든 삶의 질서가 바로잡힌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요4:23-24).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와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마6:33; 빌:19).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이 실현되고 그로 인하여 수반되는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눅 4:43). 하나님은 우리에게

150)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Bd. III, 4, S. 274.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44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쪽에서 본다면 아버지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있으며(配天),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자연적인 대표자가 된다.

151) 최성규, *효신학 개론*, 44.

152) Donald S. Whitney, *영적 훈련*, 116.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20:3), “우상을 만들지 말고 ...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20:4-5)고 명령하신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대의 우상은 mammon(돈)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6:10). 내가 가진 유한한 내재적 자원들과 물질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마7:11).

## 2. 부모·어른·스승공경

성경은 부모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다.<sup>153)</sup> 십계명에서 부모공경의 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부모공경의 계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sup>154)</sup>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모성(Fatherhood and Motherhood)을 발견하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 네 조상과 스승의 유업을 기리고 그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네 주위의 어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바르게 예우하라.

첫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가정, 특별히 부모가 자리하고 있다. 십계명의 제 5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고 말한다.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적한다(엡 6:2). 이 약속은 인간 영혼의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명이 길고 건강한 실존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감사할 수 없다.<sup>155)</sup> 부모님은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153) 성경에서 ‘**אָב**’의 사용(출20:12; 신5:16 이상 부모공경; 잠3:9 하나님 공경).

154) 최성규, *효신학 개론*, 47.

155)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450.

다. 생명의 전수자요, 신앙의 계승자요,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부모를 거부하며 분노를 품는 것은 곧 자신을 거부하며 분노를 품는 것이다. 자신을 거부한 결과는 질병과 파멸, 그리고 영적, 신체적 죽음이다.<sup>156)</sup>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딤후5:4).

부모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잠23:22).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며,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여 마음을 나누고(잠23:26), 기쁘시게 해드림(잠23:24)으로 효를 실천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욘12:12), 그 가르침은 우리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잠6:20-23). 또한 가족과 교육과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할 때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매우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성경은 “너는 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신다(레19:32). 쉰 머리 앞에 일서 선다는 것은 어른은 있는 그대로 존경하는 것이고, 어른들의 삶의 지혜와 경륜을 존경하는 것이며, 어른들의 약함도 존경하는 것이다. 어른과 젊은이 함께 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이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sup>157)</sup> 따라서 한국교회와 사회는 노인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승을 공경해야 한다. 이 시대에는 ‘스승’이 필요하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라 지혜와 사람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신다. (고전11:1). 좋은 스승은 본을 보이고 인격을 전수한다. 따라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진다. 또한 우리는

156)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 자살증가율 세계 1위, 이혼율 아시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홀몸노인·노인빈곤·노인학대 급증 등 효와 가족관계의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만연하다.

157)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3년 10월.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스승을 좇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좋은 제자이다(마16:24). 성경에 나오는 차세대 지도자들(여호수아, 엘리사, 12제자, 디모데 등)은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민11:28; 왕상19:21). 성경은 스승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요13:16-17). 스승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다.

### 3. 어린이·청소년 사랑

부모공경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효는 효가 아니다. 성경적 효는 쌍방적이다.윗 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어린이<sup>158)</sup>와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생명이요, 인격체이다. 가정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의 전반에 걸쳐 도외시되거나 어른들로 인해 소외되며, 사회적 약자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로는 너무 과잉보호되어 그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기도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눅9:48).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다(시127:3).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τιμάω)하며”라고 하는 말씀에서 “뭇 사람”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하는 말씀(엡6:4)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의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진다(엡5:21).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자녀를 부모가 강압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반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내면으로 쌓여진 분노는 언젠가 밖으로 폭발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가출, 학원폭력, 청소년 성범죄, 자살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Bateson, Satir, Bowen, Minuchin 등의 많은 가족치료자들은 문제 아이가 문제 가정(부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

158) ‘어린이’라는 말은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리신 분, 어리신 이”란 이름을 줄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랑받고 보호받은 만큼 꿈을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의 어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 신앙, 부모공경, 애국심, 인류애를 가르쳐야 한다.

#### 4. 가족사랑

가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다(창2:22).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남녀(부모)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양자로 입양된 자녀로 이루어진다.<sup>159)</sup>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행해진 기독교의 '가정신학'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한다.<sup>160)</sup> 그 결과 서구의 가족문화에서는 효의 항목이 거의 삭제되고 말았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와 함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자관계를 중시한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성경적 효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며 사회를 살리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키워가야 한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엡5:22-33). 그리고 사랑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의 기술과 문제해결의 기술, 아버지/어머니학교, 부부세미나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가족은 서로간의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두 번째 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란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sup>161)</sup> 오늘날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질서가 사라져간다. 구조주의 가족치료자 Minuchin은 가족 안에서 누가 어른이고 아이인지, 아버지·어머니로서, 남편·아내로서, 자녀로서의 건강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sup>162)</sup>

세 번째로 성경적 가족관은 남녀가 평등하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명령과 복을 주셨다(창1:28).<sup>163)</sup> 부부는

159) 이광규, *가족과 친족* (서울: 일조각, 1993), 20-21.

160) Jack & Judith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16.

161)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39.

162) Michael P. Nichols & Richard C. Schwartz, *가족치료*, 김영애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292.

한 몸이며(창2:24; 엡5:31), 서로를 상호 보충하는 동등한 관계이다(딤후는 배필, 창2:18). 새 창조의 복음(갈3:28)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원칙이 된다.<sup>164)</sup> 따라서 부부는 동등하며 또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엡5:21).

네 번째로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여러 이유로 떨어져 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부부, 형제, 부모 자녀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창2:24; 시133:1; 말4:6).

마지막으로 가족은 교육의 장소이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심지어 교회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얻게 된다. 어린 시절의 올바른 교육이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치료학자 Bowen은 "가족구성원들의 자아가 비교적 잘 분화되어 있고, 불안 수준이 낮고, 부모가 자신들의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최상의 가족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sup>165)</sup> 이것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는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도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sup>166)</sup>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존되고 이어지는 곳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은 천국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한다(딤후전5:8).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이 바로 설 때, 개인의 신앙도, 사회질서도, 국가경제도, 인류 평화도 이루어 질 수 있다.

## 5. 나라사랑

모든 사람은 나라의 혜택과 보호 없이 성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는

163) 김세운,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14.

164) Ibid., 23.

165) Michael P. Nichols & Richard C. Schwartz, *가족치료*, 179.

166) Ibid.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자기 조국 나라이다. 이 두 나라를 먼저 사랑함이 효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행17:26).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고(눅4:43), 유대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여 우셨다(눅19:41-44). 우리도 예수님처럼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애국은 신앙의 본질이고, 사람됨의 기본이며, 개인, 가족, 학교, 기업, 교회, 정치, 문화 모두가 지녀야 할 본질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이 희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작은 힘이라고 동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이 나라를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출32:31-32).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시22:28).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바울 등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나라를 살린 애국자들이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탐심이 없었다. 성실, 정직, 겸손, 용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행13:22).

셋째, 사회·문화적 성화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세속화를 소극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회와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sup>167)</sup>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를 평가하며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현대 음악과 영상문화를 사탄의 것이라고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성숙시켜야 한다. 정치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문화적 책임이다.

넷째로 최고의 나라사랑은 민족을 복음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시33:12). 전도를 교회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167)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9.

나라의 확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며,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딤후 2:1-2).

## 6. 자연사랑·환경보호

자연사랑·환경보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sup>168)</sup>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에덴동산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창2:15-17). 자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이다(창1:31).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다스리다’(מָנָה 라다)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하여 ‘돌본다’는 것을 뜻한다.<sup>169)</sup> 하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연을 마구 훼손하였고, 그 결과로 환경은 파괴되고 생태계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인간은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의 ‘봉사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sup>170)</sup>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창조하시며 돌보신다(시104:30; 마6:30). 자연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시148:3-5).

둘째,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며(창1:28), 삶의 터전이고, 기쁨의 동산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다(창2:8; 3:8). 자연이 주는 더 큰 혜택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롬1:20).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자연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이 재앙이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창3:17; 6:1-12).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 지진, 사막화, 엘니뇨 현상 등을 겪고 있다. 자연을 살리지 못

168) 최성규, *효신학 개론*, 52.

169) 김근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01.

170)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14.



한다면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에서 지난 5-6년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현재의 발전 시나리오(A1F1)를 유지할 경우 2100년이 되면 20세기 말에 비해 기온은 최고 6.4도, 해수면은 최고 59cm 상승할 전망이다<sup>171)</sup> 또한 지구 평균온도가 3.5도 상승하면 생물종의 40-70퍼센트가 멸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1993년 이후 지구 평균해수면이 연간 3.1mm씩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sup>172)</sup>

넷째로, 따라서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제와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참된 영성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극대화하여 살려고 힘쓰는 것이다.<sup>173)</sup> 자연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요 인류문명의 근원이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으신 창조물을 사랑하고 책임 있게 잘 관리해야 한다. 자연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함께 지키는 것이 효이다.

## 7. 이웃사랑 인류봉사

성경은 이웃과 인류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다(말2:10; 형17:26).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사랑의 이중계명은 그리스도인 삶의 대 전제요 기초가 된다. 이 계명의 근본정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봉사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한 봉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막10:45). 그리고 우리도 가서 똑같이 섬기기를 원하신다(요13:15).

이웃과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첫째, 내가 누구의 이웃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10:25-37)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구체적인 봉사의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고통

171) “2100년 해수면 최대 59cm 상승,” 중앙일보, 2007년 11월 19일자.

172) Ibid.

173) 권택조, 영성발달, 111.

당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노숙자,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와 북한 주민, 기근으로 죽어가는 기아,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인류 등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둘째, 봉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진정한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며, 그 삶은 봉사와 섬김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섬김과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요13:14-15; 갈5:13). 누구를 만나든 주께 하듯 하고(골3:23), 자발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섬겨야 한다(마6:3-4).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섬겨야 한다.

셋째, 봉사는 나눔의 실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명령한다(눅6:38). 우리가 주어야 하는 이유는 "거저 받았"기 때문이다(마10:8).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 기도를 나누어야 한다(엡6:18). 기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고, 이웃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리고 성경말씀(복음)을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자유이며, 산 소망이자, 능력이다.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것(선교)은 이웃과 인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또한 물질을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펴서 넉넉히 나눠주라고 말씀하신다(신15:7-8). 그리고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나누어야 한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롬12:15).

효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야 한다.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은 교회 안과 밖, 지역, 민족이나 나라의 구분이 없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자매이기에(행17:26; 사64:8) 우리는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 더불어 살아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섬김과 나눔이 있기 때문이다. 이웃과 인류를 향한 구제, 섬김, 나눔, 복지가 성경적인 효이다. 이러한 성경적 효를 실천할 때, 우리의 신

양은 성장하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과 교회와 사회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 제 5 장

###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와 방법

지금까지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연구를 통해 신앙성장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렸고, 현대인의 신앙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영성, 인성,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인적 신앙성장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성경적 효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장에서는 성경적 효 훈련을 어떠한 원리와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실례로 지난 12년간 순복음인천교회의 성경적 효 훈련과 실천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이 성장은 영적, 인격적, 삶의 변화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성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앙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사고의 변화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과 생활 가운데 체득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은 신앙의 기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더 많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적 성장의 원리

한 인간이 태어나면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신체, 정신 그리고 정서가 성장하듯이

신앙의 성장도 하나의 유기체가 가지는 과정과 단계를 밟으면서 발달한다. 신앙성장은 회심과 더불어 시작되어 일평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James W. Fowler는 신앙발달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Fowler는 신학적으로 H. Richard Niebuhr와 Paul Tillich의 영향을 받았고, 심리학의 Jean Piaget의 인지발달, Lawrence Kohlberg의 도덕적 발달(이상 구조발달이론), 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등의 인간발달이론들을 기초로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하였다.<sup>174)</sup> Fowler는 0단계 미분화된 신앙(Infancy and Undifferentiated Faith; 영아), 1단계 직관적-투사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 유년초기), 2단계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 학령기), 3단계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 사춘기), 4단계 개별적-반성적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 청장년기), 5단계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 중년기와 그 이상), 6단계 우주적 신앙(Universal Faith;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누고 각 단계의 특성과 발전적 계기를 설명한다.<sup>175)</sup> 마지막 6단계에 이르면 자기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본질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뜻)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성경적 효 훈련의 목표와 동일하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곧 영적 신생아와 같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를 건강하게 밟아야 하듯이 성경적 효 훈련은 단계적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 마침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성경적 효 훈련의 단계는 4단계로 신자되기, 제자되기, 사역자되기, 제자삼기로 구성된다.

174)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99. Piaget는 인간발달을 감각운동, 전조작 또는 직관적, 구체적 형식적 조작의 단계로 구분하고, Kohlberg는 인습이전의 수준으로 타율적 도덕과 도구적 교환, 인습적 수준으로 호혜적 상호인격적 관계와 사회적 체제와 양심, 그리고 인습 이후의 원리적 수준으로 사회적 계약, 개인적 권리, 보편적 윤리 등 구조적 단계로 구분한다. Erikson은 심리사회적 인간발달의 8단계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구분은 신뢰 대 불신의 단계(희망, 0-2세; 영아기),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의 단계(의지, 2-3세; 유아초기),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목적, 3-6세; 유아 후기),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능력, 7-12세; 아동기), 정체감 대 역할혼란의 단계(충성, 13-20세; 사춘기),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사랑, 21-35세; 청년기), 생산성 대 자아탐닉의 단계(돌봄, 35-60세; 장년기),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지혜, 60세 이상; 노년기)이다.

175) Ibid., 190.

## 2. 전인적(균형적) 성장의 원리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전도·선교 등의 양적 성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고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와 말씀실천·윤리·기독교적 가치관 등의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McGavran은 교회성장의 유형을 내적성장(질적성장), 평창성장(양적성장), 개척성장, 가교성장으로 구분하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같은 서로 다른 네 가지 방향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sup>176)</sup> 이제 한국교회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훈련들은 교인들의 수평이동과 기독교인의 감소현상에 대한 불신자 전도 중심의 전도훈련이 있어야 한다.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영성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부인, 순종, 섬김, 사랑, 윤리와 도덕성의 실천훈련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시급한 훈련이 바로 이러한 인격훈련이다. 이러한 인격의 성장은 자기증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생활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속화된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며, 자연을 보호할 때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성경적 효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훈련이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훈련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는 신앙의 생활화 훈련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효 훈련은 전인적 신앙성장 훈련이라 할 수 있다.

## 3. 평신도 사역의 원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해 나가신다.<sup>177)</sup>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사역과 신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도록 훈련하는 사역이다.<sup>178)</sup> 예수님

176) Donald McGavran, *교회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45.

177)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서울: 서로사랑, 2002), 169, 171.

178)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0. 와그너의 교회 성장의 핵심은 전도와 제자화와 사회책임이다.

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해야 한다(마9:35). 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 교회는 모든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는 또 다른 신자와 제자와 사역자를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에는 계급이 없다. 직임에 따라 존경과 섬김이 있다.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진다.

루터에 의해 재확인된 만인제사장주의(벧전2:9-10)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대신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는 더 이상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예배와 설교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요구한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함께 리더들의 사역과 삶을 보여줄 때 가능해진다. 성경적 효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새 백성(교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하도록 돕는 것이다.

#### 4. 공동체적 훈련의 원리

성경적 효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Ralph Neighbour는 공동체는 소그룹들을 통해서만 가장 온전한 형태로 형성되며, 서로에 대한 헌신과 소속감이 공동체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sup>179)</sup>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성장시켜야 한다. 성도들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인격적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며, 이로써 공동의 목표와 서로의 발전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Neighbour는 셀그룹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확대가족(오이코스, oikos)으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한다.<sup>180)</sup> 성경에는 많은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

179)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NCD, 2000), 149.

180) Ibid., 150.

위일체의 공동체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1:26)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구약 전반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다가오신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만드시고 제자를 삼으신다. 예수님은 12제자와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이심으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졌다.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 “가르침을 위한 시간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가치 체계”가 삶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sup>181)</sup> 이점이 성경적 효 훈련의 공동체 원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모래알과 같이 흩어진 대형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체험하고 있는 벽돌과 같은 소그룹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은 관계성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은 전인적인 신앙성장을 체험하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적 효 훈련은 가정, 구역, 사역팀 등의 소그룹으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며, 모든 관계에서 화목(Harmony)을 이루고, 사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제 2 절 성경적 효 훈련의 방법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를 기초로 성경적 효 훈련은 신자되기, 제자되기, 사역자되기, 제자삼기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은 각 단계별 훈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181)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161.



### 1. 신자 되기: 새가족 교육(10주 과정)

이 단계는 불신자가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이다. 구역/셀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1:12).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신앙성장의 시작이요, 성경적인 효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전도가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새가족 교육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 교육 강사와 새가족을 일대일로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구성된 편안하고 친밀한 소그룹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은 새가족이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기독교의 기본진리와 교회의 비전과 사역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 짧은 시일 안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sup>182)</sup> 새가족 교육은 사랑과 관심이다. 새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헌신(골1:29)은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새가족을 데려오게 만들어 지속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한다.

<표 1> 새가족 교육의 내용과 일정

일정	강의주제	사역내용
1주	구원의 확신	새가족 등록카드 작성, 감사와 섬김이 소개, 결신기도
2주	좋은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목사 환영편지와 새가족반 안내편지 발송, 전화심방
3주	예배	전화심방: 안부와 필요사항을 체크
4주	성경	전화심방: 안부와 필요사항을 체크
5주	기도	전화심방: 안부와 필요사항을 체크
6주	성령충만	주말수양회 안내와 참석 다짐
7주	효와 축복	주말수양회: 식사, 오락, 성찬 준비
8주	성경적 세계관	개인면담과 구역/은사배치 점검
9주	교회의 비전과 사역	교회소개 비디오, 사역소개, 수료식 안내와 참석 다짐
10주	수료식	축하만찬, 교인서약 및 등록, 효비전훈련학교 지원서작성

182) Nicky Gumbel, *알파 시작하기*,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97-99.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가족 교육(10주)을 통하여 새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충만, 성경, 기도, 예배, 효와 축복, 교회의 비전과 사역, 성경적 세계관 등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교회에 대해 배우게 된다. 7주차에는 수양관이나 교외로 나가 주말수양회를 실시하여 함께 여행을 하고, 식사하고, 오락 시간을 즐기고, 성령을 체험하며, 기도해주고, 성찬을 받으면서 신앙공동체로서의 우정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한다. 수료식에서는 축하만찬과 함께 교인서약과 교인등록,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성장을 위해 효비전 훈련학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교육은 환영, 다과와 교제(10분), 찬양(10분), 강의(15분), 소그룹 토의(20분), 기도와 마무리(5분)의 순서와 형태로 진행된다.

## 2. 제자 되기: 효비전 훈련학교(12주 과정)

효비전 훈련학교는 성경적 효 훈련의 가장 핵심이 되는 훈련이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령충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경적 효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옛 습관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훈련은 지속적인 신앙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전인적인 훈련과정이다. 일 년에 3회 실시하고, 전체 12주 과정의 이 훈련은 두 부분을 나뉘는데, 먼저 2박 3일간의 효비전 수련회와 이어지는 11주간의 교육과 실천훈련으로 구성된다. 지원자들은 12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모임을 갖고 평신도 리더와 사역자들이 이들을 섬긴다.

효비전 수련회(표 2)는 수양관에서 강의와 소그룹 토의, 특별 의식, 성령집회, 공동체 훈련과 실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 분명한 목적과 사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냉랭한 신앙에 머물면서 세상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 열심과 침체가 반복되는 신앙,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등 신앙과 생활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을 다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하고 은혜의 물고가 터지게 함으로 영혼과 삶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눅4:18-19). 이러한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된다. 2박 3일의 집중 훈련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표 2> 효비전 수련회의 내용과 일정

일 정	첫째날(금요일)	둘째날(토요일)	셋째날(주일)
6:00		찬양, 말씀과의 만남	찬양, 자연과 만남
7:00		아침식사	아침식사
8:00		강의2 성경적 효 7대 사명(1)	은혜나눔과 중보기도
9:00		사랑의 편지쓰기	결단의 시간 및 파송예배
10:00		강의3 성경적 효 7대 사명(2)	교회로 이동 가족환영, 꽃 준비
11:00		조별 그림그리기	
12:00		점심식사	주일예배참석, 간증
1:00		강의4 견고한 진	
2:00		소그룹별 중보기도	귀가
3:00		강의5 십자가의 삶	
4:00	수양관 도착 및 환영	회개와 축복예식	
5:00	저녁식사	저녁식사	
6:00	개회예배	조별 역할극 발표	
7:00	오리엔테이션		
8:00	강의1 하나님나라의 비전	성령치유집회	
9:00	성령충만집회		
10:00		세족식 및 성찬식	
11:00	취침, 침묵선포	취침	

나머지 11주의 7주 동안에는(표 3) 교회에서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 찬양(10분), 성경적 효의 7대 사명(하나님 아버지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에 대한 강의(40분)를 듣고, 소그룹별로 모여서 간식과 교제(15분), 소그룹 토의(40분)를 하고, 전체 기도회(15분)와 생활 실천숙제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의는 담임목사나 효비전 학교 담당목사 또는 훈련된 평신도 강사가 하고, 토론은 소그룹 리더의 인도로 하게 된다. 그리고 토론에서 나온 실천사항들 중에서 각자 몇 가지씩 선정하여 한 주간동안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숙제로 내준다. 이 과정은 지식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성경적 가치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전인적인 신앙성장에 대한 도전과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눅16:10),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는 것이다(마6:33). 10주차에는 은사에 대한 강의와 은사점검을 함으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11주에는 자신의 은사대로 교회 사역팀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느낀 점을 보고서로 제출 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수료식을 갖고 효사역 훈련학교 지원서 작성과 함께 각 사역팀으로 파송하게 된다.

<표 3> 효비전 훈련학교의 내용과 일정

일 정	강의주제	생활실천
2주	하나님 나라와 성경적 효	효신학개론 읽기
3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예배드리기, 매일 성경읽기/기도하기, 십일조 드리기
4주	부모·어른·스승 공경	부모님께 안부전화/용돈 드리기, 홀몸노인 결연/봉사
5주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자녀와 30분 이상 대화하기/놀아주기, 기도해주기
6주	가족사랑	하루 1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기, 가정예배드리기
7주	나라사랑	나라 위해 기도하기, 성실히 일하기, 성경적문화관 갖기
8주	자연사랑 환경보호	일회용품/물·전기 절약, 대중교통이용하기
9주	이웃사랑 인류봉사	효마을봉사단에 참여봉사하기, 전도하기
10주	은사확인 Test	나의 은사발견, 사역팀 선정
11주	교회의 비전과 사역	사역팀 현장체험과 느낀점 보고서 제출
12주	성경적 효사 파송 및 수료식	축하만찬, 효비전 서약, 효사역훈련학교 지원서작성

### 3. 사역자 되기: 효사역 훈련학교(12주 과정)

효비전 훈련학교(표 4)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성경적 효의 7대 사명에 따른 사

역들을 개발하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림이 세상 가운데 확산되는 하나님의 뜻(말씀)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효사역 훈련학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구역장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 년에 3회 실시하고, 12주 과정의 이 훈련은 마찬가지로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1박2일의 효사역 수련회를 가진 후에 예비 사역자와 예비 구역장을 구분하여 11주의 강의와 소그룹 토론, 실습을 하게 된다.

1박 2일의 효사역 수련회는 전체 지원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게 하며,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라는 동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과 헌신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한다. 강의는 담임목사나 효사역 훈련학교 담당목사 또는 평신도 강사가 하고 각 사역팀 리더들과 구역장들이 소그룹 리더로 섬긴다. 그리고 11주 동안에는 각 사역팀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사역자로서의 태도와 사역에 필요한 사역기술이나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해 봄으로 전문적인 사역자들로 성장하고 봉사하게 된다. 또한 예비 구역장들도 소그룹으로 모여 구역장으로서의 태도와 소그룹 인도법, 대화법 등을 배우고 구역을 인도해 봄으로 구역장의 자질을 훈련하게 된다. 진행 방법은 효비전 훈련학교와 거의 동일하고 12주 과정이 마치면 각 사역팀별로 수료식을 갖는다. 효사역 훈련학교를 수료한 예비 구역장은 기존 구역에 속해 있다가 자신이 전도한 구역원과 함께 새로운 구역모임을 개척하게 된다.

<표 4> 효사역 훈련학교의 내용과 일정

일정	강의주제	나눔/실습
1주	효사역 수련회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과 헌신
2주	교회의 목적과 사역	교회의 5대 목적:예배, 전도, 교제, 훈련, 사역
3주	삶의 우선순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
4주	사역자의 태도	예수님의 성품: 순종, 섬김, 사랑, 윤리
5주~ 11주	사역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역팀별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하고 실습</li> <li>• 예비 구역장들을 위한 소그룹 인도법, 전도법 등을 교육훈련하고 실습</li> </ul>
12주	수료식	효사역 서약, 사역자로 봉사

#### 4. 제자삼기: 효지도자 훈련학교(12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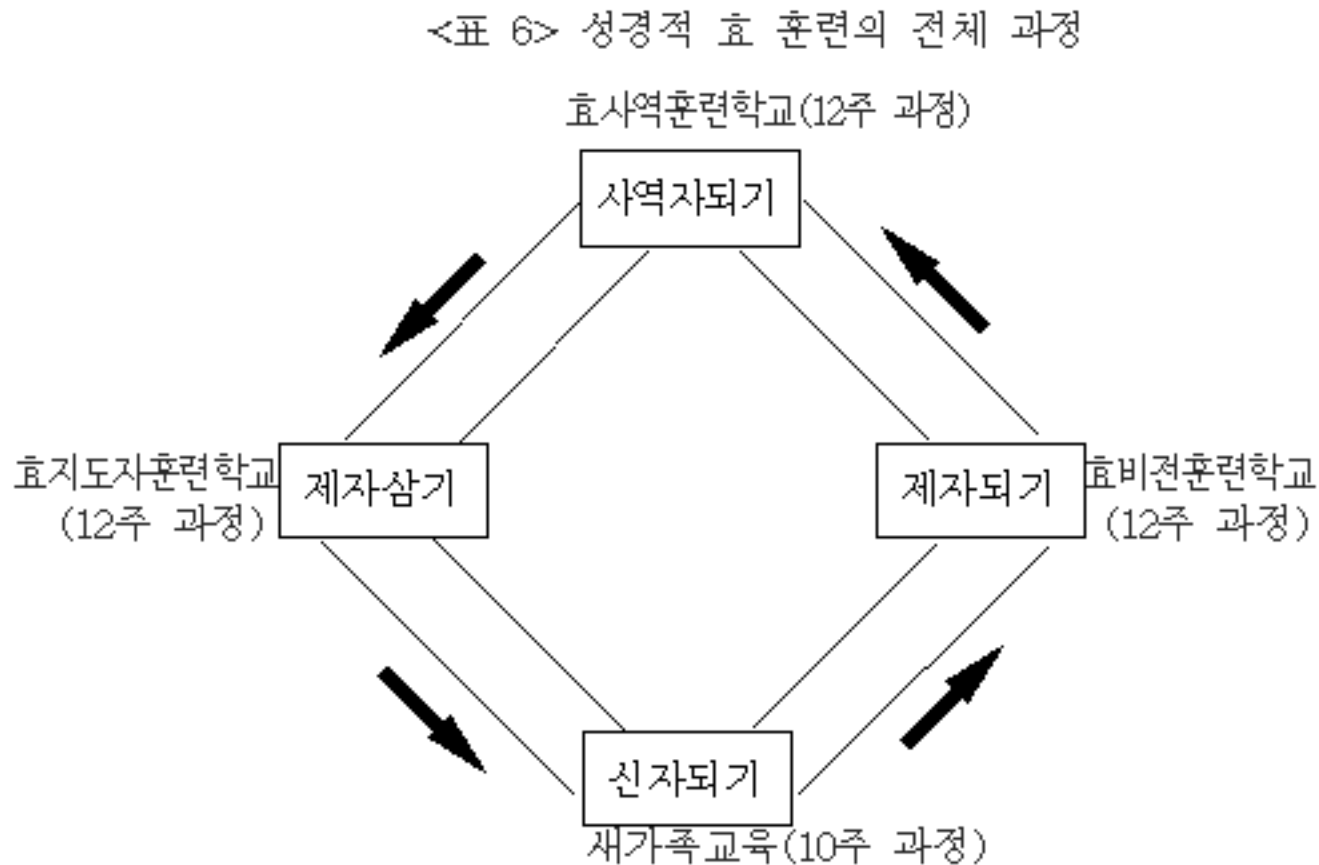
이 과정(표 5)은 성경적 효 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경적 효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즉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자신을 사도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효지도자는 새가족 교육 강사, 효비전 훈련학교와 효사역 훈련학교의 강사, 그 외 교육훈련 과정의 강사, 평신도 교구장, 사역팀장 등의 재생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구와 사역들을 돌아보며 섬기게 된다. 이 훈련학교는 담임목사와 기존 효지도자들의 섬김 가운데 지원자의 인원수에 따라 일 년에 1-2회 실시하고, 1박 2일의 효지도자 수련회와 11주의 강의와 소그룹 토론, 실습으로 진행된다.

수련회에서는 다시 한 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과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앙훈련은 반복훈련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실천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11주의 모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교회의 본질과 사명, 목회철학 공유,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지도자로서의 소명과 삶, 말씀선포, 기도와 영적 전쟁, 전도와 사역자 세우기, 팀/교구 개척, 지역사회봉사와 선교 등에 대해 강의와 소그룹 토론, 중보기도로 진행된다.

<표 5> 효지도자 훈련학교의 내용과 일정

일 정	강의주제	나눔/실습
1주	효지도자 수련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적 재생산 사명에 헌신
2주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현재성
3주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의 목적과 사명
4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성경적 효의 7대 사명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
5주	지도자로서의 소명과 삶	사도의 삶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발견과 자질 향상
6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전인적 성장
7주	말씀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8주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기도의 능력과 성령충만
9주	전도와 사역자 세우기	효과적인 전도와 사역자 훈련
10주	소그룹 재생산	팀사역과 구역/교구 관리, 번식 및 개척
11주	지역사회봉사와 선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봉사, 선교적 마인드
12주	수료식	효지도자 자격증 수여, 각 팀과 교구리더로 사역

표 6은 성경적 효 훈련의 전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개 교회에서는 기존 교육훈련의 체계에 성경적 효 훈련의 각 과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 3 절 순복음인천교회의 성경적 효 훈련과 실천사역들

순복음인천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성령충만한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겨왔다. 그러던 중 1995년 7월 16일 주일 '기독교와 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유교적 이념의 대표적 산물처럼 여기던 '효'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가 성경에서 효를 찾고 실천해야 함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설교사역, 기도사역, 전도사역, 교육훈련사역, 사회봉사사역, 사회교육사역, 자연보호사역, 인류봉사사역 등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성경적 효와 7대 사명 실천에 교인들을 동참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 1. 설교 사역: 하나님 섬김과 이웃 사랑의 말씀 실천

최성규 목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효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그 실천을 제시한다. 2006년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성경적 효의 7대 사명과 관련된 설교가 10회, 삶의 변화와 실천에 관한 설교가 13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9회, 성령에 관한 설교 5회, 신앙에 관한 설교 7회, 전도에 관한 설교 5회, 절기설교 2회이다.<sup>183)</sup> 주일설교의 45퍼센트 정도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말씀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교인들은 최소한 격주로 신앙의 생활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예배에서 다시 반복하며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나누게 된다. 교인들에게서 효 설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반응과 함께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sup>184)</sup>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 관계인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 2. 기도사역: 영적 성장과 나라 사랑

순복음인천교회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도사역이다. 창립 때부터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던 켄세마네 기도회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증보기도하고 있다. 나라 지키기 6월 한달 전성도 새벽기도회(1997. 6.1-30), 학원폭력없애기 전성도 21일 새벽기도회(1997. 7.14-8.3), 나라(경제) 살리기 새벽기도회(1997. 12.8-1998. 1.3; IMF극복을 위해), 빛 청산을 위한 21일 새벽기도회(1998. 1.21-21), 31절 기념 구국기도회(2000. 3.1), 한반도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21일 특별새벽부흥회(2003. 1.6-29) 등을 통해 전 교인들에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도사역은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증보자로 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183) 부록 1, 125.

184) 강선호, “효목회가 기독교인의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M.A. diss.,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05), 106. 순복음인천교회 교인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 3. 전도사역: 영혼구원과 이웃 사랑

가장 큰 이웃사랑은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복음인천 교회에서는 전성도가 1년에 3명 이상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전도에 대해 강조하고 훈련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배가부흥 100일 작전(1987. 3.21-6.30), 인천시민 10만명 초청 천국잔치(1987. 6.28), 가족초청 천국잔치(1989, 1990, 1991), 안드레 전도대학(1993, 1994), 총동원 전도주일(1994), 전도부흥성회(1995), 잃은 양 찾기 전도주일(1997), 전도축복 부흥성회(1999), 펜사콜라 전도축복성회(2000), 전성도 총력전도(2001), 영혼추수대작전(2002), 새생명 축제(2003-현재) 등을 통해 전교인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11월 현재 올해에 1,200여 명이 새신자로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전도사역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고 또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랑실천의 자세로 전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경적 효는 복음전도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앞서 언급한 강선호의 연구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 효에서 출발하기에 친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와 “효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면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가 각각 80.7퍼센트와 17.3퍼센트로 합하면 9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sup>185)</sup> 이것은 성경적 효 실천은 복음전도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4. 교육훈련사역: 질적 성장과 영적 재생산

전교인의 제자화와 사역자화를 위해 성경적 효 훈련을 기초로 하는 새가족 교육(11주), 성경개론(12주), 제자훈련(30주), 사역자 훈련(10주)을 필수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큐티 훈련, 성경통독, 찬양학교, 예배학교, 상담학교, 선교학교, 구역장대학, 교사대학, 제직학교, 증보기도학교, 아버지학교, 전도훈련, 새가족 강사 교육, 구역장 교육, 교구장 교육, 효사랑 훈련학교 등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은사대로 사역하도록 돕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4,500여 명의

185) 강선호, “효목회가 기독교인의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103.

교인들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중에서 새가족 강사 394명, 제직 681명, 제자(구역장) 543명, 평신도 교구장 80명의 영적 재생산자들이 양성되었다. 교육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의 목적은 말씀 실천과 재생산이다. 순복음인천교회는 교육훈련을 받는 목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받는 것임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 5. 사회봉사사역: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

순복음인천교회는 창립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왔다. 수해지역에 구호품과 봉사(1984, 1987), 사랑의 헌혈운동(1990-현재, 연 2회 실시), 자폐어린 이들의 치료·교육기관 운영(1991-현재), 미국입양청소년 모국방문(1995, 1996), 성산시민봉사단(1997-현재; 효마을봉사단으로 개칭)을 통한 결식 노인 무료식사제공, 병원·양로원·고아원 등의 복지시설 자원봉사, 폐휴지수거를 통한 심장병 어린이 수술, 무료 진료, 교통정리, 거리청소, 가로수 꾸미기 등 실시, 지역 어른 초청 효 경로잔치(1999), 가을 청소년 쉼터(1999-현재), 인천지역 독거노인 결연(1999), 내고장 쌀 1만포 먹기 사랑운동(1999), 생활보호대상 홀몸노인 결연(2000),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2000), 홀몸노인 돕기 인천시민 효실천 가족달리기대회(2001), 중국동포 장학금 전달(2002, 2003), 홀몸노인 사랑의 쌀 나누기(2002), 학교 폭력예방(2002), 인천지역 효 경로잔치(2003-현재), 수해지역돕기 자원봉사(2003), 농촌 돕기 농산물 직판장(2004), 인천청소년상담소(2004-현재), 홀몸노인·극빈자 추석선물(2004), 광복절60주년 정신대 할머니 쉼터 지원(2005) 등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전교인이 동참하고 있다(2007년 11월 현재 올해 4,000여명이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봉사사역은 교회가 담장 안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적인 효 실천은 영혼과 함께 마음과 생활까지도 구원하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복음, 다스림)이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섬김, 순종, 사랑의 마

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된다.

#### 6. 사회교육사역: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확산

성경적 효를 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여(1994)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모범청소년대상을 시상해오고 있고(1995-현재), 전국 중고등학교에 효행봉사단을 창단하여(1996-현재) 수련활동, 봉사활동, 예절교육, 부모자녀 사랑의 캠프, 문화공연, 체육활동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자연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깨끗한 인천 만들기 효 실천 캠페인(1997), 설날과 추석에 실시하는 효실천 캠페인(1997-현재), 설날 이웃 어른께 세배 드리기(2000-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2001), 인천 효축제 및 효자효부 시상(2002, 2003), 전국 효행대상 시상(2004-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2005-현재), 그리고 성경적 효를 가르칠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1997-현재) 370여명의 정식 석사와 4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8. 3 법률 제8610호) 되게 하였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기쁜 소식이다. 성경적 효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함으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전략적 방법이 된다.

#### 7. 자연보호사역: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과 사명 감당

자연보호의 사역들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봉사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성산시민봉사단(1997-현재)의 매주 가로수·화단 가꾸기, 국토 대 청결운동, 매연 추방 실천 결의대회 및 상설 단속반 발대, 깨끗한 인천만들기 효실천 결의대회 및 시가행진, 행락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 수돗물 아껴 쓰기·일회용품 안 쓰기·재활용품 사용하기·무스와 헤어스프레이 안 쓰기 운동, 공해 업소와 차량 신고하기, 효 베품시장의 재활용품을 생활화, 비닐봉지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주범이라는 데 착안하여 무명천으로 만든 그린백 2만 개를 제작하여 주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어 환경보호하기,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내고장 쌀 1만포 먹기 사랑운동(1999), 농촌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특산물 직거래 사

업추진(2003-현재) 등이 있다. 교인들은 이러한 사역들에 동참하고 실천함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 8. 인류봉사사역: 이웃사랑과 하나님 나라 전파

인류봉사의 사역들에는 중국 연길시 조선족 자치구 초청으로 효 세미나(1999), 요녕민족 경로대학 설립(1999), 길림성 연변대학 사범분원에서 국제적인 효교육(2001), 예꿈, 청소년부, 청년부와 장년까지 함께 연합하는 선교사역(1995-현재), 공개적으로 선교가 불가능한 타종교, 타민족문화권에 '효'가 접목된 선교전략(2003-현재; 이라크, 중국, 터키, 이란 등), 북한동포 돕기 전성도 특별새벽기도회, 이라크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새벽부흥회(2003), 예꿈(교회학교)의 세계평화를 위한 효실천 나라사랑 걷기대회(2002), 이라크 어린이 돕기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2003), 중국 조선족 어린이 초청 행사(2004), 한중 꿈나무 키우기 운동(2004), 동티모르 어린이 돕기 노트 보내기, 북한 어린이 돕기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2004), 베트남 효피플 지부 설립(2007)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우리의 형제/이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한다.

순복음인천교회는 “성령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효를 가르친다”는 비전 아래 담임목사와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있다. 참된 거룩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성장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순복음인천교회의 훈련과 사역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부모, 가족, 이웃, 나라, 자연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까지 이르는 전인적인 관계회복과 사랑실천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며,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고, 개인적 신앙성숙 뿐 아니라 사회적 성숙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효 훈련과 사역들은 교인들의 신앙이 균형 있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제 6 장

###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의 신앙성장 측정 및 분석

이 장에서는 성경적 효 훈련이 그리스도인의 전인적인 신앙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지난 12년간 성경적 효 훈련을 실시하여 온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제 1 절 측정 장치와 측정방법

교인들의 신앙을 측정하기 위해 “전인적 신앙성장 측정을 위한 설문”<sup>186)</sup>을 제작하고, 무작위 샘플집단(Random Selection Sample Group)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1. 측정 장치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순복음인천교회의 5대 비전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을 점검하는 “전인적 신앙성장 측정을 위한 설문”을 제작하였다.<sup>187)</sup>

##### 가. 측정 장치의 구성

측정 장치(설문지)는 세 부분,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앙경력에 관한 문항, 순복음인천교회의 5대 비전(예배, 교육훈련, 전도, 교제, 봉사)의 실천과 교회생활 참여도에 관한 10개 문항,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적인

186) 부록 2, 126.

187) 설문지 작성과 교정 위원회(배효식, 신현구, 최병섭, 최용석)를 구성하여 3회의 모임을 통해 공동 제작되었다.

조사 내용인 전인적 신앙성장(영성, 인성, 생활, 신앙훈련, 재생산)에 관한 5개 문항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하나님 아버지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 실천에 관한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 나. 주요 조사 내용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앙경력에 관한 문항에서는 성별, 나이, 신앙경력, 교회출석기간과 이유 등을 조사함으로써 신앙연수와 신앙성장의 비례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순복음인천교회의 5대 비전의 실천과 교회생활 참여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되는 예배, 교육훈련, 전도, 교제, 봉사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생활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전인적 신앙성장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에 관한 문항에서는 자신의 영성, 인성, 생활, 신앙훈련, 재생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조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를 생활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각 항목 당 3개 문항씩 질문함으로 신앙의 전인적 성장과 생활화를 점검하고자 한다.

## 2. 측정방법

### 가. 표본 설계(Sample Design)

전인적 신앙성장의 비교평가를 위해서 성인 교인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30명씩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조사하였다. 남녀와 연령의 비율이 가능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첫째 그룹은 순복음인천교회 교인이 된지 1년 미만의 새신자 그룹(이하 G-1)이고, 두 번째 그룹은 3년 이상 된 교인들 중에서 성경적 효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은 그룹(이하 G-2)이고, 세 번째 그룹은 3년 이상 된 교인들 중에서 성경적 효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그룹(이하 G-3)이다.

## 나. 조사방법

전체 조사 대상자들을 그룹별로 모이게 하고 설문 취지와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에 “전인적 신앙성장 측정을 위한 설문”을 나누어주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일은 2007년 12월 2일 주일이다.

## 제 2 절 신앙성장 측정 결과분석 및 평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한 측정결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적사항, 신앙경력, 교회출석기간과 출석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분석이다. 두 번째는 교회 5대 비전과 교회생활 참여도에 대한 분석이다. 세 번째는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여부에 대한 분석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에 대한 분석이다.

### 1. 인적사항과 신앙경력, 교회출석기간과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분석

#### 가. 결과 분석

표 7-11을 보면 G-1(새신자 그룹)은 남자 6명, 여자 2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연령은 20대 6명, 30대 8명, 40대 9명, 50대 7명이다. 신앙경력은 1년 이하가 60%, 6개월에서 2년이 30%, 5-10년 3.3%, 10-20년 6.7%으로 대부분(90%)이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었다. 교회출석기간은 30명 전원이 1년 미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복 받기 위해서’가 20%,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가 각각 10%씩 나왔다. 교회출석이유로는 ‘설교/예배가 좋아서’가 40%, ‘가족/친구가 다녀서’가 26.7%, ‘거리가 가까워서’, ‘교회의 활동내용(성경적 효실천, 사회봉사)’, ‘담임목사님이 좋아서’가 각각 10%이었다.

G-2(훈련받지 않은 그룹)은 남자 10명, 여자 20명으로 연령은 30대 5명, 40대 11명, 50대 13명, 60대 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신앙경력은 5-10년이 40%, 10-20년이 60%로 모두가 5년 이상 된 신자들이었고, 교회출석기간도 5-10년이 50%, 10-20년이

50%로 대부분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가 46.7%로 가장 많았고,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20%, '복 받기 위해서'가 13.3%로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출석이유로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가 40%이고, 그 다음은 '설교/예배가 좋아서'가 33.3%, '나의 신앙(순복음)과 맞아서'가 20%, '교회의 활동내용이 좋아서'가 13.3%, '가족/친구가 다녀서'가 10%로 나왔다.

G-3(훈련받은 그룹)은 남자 11명, 여자 19명이고, 20대 4명, 30대 6명, 40대 8명, 50대 9명, 60대 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신앙경력은 10-20년이 66.7%로 가장 많았고, 5-10년이 16.7%, 모태신앙이 13.3% 이었다. 교회출석기간은 10-20년이 60%, 5-10년이 33.3%, 3-5년이 6.7%로 대부분이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가 63.3%로 가장 높았고,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가 13.3%, '복 받기 위해서'와 '사람들과의 친분/교제를 위해서'가 10%씩 나왔다. 교회출석이유로는 '나의 신앙(순복음)과 맞아서'가 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설교/예배가 좋아서'가 26.7%, '오래 다니다 보니까'가 23.3%,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가족/친구가 다녀서', '교회 활동내용이 좋아서'와 '담임목사님이 좋아서'가 각 10%씩 나왔다.

#### 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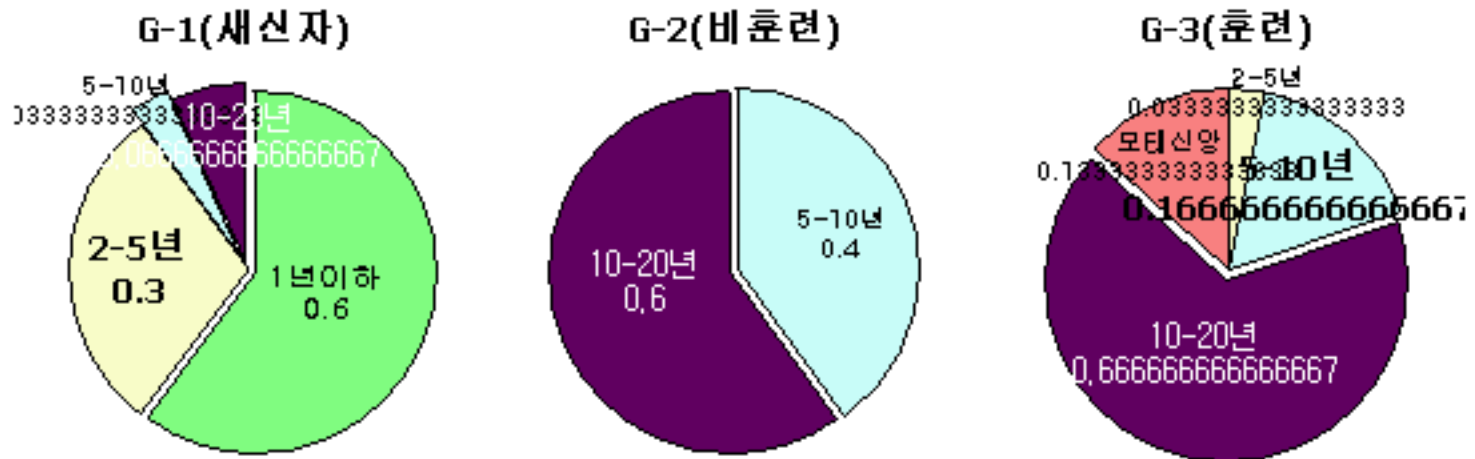
결과 분석을 종합해보면 교인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출석이유로는 공통적으로 '설교/예배가 좋아서'가 많았고, 신앙 훈련 단계에 따라 새신자는 '설교/예배가 좋아서'(40%)와 함께 '가족/친구가 다녀서'(26.7%) 교회에 출석하고, 훈련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래 다니다 보니까'(40%) 출석하고, 훈련받은 교인들은 '나의 신앙과 맞아서'(43.3%)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을 받을수록 교회출석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자발적 의지로 출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신앙의 이유도 새신자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60%)이지만, 훈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63.3%)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훈련의 여부에 따라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고 성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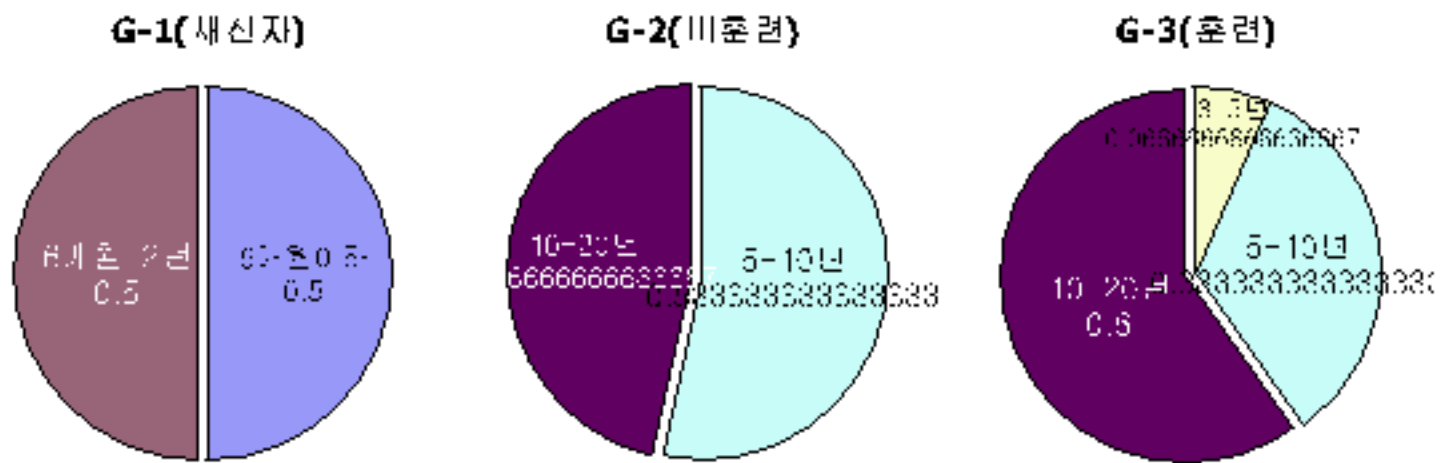
&lt;표 7&gt; 측정결과 1-1 인적사항, 신앙경력, 교회출석기간, 신앙의 목적

문항	그룹	남자	여자	단위: 명(%)		
A. 성별	G-1	6 (20%)	24 (80%)			
	G-2	10 (33.3%)	20 (66.6%)			
	G-3	11 (36.7%)	19 (63.3%)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 나이	G-1	6 (20%)	8 (26.7%)	9 (30%)	7 (23.3%)	0
	G-2	0	5 (16.7%)	11 (36.7%)	13 (43.4%)	1 (3.3%)
	G-3	4 (13.3%)	6 (20%)	8 (26.7%)	9 (30%)	3 (10%)
		0명	1명	2명	3명	4명
C. 자녀수	G-1	6 (20%)	10 (33.3%)	8 (26.7%)	6 (20%)	0
	G-2	0	4 (13.3%)	16 (53.3%)	9 (30%)	1 (3.3%)
	G-3	4 (13.3%)	3 (10%)	16 (53.3%)	6 (20%)	1 (3.3%)
		1년 이하	2-5년	5-10년	10-20년	모태신앙
D. 신앙경력	G-1	18 (60%)	9 (30%)	1 (3.3%)	2 (6.7%)	0
	G-2	0	0	12 (40%)	18 (60%)	0
	G-3	0	1 (3.3%)	5 (16.7%)	20 (66.7%)	4 (13.3%)
		6개월 이하	6개월-2년	3-5년	5-10년	10-20년
E. 교회출석기간	G-1	15 (50%)	15 (50%)	0	0	0
	G-2	0	0	0	16 (53.3%)	14 (46.7%)
	G-3	0	0	2 (6.7%)	10 (33.3%)	18 (60%)
		복받기 위해서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분/교제 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F.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	G-1	6 (20%)	3 (10%)	18 (60%)	0	3 (10%)
	G-2	4 (13.3%)	6 (20%)	6 (20%)	0	14 (46.7%)
	G-3	3 (10%)	4 (13.3%)	1 (3.3%)	3 (10%)	19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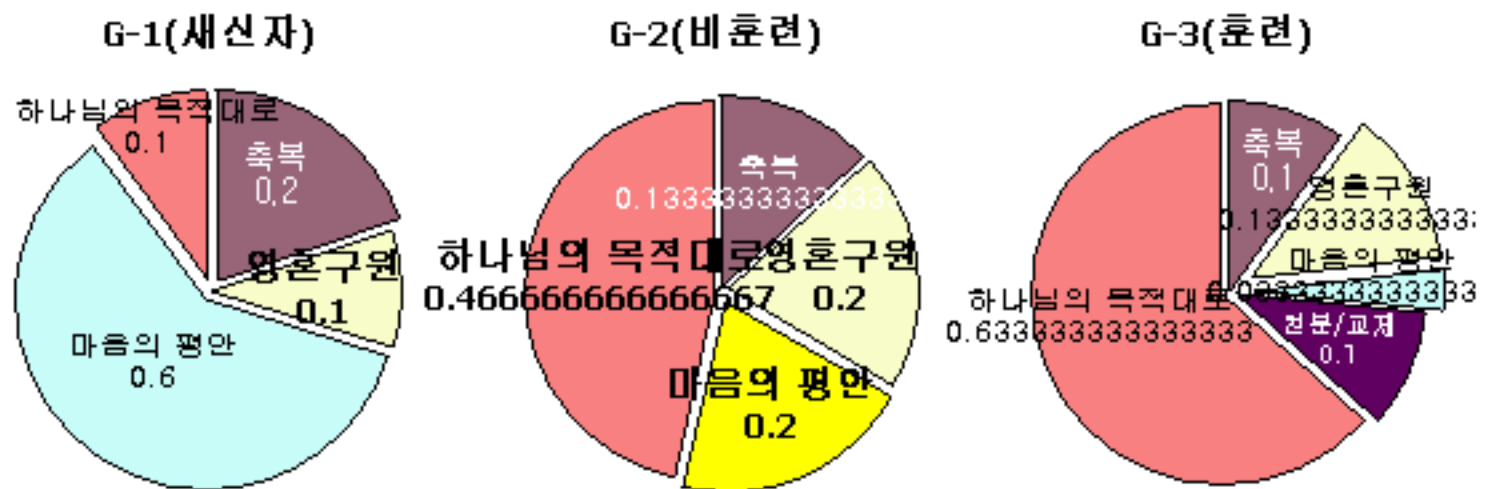
<표 8> 그룹별 신앙경력 비교



<표 9> 그룹별 교회출석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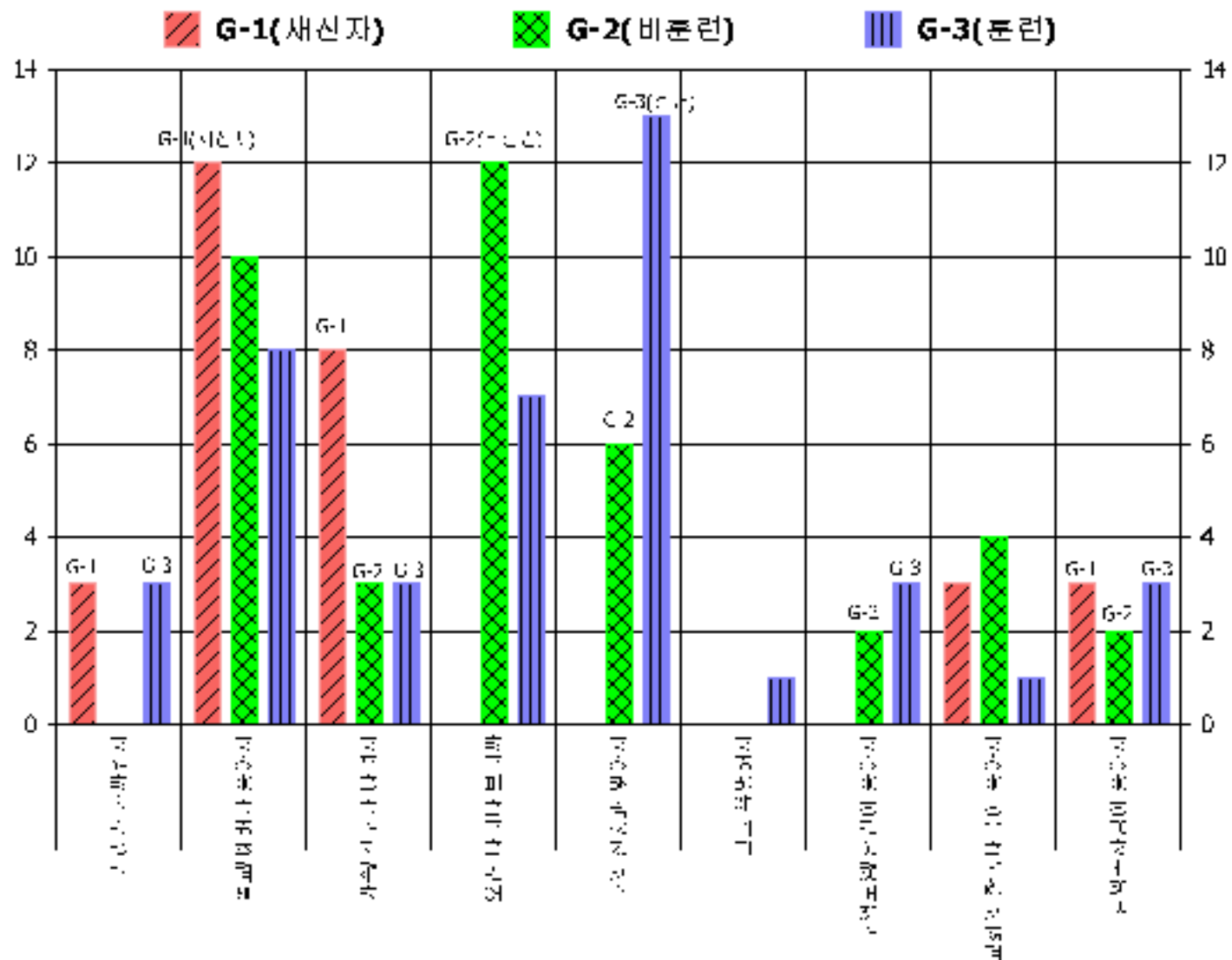


<표 10> 그룹별 신앙이유 비교



&lt;표 11&gt; 측정결과 1-2 교회출석이유

G. 교회출석 이유 (복수응답)	G-1(새신자)	G-2(비훈련)	G-3(훈련)
거리가 가까워서	3 (10%)	0	3 (10%)
설교/예배가 좋아서	12 (40%)	10 (33.3%)	8 (26.7%)
가족/친구가 다녀서	8 (26.7%)	3 (10%)	3 (10%)
오래 다니다 보니까	0	12 (40%)	7 (23.3%)
나의 신앙(순복음)과 맞아서	0	6 (20%)	13 (43.3%)
크고 유명해서	0	0	1 (3.3%)
구역모임/교육훈련이 좋아서	0	2 (6.7%)	3 (10%)
교회의 활동내용(성경적효실천, 사회봉사)이 좋아서	3 (10%)	4 (13.3%)	1 (3.3%)
담임목사님이 좋아서	3 (10%)	2 (6.7%)	3 (10%)



## 2. 교회 5대 비전과 교회생활 참여도에 대한 분석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육훈련 받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이다. 모든 교인들은 이 다섯 가지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 가. 결과 분석

표 12, 13에서 G-1은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성경을 1시간 이하로 읽고(80%), 개인 기도를 하루 평균 10분 이하로 하며(70%), 주일 예배는 모두 참석하고(100%), 나머지 주중예배에는 소수만(수요예배 10%, 금요기도회 10%) 참석하고 있다. 새가족 교육은 모두 받았고(100%), 핵심성경은 30%만 받았다. 전도는 최근 1-2년 동안 한명도 하지 못한 사람이 80%이고, 20%는 1-2명을 전도하였다. 교회 안에 신앙과 생활에 대해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1-2명 이상(90%)이 있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이다.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시간은 대부분(80%)이 1시간 이하이고, 1-2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이 20%가 된다. 월평균 수입에서 각종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1-5%가 70%로 가장 많았고, 10-20%를 드리는 사람도 20% 있었다. 새신자들은 '예배/설교'를 통해 90%가 신앙성장에 도움을 얻고, 교회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영감 있는 예배'가 가장 필요하다고 60%가 응답하였다.

G-2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평균적으로 1시간 이하로 읽는 사람이 60%, 2시간 이상 읽는 사람이 36.7% 있다. 이 수치는 새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63.3%가 10분에서 1시간 사이이고, 30%는 10분 이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예배는 모두 참석하고, 수요예배에 26.7%, 금요기도회에 26.7%, 새벽기도회에 13.3%, 성령충만기도회에 20%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분의 1 정도만 주중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가족 교육은 43.3%가 받았고, 성경학교와 성경대학은 각각 33.3%와 26.7%가 받았다. 구역장 훈련을 받은 16.7% 외에는 대부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 1-2년 50%가 한명도 전도하지 못하였고, 46.7%가 1-2명 전도하였다. 교회 안에 신앙과 생활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56.7%가 1-2명을 가지고 있고, 3명 이상 되는 사람이 26.7%이고, 한 명도 없는 사람이 16.7%로 나타났다. G-2는 모두가

교회출석한지 5년 이상 된 교인들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사뭇 놀라웠고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일주일 동안 봉사 시간은 40%가 1시간 이하이고, 1-2시간은 20%, 3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은 40%로 나타났다. 각종 헌금을 포함해 월평균 수입의 10-20%를 드리는 사람이 46.7%로 절반정도가 십일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83.3%)이 '예배/설교'를 통해 신앙성장에 도움을 받으며, 그 외에 구역모임에서 26.7%, 신앙의 가족/선배/동료로부터 23.3%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예배 외에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영감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이 33.3%, 친밀한 교제가 23.3%, 전도와 사회봉사가 각 20%씩 나왔다.

G-3은 일주일 평균 성경을 2시간 읽는 사람이 80%이고, 하루 평균 기도를 30분 이상 하는 사람이 66.7%이다. 주일예배는 모두가 참석하고, 그 외에도 3분의 2 이상이 수요예배(80%), 새벽기도회(73.3%)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훈련에는 새가족 교육을 76.7%, 핵심성경을 66.7%, 성격학교를 73.3%, 구역장훈련을 83.3%, 제자훈련을 83.3%, 전도훈련을 63.3%, 사역자 훈련을 60%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보여준다. 최근 1-2년간 3명 이상 전도한 사람은 66.7%이고, 그 중에서 6.7%는 10명 이상 전도하였다. 그리고 G-3에서도 10%는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안에 신앙과 생활에 대해 대부분(80%) 3명 이상과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었고, G-2와는 달리 친밀한 교제를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었다. 일주일 동안 봉사시간은 73.3%가 3시간 이상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헌금은 93.3%가 십일조 이상의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훈련'(80%)과 '예배/설교'(66.7%)이고, 교회성장을 위해서 '영감 있는 예배'(50%)와 '전도의 열정'(43.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lt;표 12&gt; 측정결과 II-1 교회의 5대 사명과 교회 생활 참여도

단위: 명(%)

문항	그룹	1시간이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1.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G-1(새신자)	24 (80%)	4 (13.3%)	2 (6.7%)	0	0
	G-2(비훈련)	18 (60%)	8 (26.7%)	3 (10%)	1 (3.3%)	0
	G-3(훈련)	6 (20%)	14 (46.7%)	5 (16.7%)	2 (6.7%)	3 (10%)
		10분이하	10-30분	30분-1시간	1-2시간	3시간이상
2. 하루 평균 기도시간	G-1(새신자)	21 (70%)	4 (13.3%)	3 (10%)	2 (6.7%)	0
	G-2(비훈련)	9 (30%)	11 (36.7%)	8 (26.7%)	2 (6.7%)	0
	G-3(훈련)	0	10 (33.3%)	8 (26.7%)	7 (23.3%)	5 (16.7%)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성령충만 기도회
3. 예배 참석(복수응답)	G-1(새신자)	30 (100%)	3 (10%)	3 (10%)	0	0
	G-2(비훈련)	30 (100%)	8 (26.7%)	8 (26.7%)	4 (13.3%)	6 (20%)
	G-3(훈련)	30 (100%)	24 (80%)	16 (53.3%)	22 (73.3%)	15 (50%)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4. 최근 1-2년간 전도인원	G-1(새신자)	24 (80%)	6 (20%)	0	0	0
	G-2(비훈련)	15 (50%)	14 (46.7%)	1 (3.3%)	0	0
	G-3(훈련)	3 (10%)	7 (23.3%)	9 (30%)	9 (30%)	2 (6.7%)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5. 교회 안에 마음 터놓고 대화, 교제할 수 있는 사람	G-1(새신자)	3 (10%)	21 (70%)	6 (20%)	0	0
	G-2(비훈련)	5 (16.7%)	17 (56.7%)	5 (16.7%)	3 (10%)	0
	G-3(훈련)	0	6 (20%)	11 (36.7%)	5 (16.7%)	8 (26.7%)
		1시간이하	1-2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이상
6. 일주일 동안 봉사시간	G-1(새신자)	24 (80%)	4 (13.3%)	2 (6.7%)	0	0
	G-2(비훈련)	12 (40%)	6 (20%)	5 (16.7%)	6 (20%)	1 (3.3%)
	G-3(훈련)	4 (13.3%)	4 (13.3%)	7 (23.3%)	9 (30%)	6 (20%)
		1-5%	5-10%	10-20%	20-30%	30%이상
7. 월평균 수입 중 헌금	G-1(새신자)	21 (70%)	3 (10%)	6 (20%)	0	0
	G-2(비훈련)	12 (40%)	6 (20%)	5 (16.7%)	6 (20%)	1 (3.3%)
	G-3(훈련)	0	2 (6.7%)	19 (63.3%)	7 (23.3%)	2 (6.7%)

&lt;표 13&gt; 측정결과 II-2 교육훈련 참여도, 신앙성장에 도움 되는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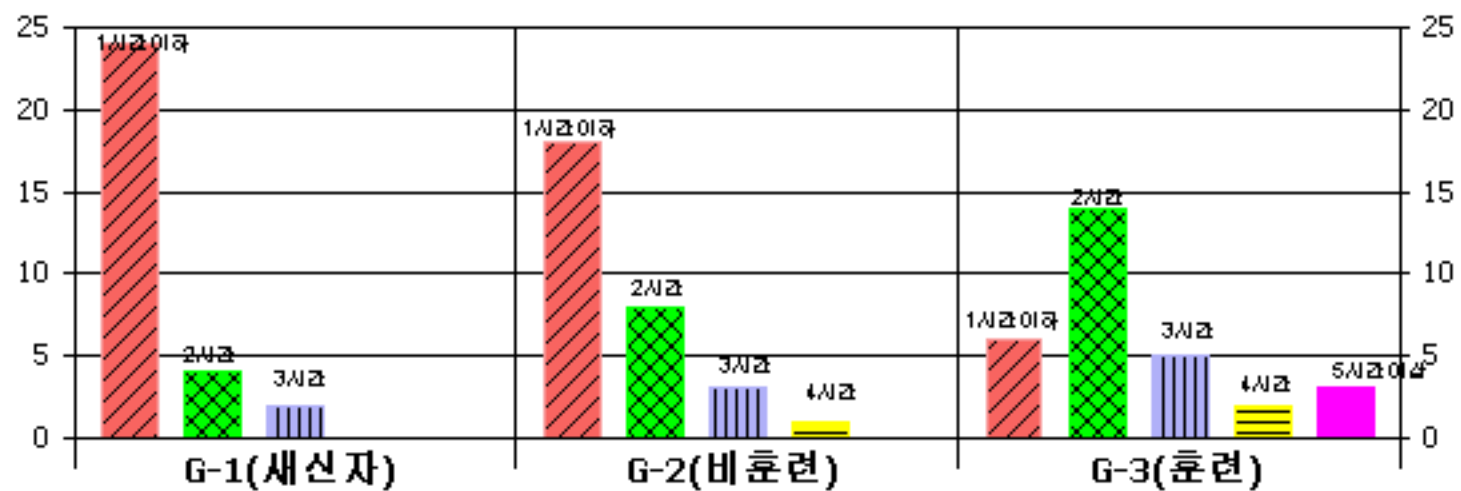
8. 교육훈련 참여 (복수응답)	G-1(새신자)	G-2(비훈련)	G-3(훈련)
새가족 교육	30 (100%)	13 (43.3%)	23 (76.7%)
핵심성경	9 (30%)	6 (20%)	20 (66.7%)
성경학교	0	10 (33.3%)	22 (73.3%)
성경대학	0	8 (26.7%)	18 (60%)
구역장훈련	0	5 (16.7%)	25 (83.3%)
제자훈련	0	2 (6.7%)	25 (83.3%)
제직훈련	0	1 (3.3%)	18 (60%)
전도훈련	0	1 (3.3%)	19 (63.3%)
교사대학	0	2 (6.7%)	10 (33.3%)
사역자훈련	0	0	18 (60%)
효사랑 훈련학교	0	0	19 (63.3%)
9.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역 (복수응답)	G-1(새신자)	G-2(비훈련)	G-3(훈련)
예배/설교	27 (90%)	25 (83.3%)	20 (66.7%)
구역모임	2 (6.7%)	8 (26.7%)	7 (23.3%)
교육훈련	4 (13.3%)	2 (6.7%)	24 (80%)
봉사활동	0	5 (16.7%)	6 (20%)
신앙의 가족/선배/동료	0	7 (23.3%)	8 (26.7%)
신앙서적	0	1 (3.3%)	7 (23.3%)
QT(성경묵상)/개인기도	0	4 (13.3%)	8 (26.7%)
부흥회	0	1 (3.3%)	3 (10%)

#### 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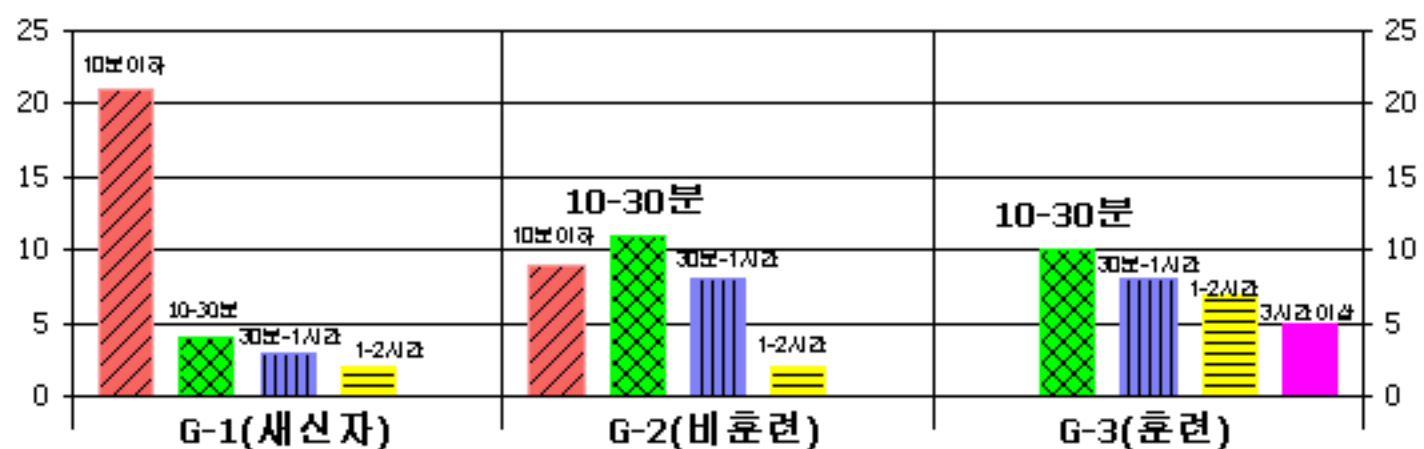
표 14-22에서 새신자들인 G-1과 훈련받지 않은 기존 교인들의 G-2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봉사와 헌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성경읽기, 기도 시간, 예배참석, 교육훈련, 전도인원, 친밀한 교제 등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참여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G-3에서는 모든 부

분에서 현저하게 높은 참여도가 나타났다. 이들은 일주일 평균 3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며, 주일예배와 주중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매해 3명 이상 전도하고, 다른 교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봉사에도 많은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새신자 때의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다는 것이다. 주일성수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체계적인 신앙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5년 이상 교회출석을 하여도 3분의 2 이상(73.3%)이 1-2명 이하의 소수의 사람과만 교제를 나누는 현상을 통해 대그룹모임(예배)과 함께 구역/사역모임 등의 소그룹모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준다.

<표 14> 그룹별 일주일 평균 성경 읽는 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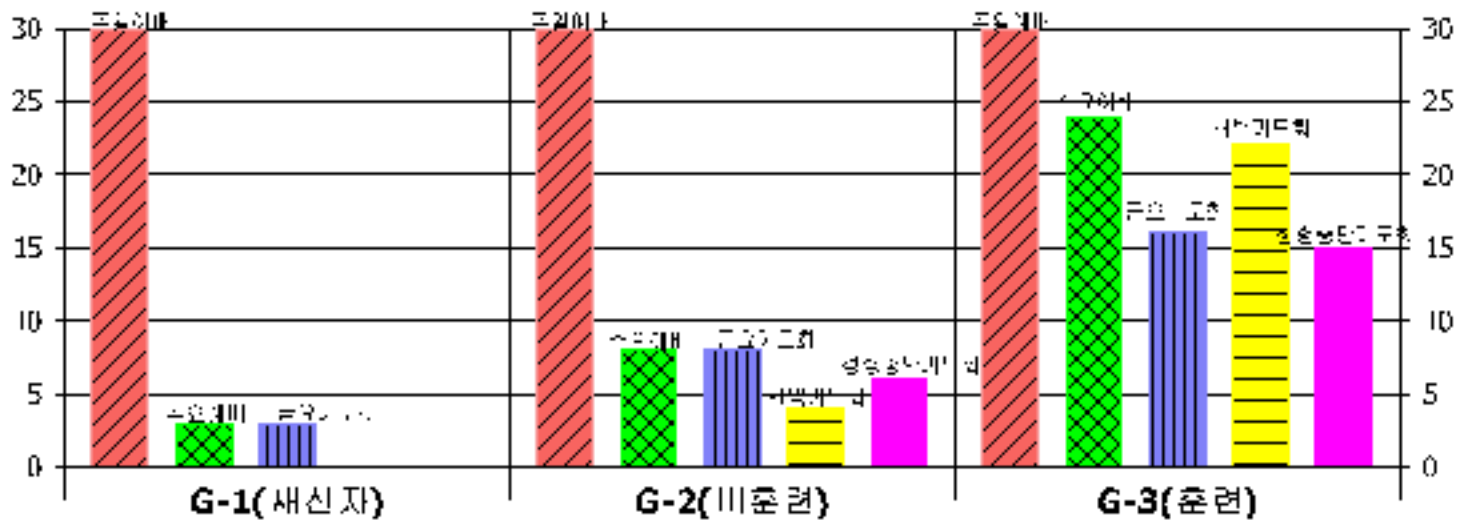


<표 15> 그룹별 하루 평균 기도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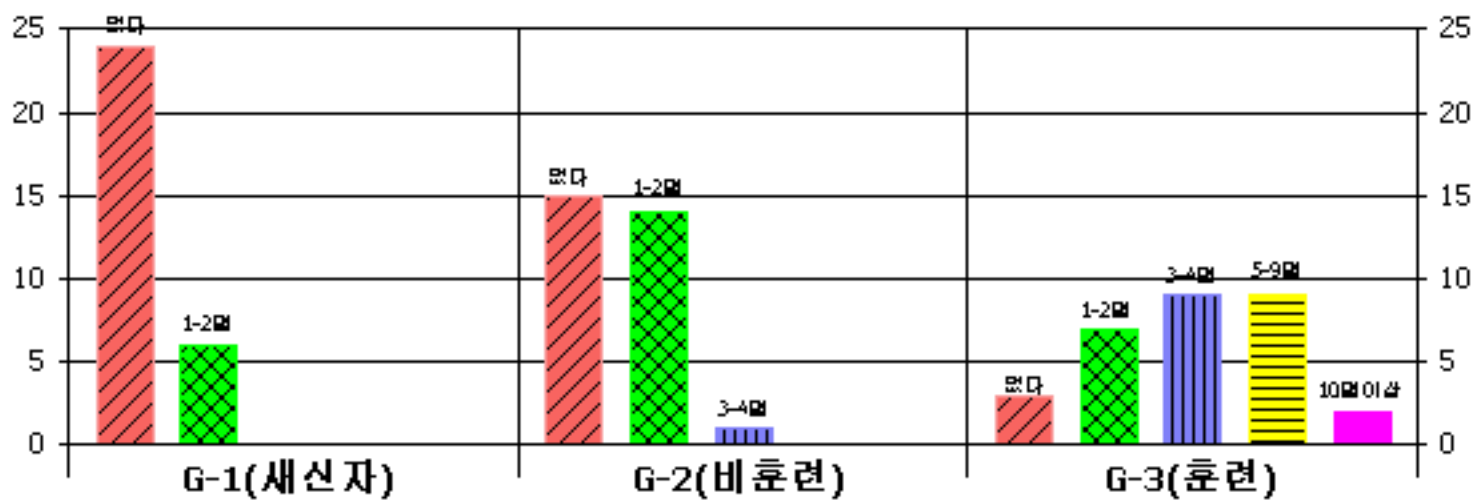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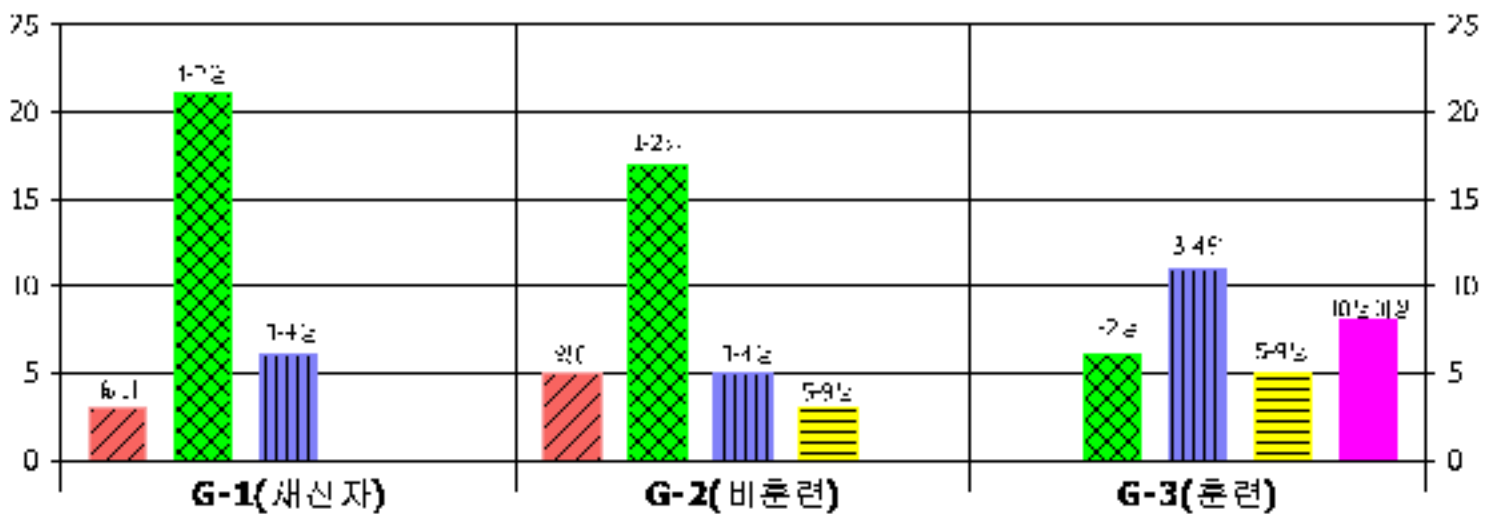
<표 16> 그룹별 예배 참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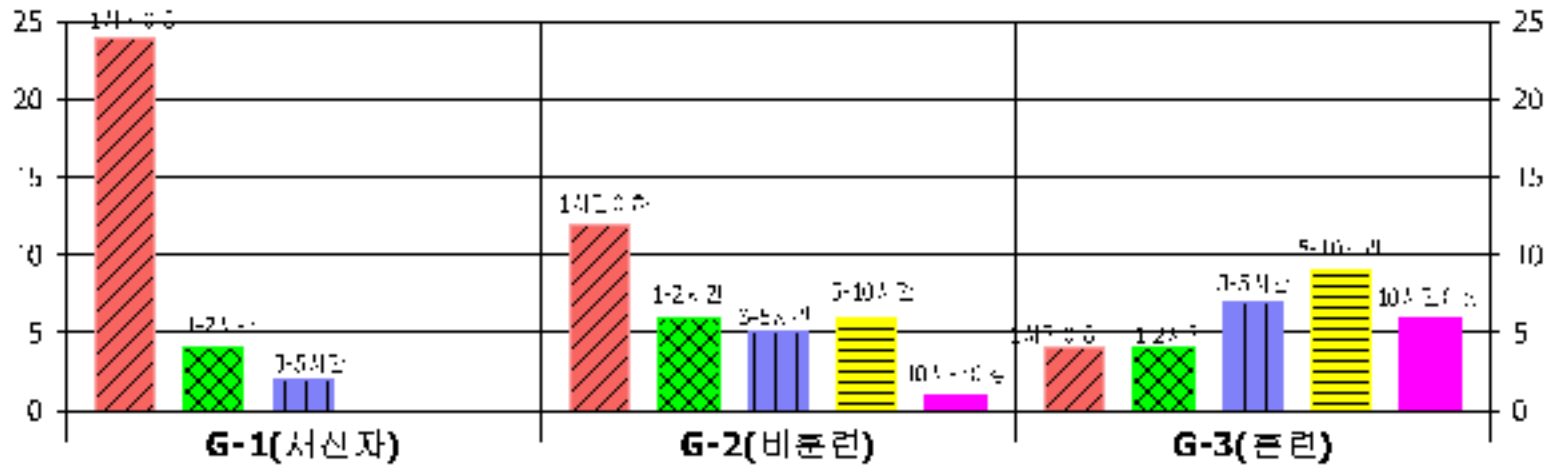
<표 17> 그룹별 최근 1-2년간 전도 인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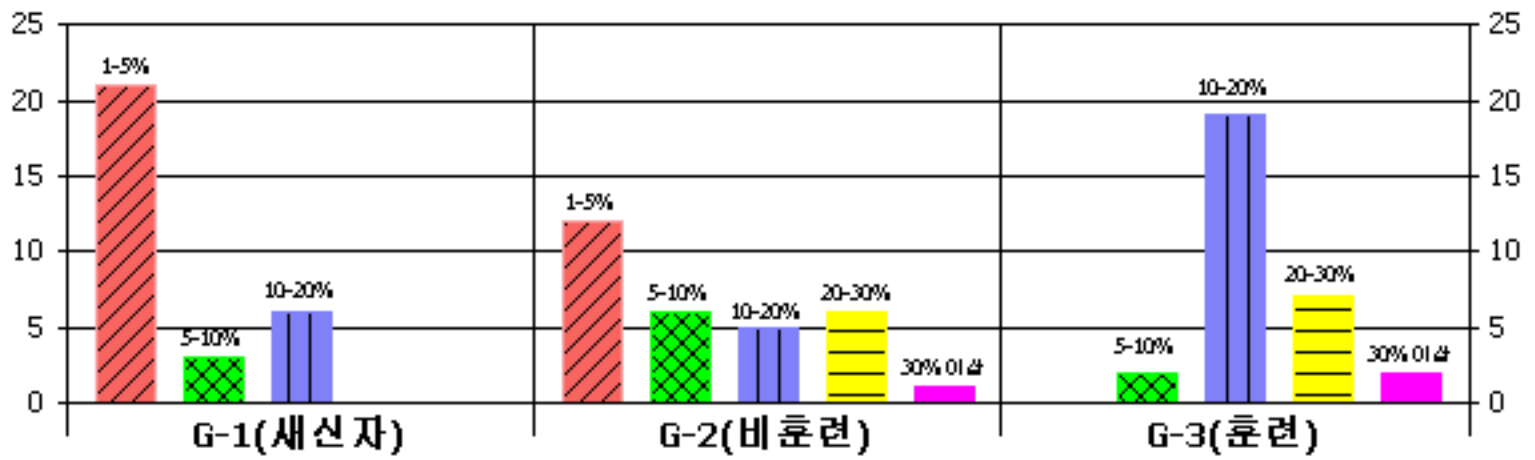
<표 18> 그룹별 교회 안에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인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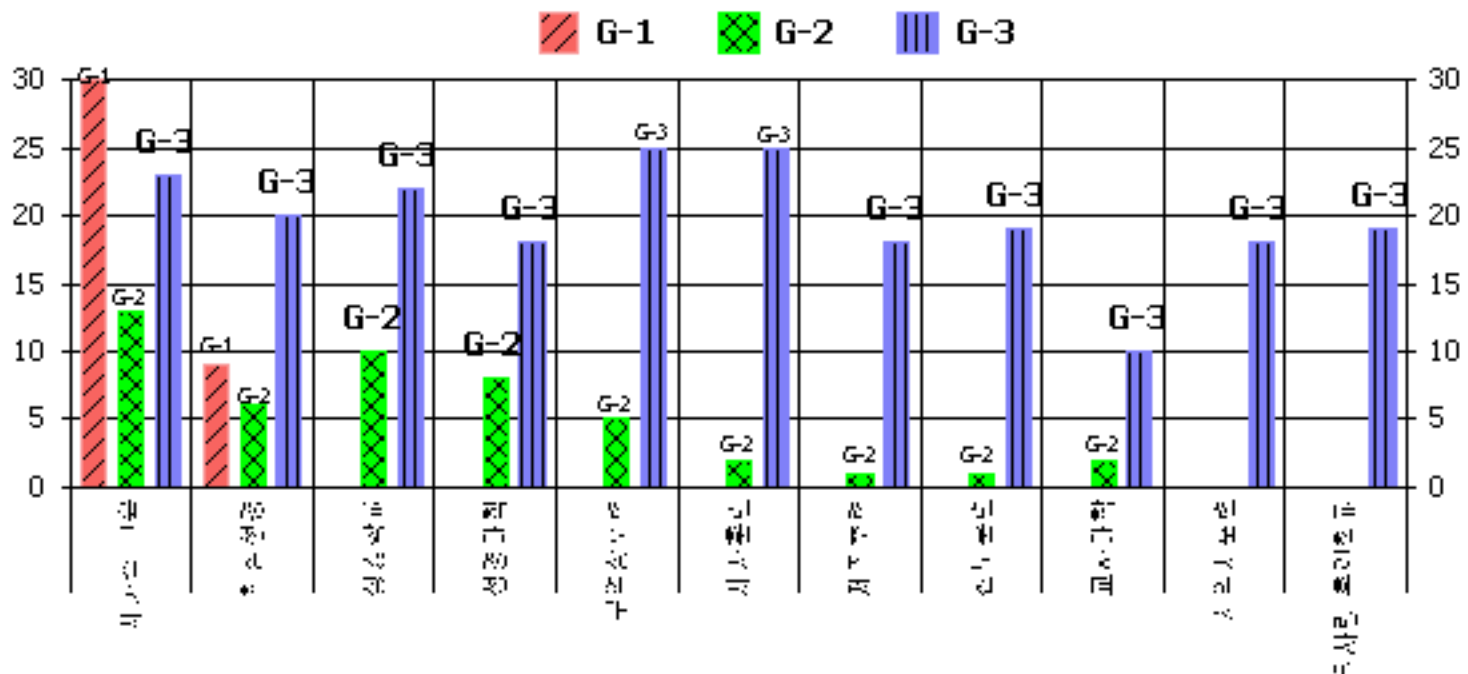
<표 19> 그룹별 일주일간 봉사 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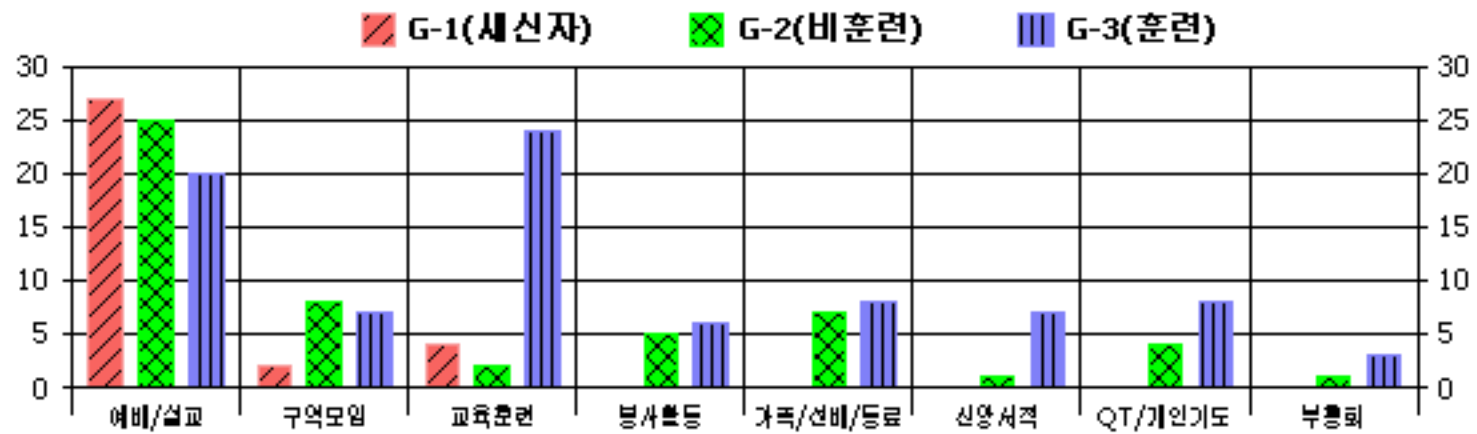
<표 20> 그룹별 월평균 수입 중 헌금 비교



<표 21> 그룹별 교육훈련 비교



&lt;표 22&gt; 그룹별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역 비교



### 3.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한 분석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성, 인성, 생활의 세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어느 한 영역에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과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 신앙성장은 제자를 삼는 영적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 가. 결과 분석

표 23에서 G-1은 영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물어보는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장하시도록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 한다’는 질문에 70%가 ‘그저 그렇다’ 이하의 대답을 하였다. 인성에 대한 질문인 ‘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타자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질문에 80%가 ‘그저 그렇다’ 이하로 응답하였고, 20%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신앙의 생활화를 물어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QT, 성경공부 등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매일 나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질문에 90%가 ‘그저 그렇다’ 이하라고 대답하여 아직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여 준다. 신앙훈련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도 90%가 중간 이하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재생산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새신자이기에 모두가 ‘그저 그렇다’ 이하로 응답하였다.

G-2는 영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질문에 43.3%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30%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타자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인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 이하의 응답자가 83.3%로 영성에 대한 관심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신앙의 생활화의 질문에서도 ‘그저 그렇다’ 이하의 응답이

90%로 말씀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앙훈련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그저 그렇다' 이하의 대답이 90%가 나왔다. 신앙연수는 오래 되었지만 신앙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함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영적 재생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다' 이하의 대답이 93.3%로 그리스도인의 핵심 사명인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G-3은 영성에 대해 90%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대답을 하였다. 인성과 신앙의 생활화에 대해서도 각각 76.7%, 73.3%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나왔다. 신앙훈련에 대한 우선순위도 66.7%가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33.3%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영적 재생산에 대해서는 76.7%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측정결과 Ⅲ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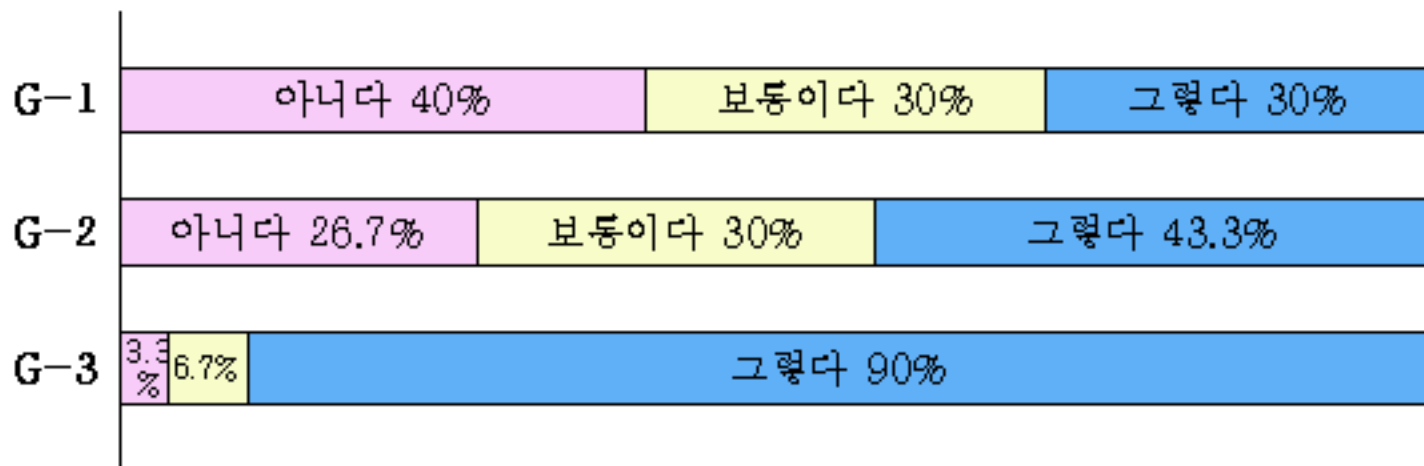
단위: 명(%)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영성]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도록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G-1	7 (23.3%)	5 (16.7%)	9 (30%)	3 (10%)	6 (20%)
	G-2	4 (13.3%)	4 (13.3%)	9 (30%)	11 (36.7%)	2 (6.7%)
	G-3	0	1 (3.3%)	2 (6.7%)	15 (50%)	12 (40%)
12. [인성] 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의 순종, 섬김, 희생의 타자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G-1	0	15 (50%)	9 (30%)	6 (20%)	0
	G-2	6 (20%)	4 (13.3%)	15 (50%)	5 (16.7%)	0
	G-3	0	1 (3.3%)	6 (20%)	15 (50%)	8 (26.7%)
13. [생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QT, 성경공부 등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매일 나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	G-1	7 (23.3%)	9 (30%)	11 (36.7%)	3 (10%)	0
	G-2	5 (16.7%)	8 (26.7%)	14 (46.7%)	3 (10%)	0
	G-3	0	1 (3.3%)	7 (23.3%)	17 (56.7%)	5 (16.7%)
14. [신앙훈련] 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훈련 받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G-1	6 (20%)	8 (26.7%)	13 (43.3%)	3 (10%)	0
	G-2	2 (6.7%)	9 (30%)	16 (53.3%)	3 (10%)	0
	G-3	0	0	10 (33.3%)	13 (43.3%)	7 (23.3%)
15. [영적 재생산] 나는 구역/사역/교육 등을 통해 제자를 삼고 영적 재생산을 하고 있다.	G-1	12 (40%)	10 (33.3%)	8 (26.7%)	0	0
	G-2	3 (10%)	12 (40%)	13 (43.3%)	2 (6.7%)	0
	G-3	0	3 (10%)	4 (13.3%)	16 (53.3%)	7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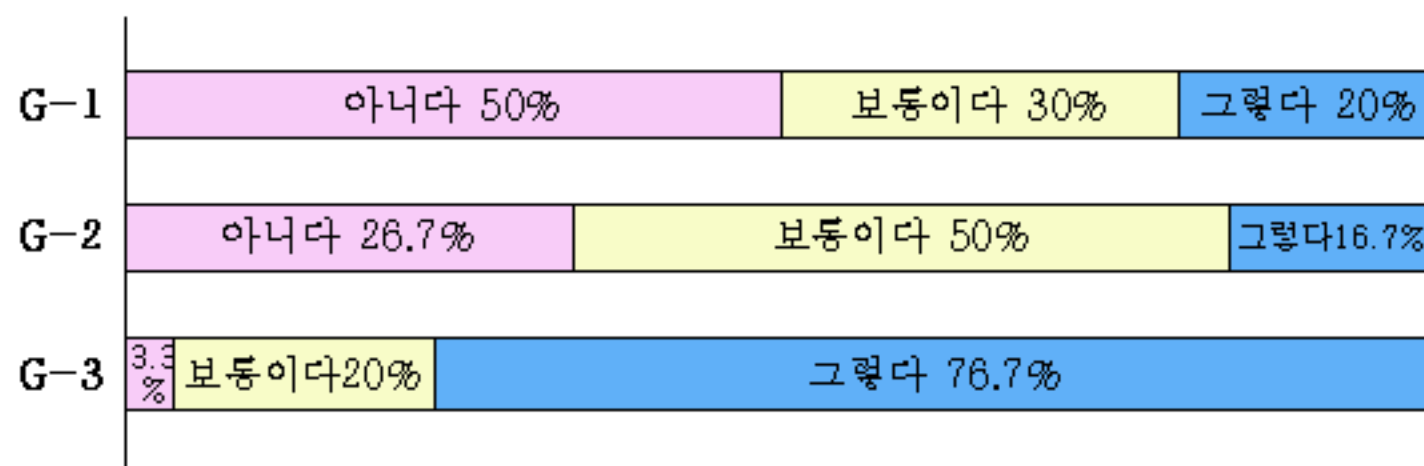
나. 평가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조사하는 질문에서도 새신자 그룹 G-1과 5년 이상 된 신자그룹 G-2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4-28). 두 그룹이 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과 실천이 있었으나, 인성과 신앙의 생활에서는 조사자 대부분이 중간 이하의 관심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신앙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신앙은 불균형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만 자라는 것을 G-2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성경적 효 신앙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G-3은 영성과 인성과 생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신앙훈련을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표 27), 영적 재생산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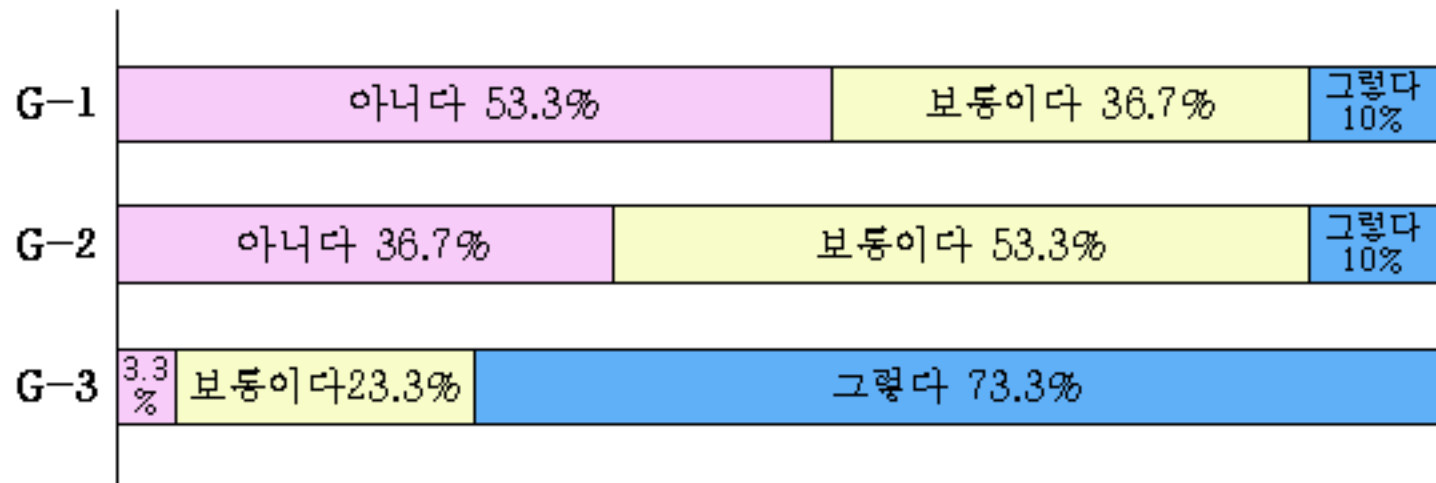
<표 24> 그룹별 영성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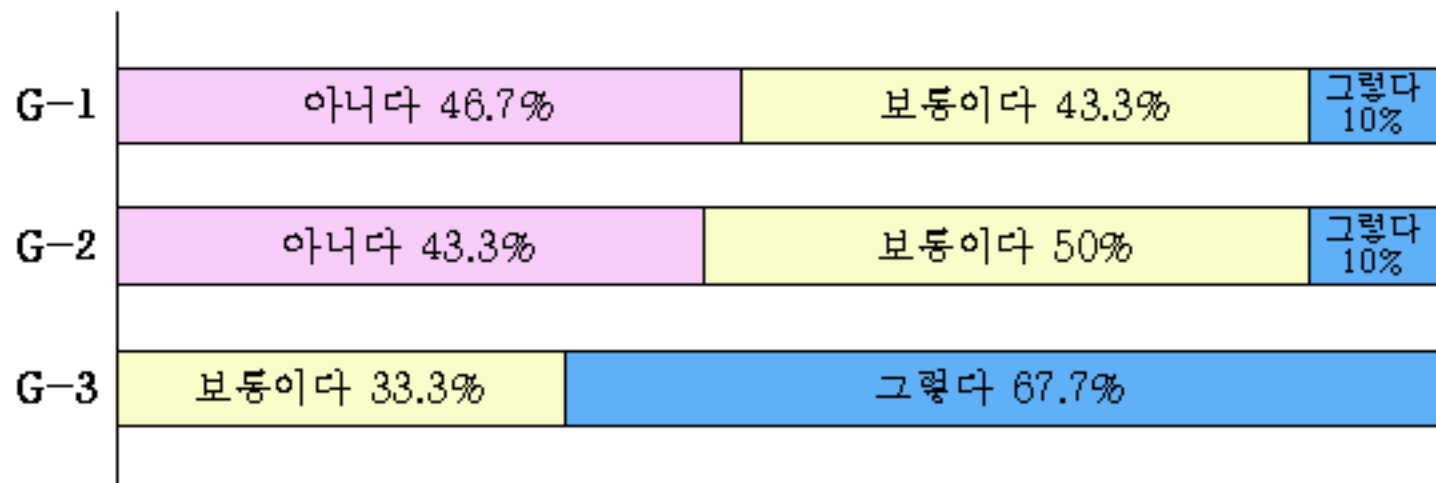
<표 25> 그룹별 인성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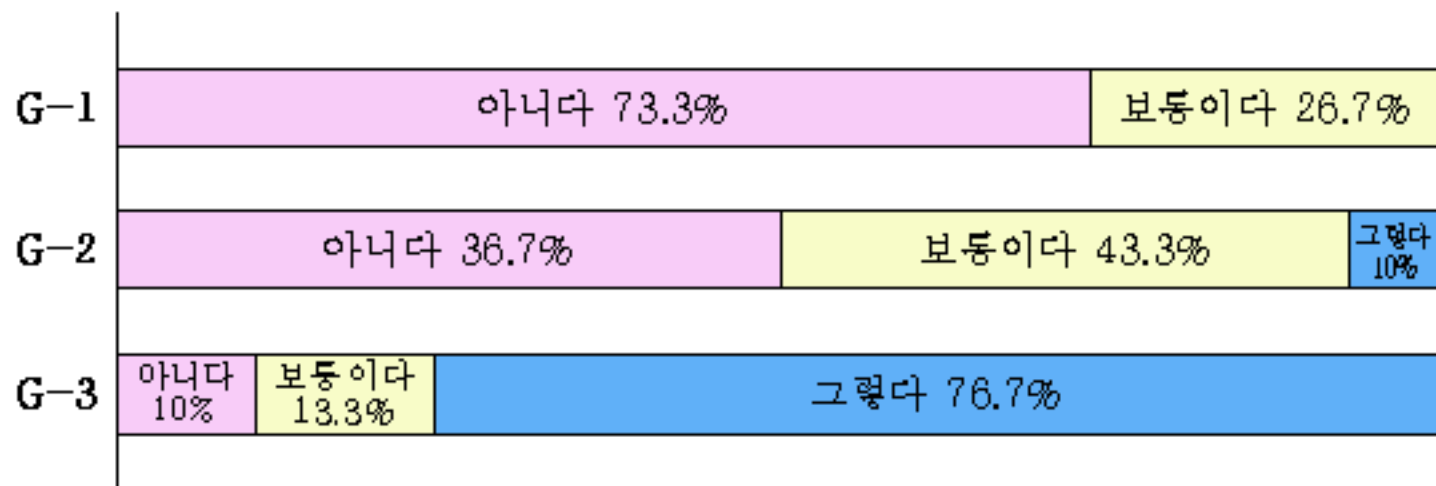
&lt;표 26&gt; 그룹별 생활실천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lt;표 27&gt; 그룹별 신앙훈련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lt;표 28&gt; 그룹별 영적 재생산에 대한 관심과 실천 비교



4.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에 대한 분석

성경적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체적인 생활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생활화이다. 신앙성장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자녀·제자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의 7대 사명에 대한 실천은 신앙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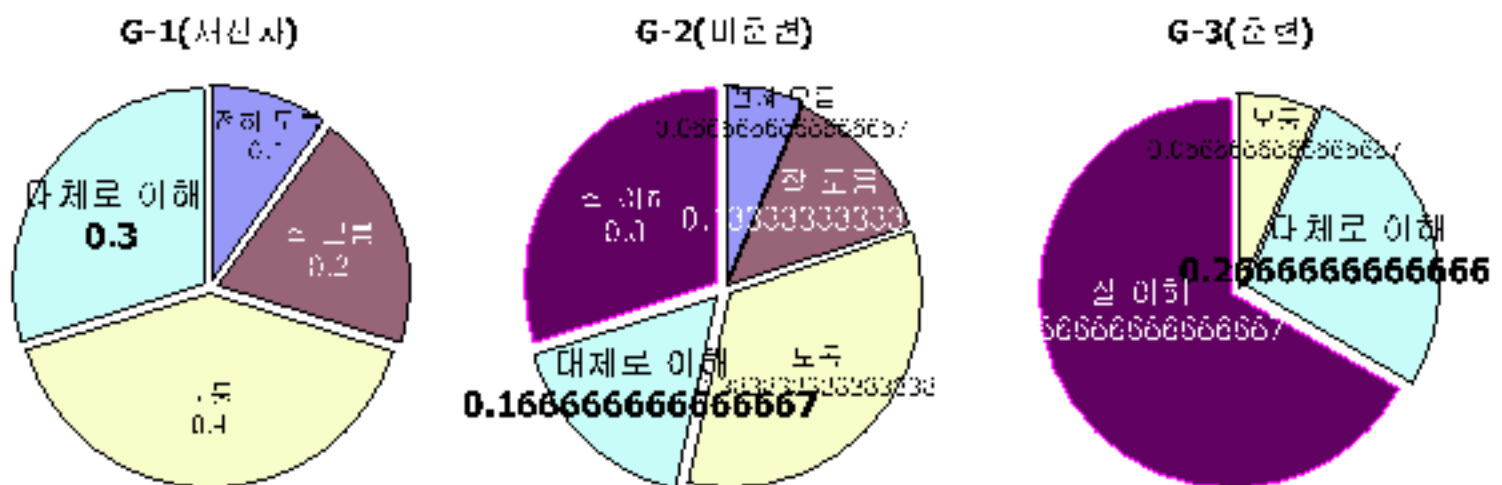
가. 결과 분석

성경적 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표 29, 30)에 있어서 G-1은 70%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G-2는 80%가 대체로 이해하고 있고, G-3는 93% 이상이 성경적 효와 7대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일의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대부분이 성경적 효와 7대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9> 측정결과 IV-1 성경적 효의 7대 사명에 대한 전체 이해

문 항		그 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이해	16. 나는 성경적 효와 7대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G-1(새신자)	3 (10%)	6 (20%)	12 (40%)	9 (30%)	0
		G-2(비훈련)	2 (6.7%)	4 (13.3%)	10 (33.3%)	5 (16.7%)	9 (30%)
		G-3(훈련)	0	0	2 (6.7%)	8 (26.7%)	20 (66.7%)

<표 30> 그룹별 성경적 효와 7대 사명에 대한 전체 이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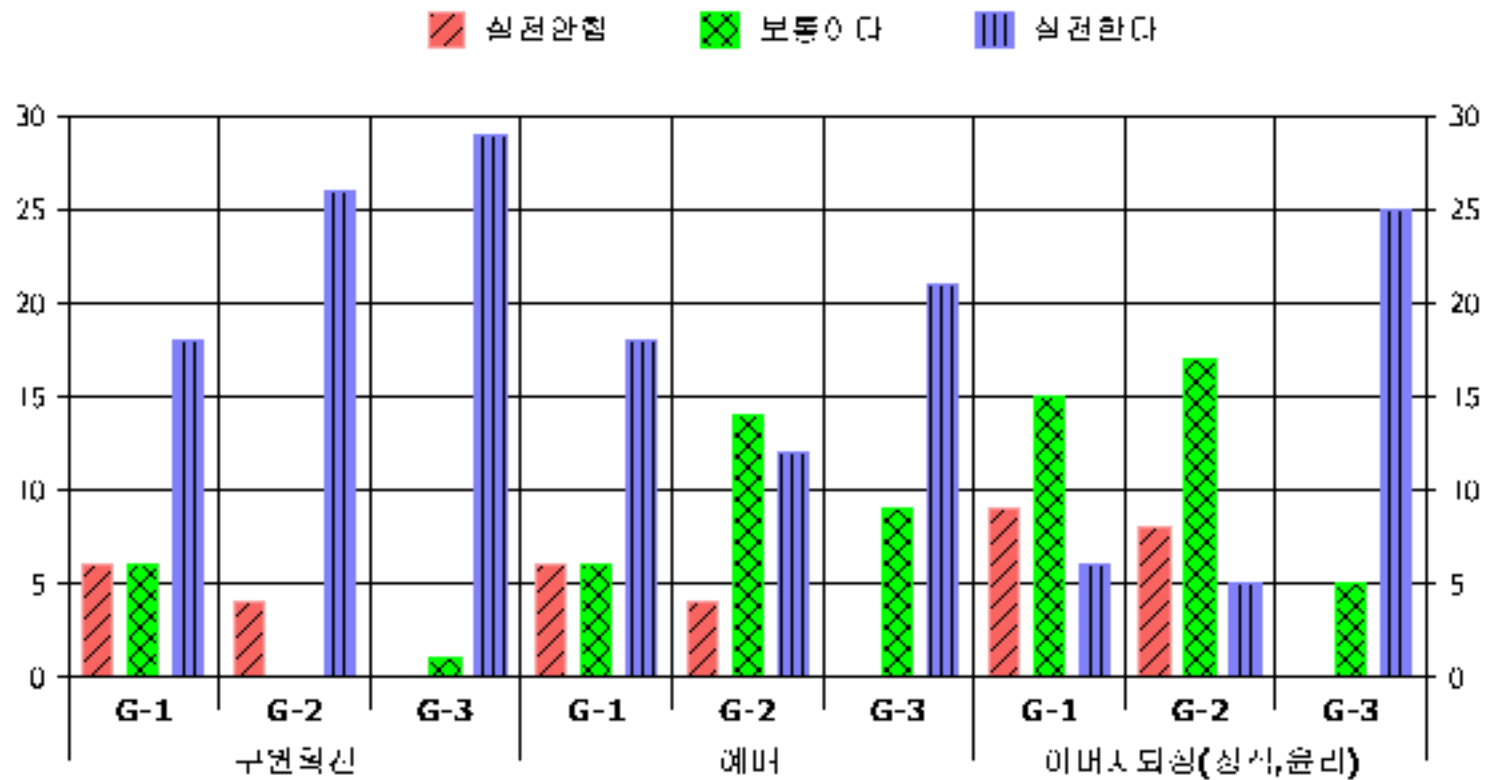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표 31, 32)에 있어서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에 G-1은 60%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G-2는 86.7%, G-3는 96.7%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 G-1은 60%가 '대체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새신자들도 절반 이상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G-2는 오히려 36.7%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신앙이 오래 되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점점 의무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G-3는 7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신앙이 오래 되었어도 자신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새롭게 함으로 예배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성경대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생활하는지에 질문에 G-1은 30%가 긍정적으로, 50%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G-2는 16.7%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56.7%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여 오히려 새신자 그룹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상반되게 말씀실천에 대해 훈련을 받은 G-3는 83.3%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31> 측정결과 IV-2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하나님 섬김

문 항		그 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나님 섬김	17.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G-1	0	6 (20%)	6 (20%)	8 (26.7%)	10 (33.3%)
		G-2	1 (3.3%)	3 (10%)	0	6 (20%)	20 (66.7%)
		G-3	0	0	1 (3.3%)	2 (6.7%)	27 (90%)
	18.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고 있다.	G-1	0	6 (20%)	6 (20%)	15 (50%)	3 (10%)
		G-2	0	4 (13.3%)	14 (46.7%)	8 (26.7%)	3 (10%)
		G-3	0	0	9 (30%)	9 (30%)	12 (40%)
	19.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지금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	G-1	0	9 (30%)	15 (50%)	6 (20%)	3 (10%)
		G-2	3 (10%)	5 (16.7%)	17 (56.7%)	2 (6.7%)	3 (10%)
		G-3	0	0	5 (16.7%)	13 (43.3%)	12 (40%)



&lt;표 32&gt; 그룹별 하나님 섬김 실천에 대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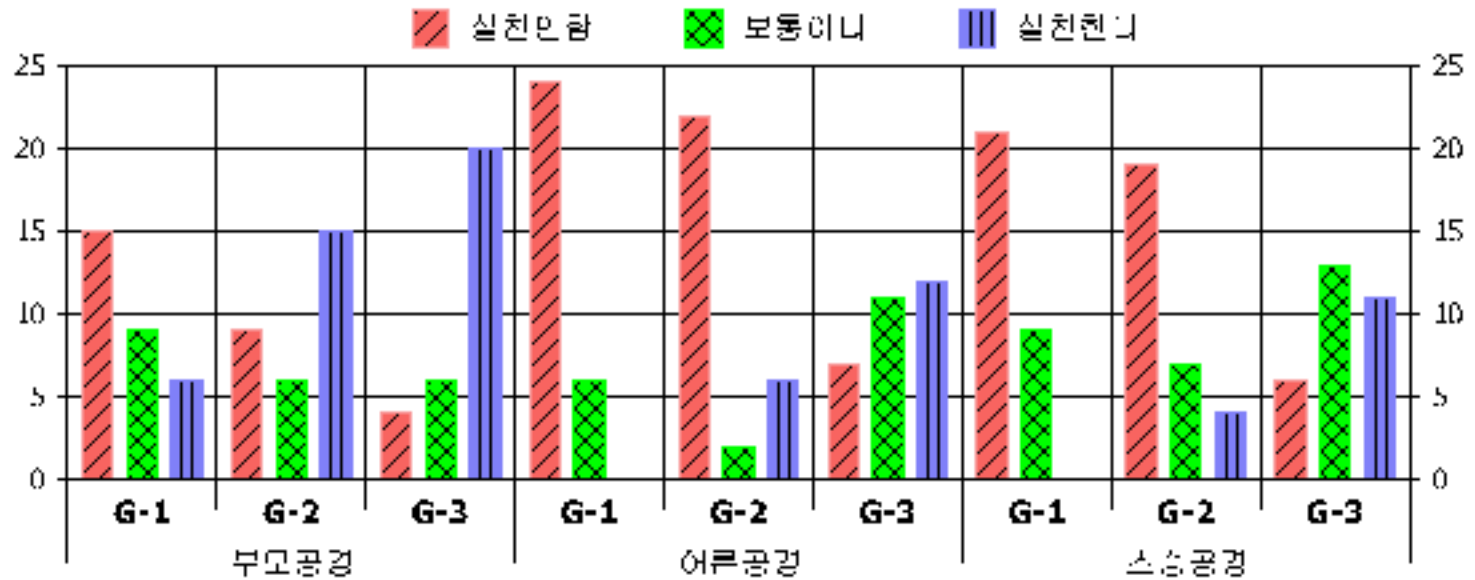
부모·어른·스승 공경(표 33, 34)에 있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린다'는 질문에 G-1은 80%가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G-2는 50%, G-3는 66.7% 정도가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한 생활보호대상 홀몸노인과 결연 맺기와 무료급식소 봉사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G-1와 G-2는 각각 80%, 73.3%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G-3는 40%가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학교, 사회, 교회의 스승을 1년에 한번이라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가'의 질문에 G-1와 G-2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G-3는 40%가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웃어른과 스승에 대한 공경은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조금 더 실천해야 할 부분임이 드러났다.

<표 33> 측정결과 IV-3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부모·어른·스승 공경

단위: 명(%)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	20.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린다.	G-1	9 (30%)	6 (20%)	9 (30%)	6 (20%)	0
		G-2	3 (10%)	6 (20%)	6 (20%)	5 (16.7%)	10 (33.3%)
		G-3	2 (6.7%)	2 (6.7%)	6 (20%)	8 (26.7%)	12 (40%)
어른·스승 공경	21. 나는 못어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생활보호대상 홀몸노인들과 결연을 맺고 있거나, '성산 효의 집'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	G-1	21 (70%)	3 (10%)	6 (20%)	0	0
		G-2	14 (46.7%)	8 (26.7%)	2 (6.7%)	5 (16.7%)	1 (3.3%)
		G-3	4 (13.3%)	3 (10%)	11 (36.7%)	7 (23.3%)	5 (16.7%)
스승 공경	22. 나는 학교, 교회, 사회에서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을 1년에 한번이라도 찾아뵙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G-1	9 (30%)	12 (40%)	9 (30%)	0	0
		G-2	13 (43.3%)	6 (20%)	7 (23.3%)	4 (13.3%)	0
		G-3	2 (6.7%)	4 (13.3%)	13 (43.3%)	9 (30%)	3 (10%)

<표 34> 그룹별 부모·어른·스승 공경 실천에 대한 비교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실천(표 35, 36)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들의 의견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G-1는 60%가 '그저 그렇다', 30%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G-2는 50% 정도가 '그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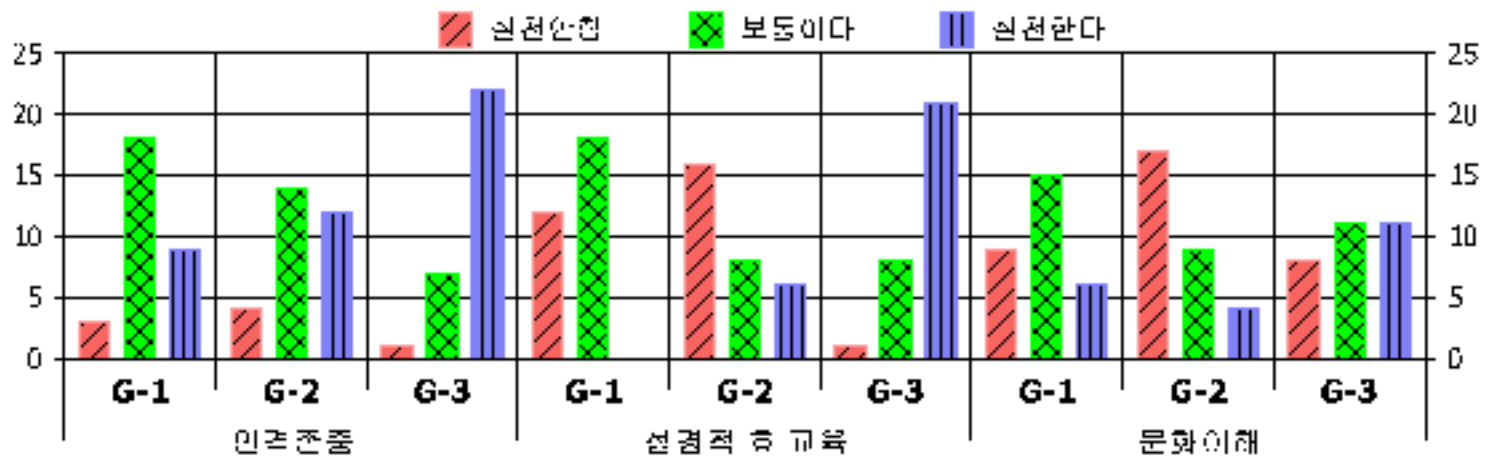
40%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G-3는 73.3%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들이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자라도록 성경적 효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G-2는 26.7%, G-3는 70%가 성경적 효를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 이름, 노래, 컴퓨터 게임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50%가 '그저 그렇다', 20%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G-2는 86.7%가 '그저 그렇다' 이하로 응답하였다. 이는 신앙을 이유로 세상 문화에 대해 담을 쌓고 지내온 결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신앙연수가 오래된 G-3은 오히려 36.7%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와 신앙연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표 35> 측정결과 IV-4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단위: 명(%)

문 항		그 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린이	23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여 부모/어른으로서 나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 준다.	G-1	0	3 (10%)	18 (60%)	9 (30%)	0
		G-2	0	4 (13.3%)	14 (46.7%)	12 (40%)	0
		G-3	0	1 (3.35)	7 (23.3%)	17 (56.7%)	5 (16.7%)
청소년	24 나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들이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성경적 효를 가르친다.	G-1	6 (20%)	6 (20%)	18 (60%)	0	0
		G-2	8 (26.7%)	6 (20%)	8 (26.7%)	6 (20%)	2 (6.7%)
		G-3	0	1 (3.3%)	8 (26.7%)	16 (53.3%)	5 (16.7%)
제자 사랑	25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이름, 노래, 컴퓨터 게임 등을 5개 정도는 알고 따라 부르거나 함께 할 수 있다.	G-1	3 (10%)	6 (20%)	15 (50%)	2 (6.7%)	4 (13.3%)
		G-2	10 (33.3%)	7 (23.3%)	9 (30%)	4 (13.3%)	0
		G-3	1 (3.35)	7 (23.3%)	11 (36.7%)	7 (23.35)	4 (13.3%)

<표 36> 그룹별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실천에 대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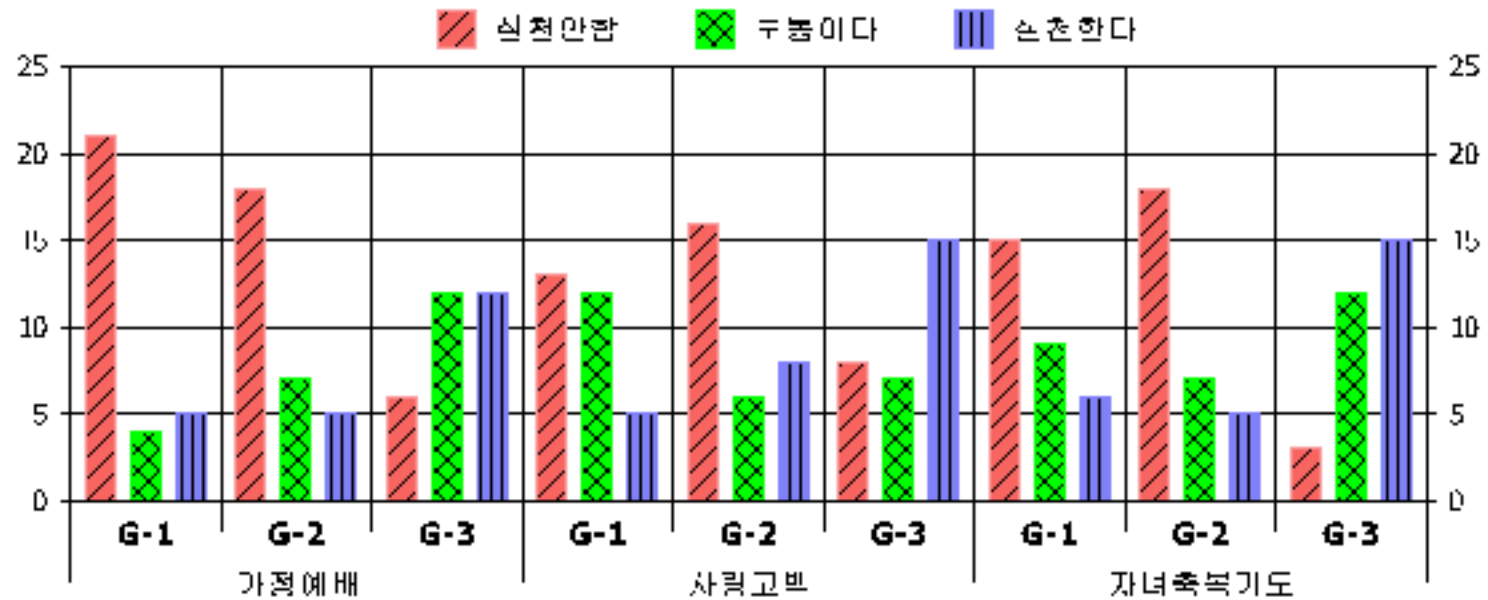


가족사랑 실천(표 37, 38)에 있어서 '가족의 신앙성장을 위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질문에 G-1과 G-2는 대부분(83.3%)이 '그저 그렇다' 이하로 대답하였고, G-3는 기대보다는 다소 낮은 40%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나타났다. '가족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G-1 80%이상이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G-2는 30%, G-3는 50%정도는 실천하고 있다. '자녀들의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매일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대부분 하지 않았고, G-2는 16.7%가 어느 정도 실천하며, G-3는 36.7% 정도가 매일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사랑 실천에 있어서 교인 전체적으로 대체로 낮은 결과가 나왔다.

<표 37> 측정결과 IV-5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가족사랑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 사랑	26. 나는 가족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G-1	15 (50%)	6 (20%)	4 (13.3%)	3 (10%)	2 (6.7%)
		G-2	12 (40%)	6 (20%)	7 (23.3%)	3 (10%)	2 (6.7%)
		G-3	2 (6.7%)	4 (13.3%)	12 (40%)	10 (33.3%)	2 (6.7%)
	27. 나는 남편/아내/부모/자녀에게 하루에 1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한다.	G-1	5 (16.7%)	8 (26.7%)	12 (40%)	5 (16.7%)	0
		G-2	8 (26.7%)	8 (26.7%)	6 (20%)	4 (13.3%)	4 (13.3%)
		G-3	3 (10%)	5 (16.7%)	7 (23.3%)	10 (33.3%)	5 (16.7%)
	28. 나는 자녀들이 신앙과 인격과 생활에서 온전하게 자라도록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G-1	8 (26.7%)	7 (23.3%)	9 (30%)	0	0
		G-2	10 (33.3%)	8 (26.7%)	7 (23.3%)	4 (13.3%)	1 (3.3%)
		G-3	1 (3.3%)	2 (6.7%)	12 (40%)	6 (20%)	5 (16.7%)

&lt;표 38&gt; 그룹별 가족사랑 실천에 대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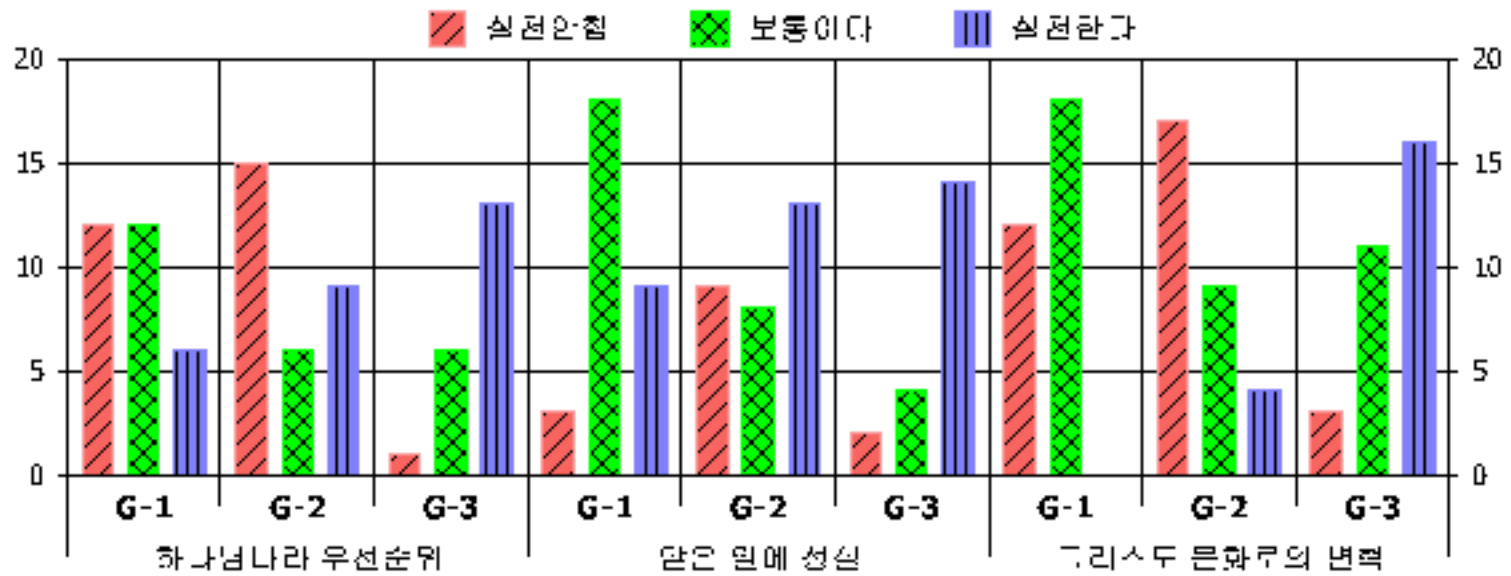
나라사랑 실천(표 39, 40)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교회)와 조국나라(대한민국)가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G-1은 2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G-2는 30%, G-3는 76.7%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특히 훈련을 받을수록 개인적인 기도에서 증보기도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학교/교회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30%, G-2는 43.3%, G-3는 8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전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속화된 문화, 사회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G-2는 1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G-3는 53.3%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9> 측정결과 IV-6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나라사랑

단위: 명(%)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라 사랑	29. 나의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교회)와 조국나라(대한민국)가 먼저이다.	G-1	9 (30%)	3 (10%)	12 (40%)	3 (10%)	3 (10%)
		G-2	7 (23.3%)	8 (26.7%)	6 (20%)	5 (16.7%)	4 (13.3%)
		G-3	0	1 (3.3%)	6 (20%)	8 (26.7%)	15 (50%)
	30. 나는 직장/학교/교회에서 윗사람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	G-1	0	3 (10%)	18 (60%)	6 (20%)	3 (10%)
		G-2	0	9 (30%)	8 (26.7%)	9 (30%)	4 (13.3%)
		G-3	0	2 (6.7%)	4 (13.3%)	15 (50%)	9 (30%)
	31. 나는 세속화된 사회와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사회정의나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	G-1	9 (30%)	3 (10%)	18 (60%)	0	0
		G-2	11 (36.7%)	6 (20%)	9 (30%)	4 (13.3%)	0
		G-3	1 (3.3%)	2 (6.7%)	11 (36.7%)	12 (40%)	4 (13.3%)

<표 40> 그룹별 나라사랑 실천에 대한 비교



자연보호 실천(표 41, 42)에 있어서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실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물·전기 아껴 쓰기, 대중교통이용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G-1과 G-2는 4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G-3는 80%가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한 부분임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거리청소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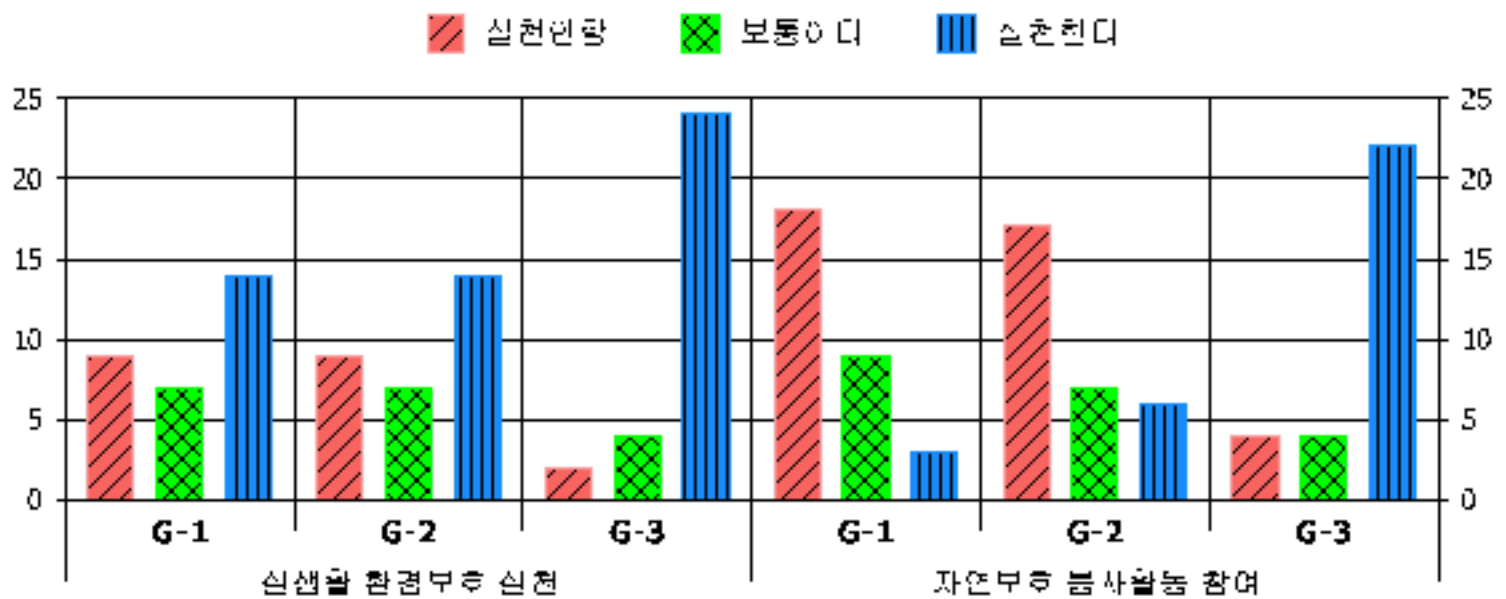
1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G-2는 20%, G-3는 73.3%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그룹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 측정결과 IV-7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자연보호

단위: 명(%)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연 보호	32 나는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물·전기 아껴쓰기, 대중교통이용을 실천하고 있다.	G-1	3 (10%)	6 (20%)	7 (23.3%)	8 (26.7%)	6 (20%)
		G-2	2 (6.7%)	7 (23.3%)	7 (23.3%)	10 (33.3%)	4 (13.3%)
		G-3	0	2 (6.7%)	4 (13.3%)	17 (56.7%)	7 (23.3%)
	33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한 부분임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거리청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G-1	12 (40%)	6 (20%)	9 (30%)	3 (10%)	0
		G-2	8 (26.7%)	9 (30%)	7 (23.3%)	5 (16.7%)	1 (3.3%)
		G-3	2 (6.7%)	2 (6.7%)	4 (13.3%)	12 (40%)	10 (33.35)

<표 42> 그룹별 자연보호 실천에 대한 비교



이웃사랑·인류봉사 실천(표 43, 44)에 있어서 '이웃주민의 10집 이상 자녀이름, 가족사항, 직업, 종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과 G-2는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G-3는 63.3%가 알고 있다고 대답함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회 밖의 이웃사랑실천 봉사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과 G-2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G-3는 63.3%가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 실천으로 보여 주고 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G-2는 16.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G-3는 60%가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기대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은사에 대한 훈련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함을 지적해 준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전도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과 G-2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G-3는 6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적으로 국제구호단체나 그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여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G-1과 G-2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였고, G-3는 30%가 후원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 아직 개인적인 후원에 관심과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에게 가장 큰 봉사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교에 대한 참여'에 대한 질문에 G-1과 G-2는 대부분 참여하지 못하였고, G-3는 50% 정도가 증보기도와 단기 선교팀으로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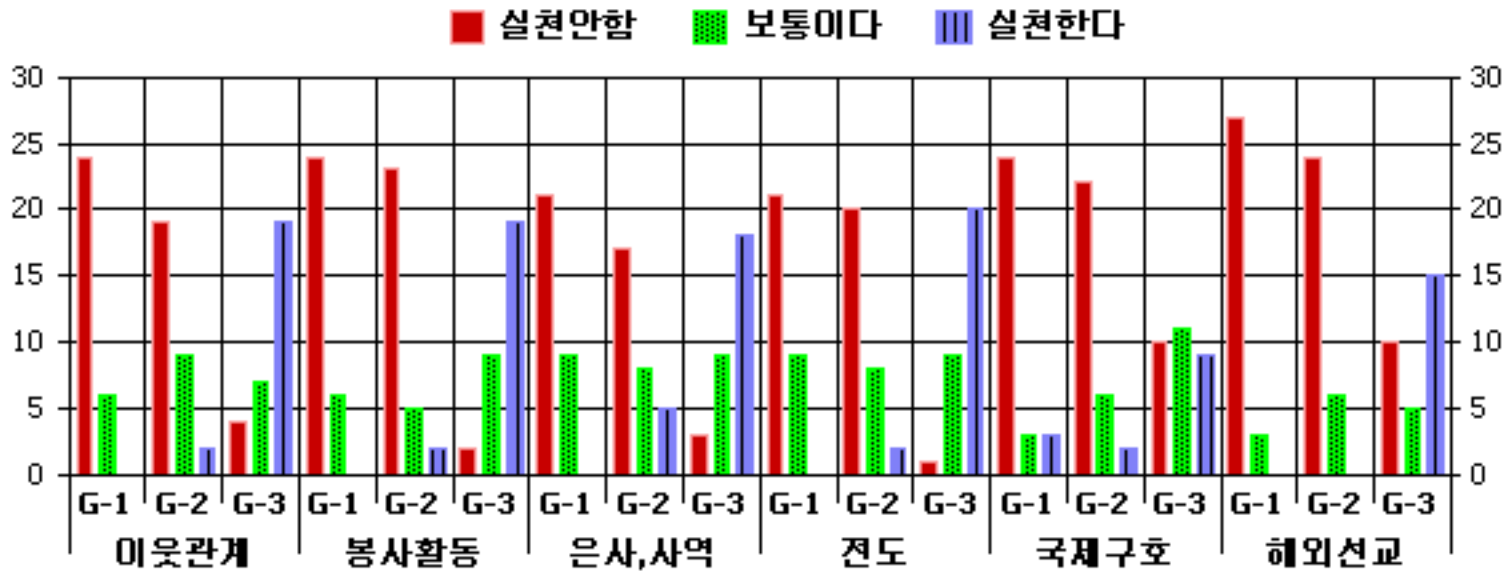


&lt;표 43&gt; 측정결과 IV-8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 이웃사랑·인류봉사

단위: 명(%)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웃 사랑 · 인류 봉사	34 나는 이웃주민의 10집 이상 자녀이름, 가족사항, 직업, 종교를 알고 있다.	G-1	9 (30%)	15 (50%)	6 (20%)	0	0
		G-2	10 (33.3%)	9 (30%)	9 (30%)	2 (6.7%)	0
		G-3	1 (3.3%)	3 (10%)	7 (23.3%)	7 (23.3%)	12 (40%)
	35 나는 교회 밖의 이웃사랑실천 봉사활동(효마을봉사단, 각종 지 역사회를 위한 행사와 봉사)에 시 간과 물질을 드리며 동참하고 있 다.	G-1	15 (50%)	9 (30%)	6 (20%)	0	0
		G-2	12 (40%)	11 (36.7%)	5 (16.7%)	2 (6.7%)	0
		G-3	2 (6.7%)	0	9 (30%)	13 (43.3%)	6 (20%)
	36 나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다.	G-1	12 (40%)	9 (30%)	9 (30%)	0	0
		G-2	8 (26.7%)	9 (30%)	8 (26.7%)	3 (10%)	2 (6.7%)
		G-3	0	3 (10%)	9 (30%)	11 (36.7%)	7 (23.3%)
	37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G-1	12 (40%)	9 (30%)	9 (30%)	0	0
		G-2	10 (33.3%)	10 (33.3%)	8 (26.7%)	2 (6.7%)	0
		G-3	0	1 (3.3%)	9 (30%)	12 (40%)	8 (26.7%)
	38 나는 현재 개인적으로 국제구호단체나 그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여 후원하고 있다.	G-1	15 (50%)	9 (30%)	3 (10%)	3 (10%)	0
		G-2	12 (40%)	10 (33.3%)	6 (20%)	2 (6.7%)	0
		G-3	4 (13.3%)	6 (20%)	11 (36.7%)	7 (23.3%)	2 (6.7%)
	39 나는 해외선교를 위해 증보기도팀, 단기선교팀으로 동참한 경험이 있다.	G-1	18 (60%)	9 (30%)	3 (10%)	0	0
		G-2	16 (53.3%)	8 (26.7%)	6 (20%)	0	0
		G-3	6 (20%)	4 (13.3%)	5 (16.7%)	8 (26.7%)	7 (23.3%)

<표 44> 그룹별 이웃사랑·인류봉사 실천에 대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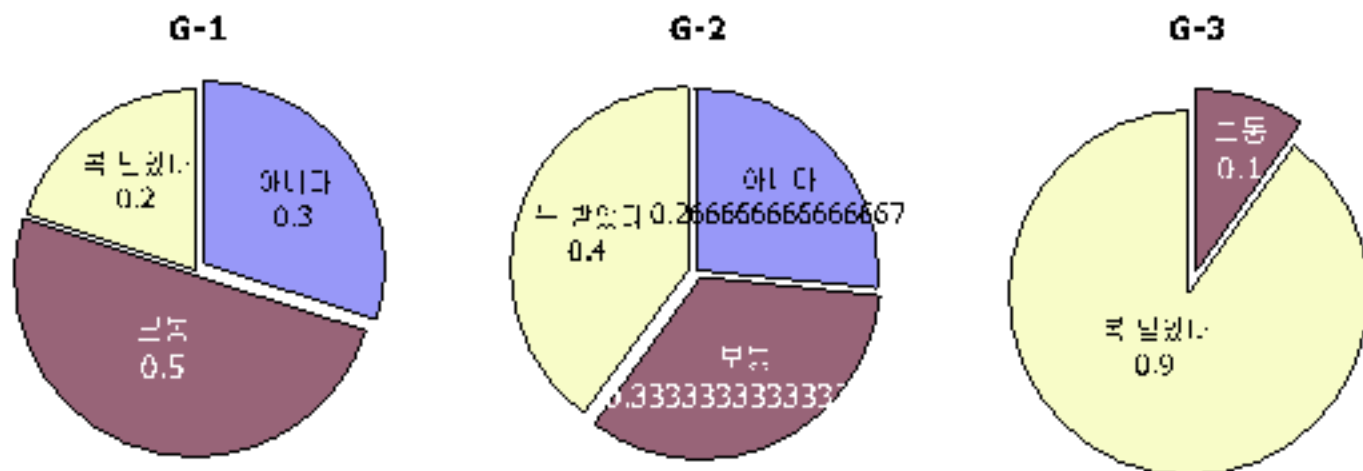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엡6:2-3)인 '성경적 효를 실천함으로 그 이전보다 복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표 45, 46)에 G-1은 30%, G-2는 40%, G-3는 93.3%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5> 측정결과 IV-8 성경적 효 실천에 따른 축복

문항		그룹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축복	40. 나는 성경적 효를 실천한 후로 그 이전보다 복을 더 많이 받고 있다.	G-1	3 (10%)	6 (20%)	15 (50%)	3 (10%)	3 (10%)
		G-2	2 (6.7%)	6 (20%)	10 (33.3%)	6 (20%)	6 (20%)
		G-3	0	0	3 (10%)	12 (40%)	15 (50%)

<표 46> 그룹별 성경적 효 실천에 따른 축복에 대한 비교



## 나. 평가 및 제언

신앙성장의 증표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실천은 새신자 그룹(G-1)이나 훈련받지 않은 그룹(G-2) 보다 체계적인 성경적 효 훈련을 받은 그룹(G-3)이 전체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교회를 출석한지 5년 이상이 된 기존 교인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새신자와 별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예배의 감격에 있어서는 훈련받지 않은 기존 교인그룹이 오히려 새신자보다 결과가 낮게 나온 것을 보면서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없이는 신앙이 퇴보할 수 있음도 시사해 주었다.

측정결과를 통해서 성경적 효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을 때 교인들의 신앙의 척도가 하나님에 대한 영성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 즉 부모·어른·스승, 어린이·자녀·제자, 가족, 나라, 이웃·인류,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인들에게 성경적 효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성의 성장과 더불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섬김과 순종, 사랑의 타자 중심적 인성이 길러지고, 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실천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성경적 신앙성장의 목표인 영성과 인성과 생활의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여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인 신앙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측정결과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순복음인천교회는 앞으로 말씀실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한 훈련받지 않은 기존 교인들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가족과 다른 교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케 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적 효에 대한 교육훈련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5장에서 제시한 효비전·효사역·효지도자 훈련학교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신앙의 생활화가 교회의 전체적인 문화와 분위기로 자리 잡히고, 사역/구역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사랑의 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완한다면 교회와 교인 모두가 더욱 균형 잡히고 전인적인 신앙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제 7 장

### 결 론

목회의 목적은 교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목회전략의 한 방법으로 '성경적 효 훈련'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 장에서는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들을 요약하고 진술하고자 한다.

#### 제 1 절 논문의 요약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변화는 신앙의 생활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변화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화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영성, 인성, 생활의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롬8:29).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성장이란 첫째, 영적 신분의 변화(영혼구원)에서 시작되어 인격과 삶 전체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성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이루어 가며,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둘째, 신앙성장은 관계성의 변화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모니)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성품)을 회복함으로 다른 모든 영역과 관계들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신앙성장의 모습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며 신앙·인격·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인 신앙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성장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성장은 '말씀의 생활화'이며,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성의 성장'이고, 영성과 인격과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성장'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영성, 인성, 생활의 세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되어야 한다. 먼저 영성의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며, 말씀(인지)과 기도(정서)와 예배(의지)에서 성장해야 한다. 인성의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마음)을 본받아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이를 사랑하는 것이다(긍정적 자아상).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타자중심적인 삶,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이다. 생활 영역에서의 성장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가족 안에서 부모 공경, 자녀 사랑, 부부 상조를 통해 실천되어지며, 점점 더 확대되어 교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온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 여기고 봉사와 나눔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 건강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은 한 개인의 성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세상의 세속화를 소극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청지기적 사명과 책임을 깨닫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한 자연의 파괴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구체적인 노력과 실

천을 기울여야 한다. 자연보호는 환경단체의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전인적 신앙성장의 요소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목회는 교회 안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전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신앙훈련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성, 인성, 생활의 전인적 신앙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경적 효' 훈련을 제시하였다.

모든 고등종교에는 효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있지만, 이것들은 일반계시들일 뿐, 효의 원조는 성경이다. 효는 하나님의 구원활동, 약속과 성취, 옛 언약과 새 언약 등과 함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효(부모공경)를 명령하셨고(출20:12),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게 되며, 부모세대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자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효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 어린 시절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드림으로 효를 실천하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죽음의 순간에도 제자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전통적인 효 사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의 모형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효는 하나

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마 22:37-40)이 성경적 효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 효 훈련은 순복음인천교회에서 1995년부터 시작한 신앙실천 운동으로, 하나님의 절대명령이며, 인류 보편적이고, 한국 전통적 윤리인 '효'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인격과 정신을 고양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꺾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 섬김과 인류 사랑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전인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적 효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사랑·환경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로 나뉜다. 이러한 7대 사명을 실천하도록 하는 성경적 효 훈련은 성경에서 말하는 "듣고 행하는" 신앙의 성장과 일치하며, 동시에 가치관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영성, 인격, 가족, 이웃, 사회, 나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한국적 말씀실천 훈련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성장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성경적 효 훈련의 원리는 단계적 성장의 원리, 전인적(균형적) 성장의 원리, 평신도 사역의 원리, 그리고 공동체적 훈련의 원리로 구성된다. 신앙성장의 주체는 하나님 이시며 성령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사고의 변화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과 생활 가운데 체득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적 효 훈련의 방법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는 '신자 되기' 단계에서 새가족 교육(10주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성경적 효자가 되는 출발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성경적 효, 교회의 비전과 사역 등을 배우게 된다. 다음 단계는 '제자 되기' 단계로 성경적 효 훈련의 가장 핵심이 되는 효비전 훈련학교(12주 과정)를 받게 된다. 2박 3일의 수련회와 11주의 교육과 실천훈련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령충만함을 받아 옛 습관을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경적 효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사역자 되기' 단계로 1박 2일의 수련회와 11주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는 효사역 훈련학교(12주 과정)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며, 자신의 은사에 따라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제자 삼기' 단계는 마찬가지로 1박 2일의 수련회와 11주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 효지도자 훈련학교(12주 과정)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경적 효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영적 재생산을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된다. 이러한 네 단계의 성장훈련에는 영성과 인성과 생활의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성훈련, 인성훈련, 생활실천훈련을 균형 있게 포함시킨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의 동역자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훈련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효의 모든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정, 사랑방(구역), 사역팀 등의 소그룹으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며,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사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은 관계성의 성장이다. 전인적 신앙성장은 "곶방"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은 전인적인 신앙성장을 체험하게 되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순복음인천교회는 1983년 창립 초기부터 '성령충만한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겨 왔고, 1995년부터 성경적 효 훈련을 시작하여 성경에서 효를 찾고 실천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설교사역, 기도사역, 전도사역, 교육훈련사역, 사회봉사사역, 사회교육사역, 자연보호사역, 인류봉사사역 등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인들에게 성경적 효와 7대 사명 실천을 훈련시키고 동참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지난 12년간의 성경적 효 훈련과 사역을 통하여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전인적 신앙성장을 위한 설문"을 제작하였



다. 측정 대상은 전체 교인을 1년 미만 된 새신자 그룹, 3년 이상 된 교인들 중에서 성경적 효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은 그룹, 그리고 3년 이상 된 교인들 중에서 성경적 효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 무작위로 30명씩 선발하여 샘플집단을 구성하였다. 측정 장치(설문지)는 세 부분,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앙경력에 관한 문항들이고, 둘째 부분은 순복음인천교회의 5대 비전(예배, 교육훈련, 전도, 교제, 봉사)의 실천과 교회생활 참여도에 관한 10개 문항들이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조사인 전인적 신앙성장(영성, 인성, 생활, 신앙훈련, 재생산)에 관한 5개 문항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에 관한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샘플그룹들 간의 전인적 신앙성장도를 측정하고 비교하려는 것이었다.

## 제 2 절 연구를 통한 저자의 발견에 대한 진술

본 연구자는 순복음인천교회 교인들의 전인적 신앙성장을 측정한 결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성경적 효 훈련을 받은 교인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에 비해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 교인들의 신앙이 생활화 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성장은 하나님 말씀(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경적 효 훈련을 받은 교인들은 신앙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예배, 교육훈련, 전도, 봉사, 교제의 교회 5대 비전과, 영성, 인성, 생활실천, 영적 재생산의 전인적 신앙성장에 대한 관심과 실천, 그리고 성경적 효의 7대 사명인 하나님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 등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성뿐 아니라 인성과 생활의 영역에서도 균형 있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신앙성장의 모습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다른 한 가지는 신앙경력이 오래 되고, 주일성수는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았을 때 신앙은 새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때로는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 없이 이론적으로만 듣고 알고 있는 신앙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신앙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생활에서 실천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 제 3 절 결어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를 교인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하여 영성, 인성, 생활의 전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지난 12년간 실시하여 온 성경적 효 훈련이 교인들의 전인적 신앙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듯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이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경적 효 훈련은 일회성 훈련프로그램이 아니다. 평생 동안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미흡한 부분은 성경적 효 훈련의 지속적인 시행과 평가를 통해서 보완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훈련받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동참하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교인들의 전인적 신앙성장을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부록 1

## 순복음인천교회 2006년 주일설교 목록

월	일	설교제목	본문	월	일	설교제목	본문
1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5	7	2	공동체와 나	고전 1:10
1	8	새해의 다짐	마 24:3-13	7	9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마22:37-40
1	15	예수님의 신부	계 19:7-9	7	16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딤후 2:4
1	22	신앙과 교육	신 6:4-9	7	23	우리는 함께 교제하도록 선택받았다	롬 12:15
1	29	명절	요 5:1	7	30	우리는 연합하여 함께 성장한다	빌 4:9
2	5	성찬	고전11:23-26	8	6	우리는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갈 6:2
2	12	기회	고후 6:1-2	8	13	우리는 함께 예비하도록 지음받았다	롬 15:6
2	19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고전 12:4-11	8	20	광복보다 건국	삼하 7:24
2	26	신앙과 애국	출 32:30-32	8	27	부끄러운 역사	신 15:15
3	5	대청소	왕하 22:1-6	9	3	새로 시작하자	시 1:1-3
3	12	나는 어떤 발인가?	마 13:18-23	9	10	자연을 보호하자	창 1:28
3	19	천국이나 지옥이나	눅 17:20-21	9	17	두 배에 채우매	눅 5:1-7
3	26	예수님의 발자국	막 8:34	9	24	성령세례	삼상 16:13
4	2	생각, 믿음, 꿈, 말	잠 4:23	10	1	아버지께 감사	엡 5:20
4	9	4개의 십자가	요 19:17-22	10	8	땅에서 받는 상	사 52:7
4	16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 28:1-10	10	15	하늘에서 받는 상	살전2:19-20
4	23	외부강사(봉사의 직무)	고후 9:11-15	10	23	천국	마 4:17
4	30	외부강사(믿는 자가 되라)	요 11:33-44	10	29	우리의 힘	사 1:10-16
5	7	행복한 가족	엡 6:1-4	11	5	좋은 교회, 좋은 이웃	눅10:36-37
5	14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요 13:12-17	11	12	풍부와 궁핍	빌 4:12-13
5	21	愛(사랑)敬(존경) 하는 부부	엡 5:22-33	11	19	옳게 하는 감사	시 50:23
5	28	회개하자	마 4:17	11	26	두 가지 사랑	롬 12:9-10
6	4	성령세례 어떻게 받나	행 2:1-4	12	3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 3:1-10
6	11	성령의 은사	고전 12:7-11	12	10	신앙과 돈	빌 4:19
6	18	성령의 열매	갈 5:22-23	12	17	성탄에 쓰임 받은 사람들	사 7:14
6	25	6.25를 후손에게 가르치자	신 4:9	12	24	마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마 2:10-11
				12	31	용서하고 가자	엡4:31-32

## 부록 2

## 전인적 신앙성장 측정을 위한 설문

▣ 다음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앙경력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A. 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B. 나의 나이는?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C. 나는 자녀가 \_\_\_\_\_ 명이 있다.

D. 나의 신앙 경력은?

- 1년 이하     2-5년     5-10년     10-20년     모태신앙

E. 순복음인천교회에 출석한 기간은?

- 6개월 이하     6개월-2년     3-5년     5-10년     10-20년

F.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_\_\_\_\_에 있다고 생각한다.

- 복 받기 위해서(건강, 물질, 성공등)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친분/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G. 내가 순복음인천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복수응답)

- 거리가 가까워서     설교/예배가 좋아서     가족/친구가 다녀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의 신앙(순복음)과 맞아서     크고 유명해서  
 구역모임/교육훈련이 좋아서     교회의 활동내용(성경적효실천, 사회봉사)이 좋아서  
 담임목사님이 좋아서

▣ 다음은 순복음인천교회 5대 비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5대 비전: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해 주십시오.

1. [성경] 나는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성경책을 \_\_\_\_\_ 정도 읽는다.  
 1시간 이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2. [기도] 나는 개인적으로 하루 평균 \_\_\_\_\_ 정도 기도한다.  
 10분 이하    10-30분    30분-1시간    1-2시간    3시간 이상
3. [예배] 나는 다음 예배들 중에서 \_\_\_\_\_에 참석하고 있다.(복수응답 가능)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성령충만기도회
4. [전도] 나는 최근 1-2년간 \_\_\_\_\_ 명을 전도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하였다.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5. [교제] 나는 교회 안에 신앙과 생활에 대해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_\_\_\_\_ 명 있다.  
 없다    1-2명    3-5명    6-10명    10명 이상
6. [봉사] 나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밖에서 평균 \_\_\_\_\_ 시간 봉사한다.  
 1시간 이하    1-2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 이상
7. [헌금] 나는 월평균 수입에서 주님께(각종 헌금, 구제포함) \_\_\_\_\_ % 를 드린다.  
 1-5%    5-10%    10-20%    20-30%    30%이상
8. [훈련] 나는 순복음인천교회에서 \_\_\_\_\_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복수응답)  
 새가족교육    핵심성경    성경학교    성경대학    구역장훈련  
 제자훈련    제직훈련    전도훈련    교사대학    사역자훈련  
 효사랑훈련학교
9. 나는 \_\_\_\_\_을 통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예배/설교    구역모임    교육훈련    봉사활동    신앙의 가족/선배/동료  
 신앙서적    QT(성경묵상)/개인기도    부흥회    기타\_\_\_\_\_

10. 나는 순복음인천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_\_\_\_\_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전도의 열정    ㉡ 영감 있는 예배    ㉢ 성도들의 기도    ㉣ 교육훈련/프로그램  
 ㉤ 사회봉사/구제    ㉥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구역/소그룹모임)    ㉦ 세계선교와 구호  
 ㉧ 교회시설/건축    ㉨ 기타\_\_\_\_\_

▣ 다음은 신앙성장과 성경적 효의 7대 사명 실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 \* 7대 사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청소년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숫자(1에서 5)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 1 = 전혀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 그저 그렇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전혀아니다 ◀ ▶ 매우그렇다

11. [영성]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도록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1 2 3 4 5
12. [인격] 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타자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1 2 3 4 5
13. [생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QT, 성경공부 등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매일 나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다. 1 2 3 4 5
14. [훈련] 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훈련받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 2 3 4 5
15. [재생산] 나는 구역/사역/교육 등을 통해 제자를 삼고 영적 재생산을 하고 있다. 1 2 3 4 5
16. [전체이해] 나는 성경적 효와 7대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1 2 3 4 5
17. [하나님 섬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1 2 3 4 5

18.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지금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 1 2 3 4 5
20. [부모·어른·스승 공경]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린다. 1 2 3 4 5
21. 나는 웃어른의 삶의 지혜와 경륜을 존경하며, 그분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생활보호대상 홀몸노인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또는 "성산 효의 집"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학교, 교회, 사회에서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을 1년에 한번이라도 찾아뵙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1 2 3 4 5
23. [어린이·청소년 사랑]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여 부모/어른으로서 나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 준다. 1 2 3 4 5
24.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성경적 효를 가르치고 있다. 1 2 3 4 5
25.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이름, 노래, 컴퓨터 게임 등을 5개 정도는 알고, 따라 부르거나 함께 할 수 있다. 1 2 3 4 5
26. [가족사랑] 나는 가족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1 2 3 4 5
27. 나는 남편/아내/부모/자녀에게 하루에 1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28. 나는 자녀들이 신앙과 인격과 생활에서 온전하게 자라도록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한다. 1 2 3 4 5
29. [나라사랑] 나의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교회)와 조국나라(대한민국)가 먼저이다. 1 2 3 4 5
30. 나는 직장/학교/교회에서 윗사람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 1 2 3 4 5

31. 나는 세속화된 사회와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사회정의나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
32. [자연보호] 나는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물·전기 아껴 쓰기, 대중교통이용을 실천하고 있다.
33.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한 부분임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거리청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34. [이웃사랑·인류봉사] 나는 이웃주민의 10집 이상 자녀이름, 가족사항, 직업, 종교를 알고 있다.
35. 나는 교회 밖의 이웃사랑실천 봉사활동(효마을봉사단, 각종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와 봉사)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동참하고 있다.
36. 나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있다.
37.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38. 나는 현재 개인적으로 국제구호단체나 그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여 후원하고 있다.
39. 나는 해외선교를 위해 중보기도팀, 단기선교팀으로 동참한 경험이 있다.
40. [축복] 나는 성경적 효를 실천한 후로 그 이전보다 복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가정화목과 가족구원, 개인과 가족신앙성장, 건강·물질축복 등)

끝.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강선호, “효목회가 기독교인의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M.A. diss.,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2005.
- 강영안,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책임.” 임성빈 외,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1997.
-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1999.
- 김광식, *조직신학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상복,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서울:햇불, 1993.
-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2003.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2.
- \_\_\_\_\_, *주기도문강해*,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 김정우,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 *구약해석학논문집*,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 김흥기 외,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 박동화, *성서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손인수, *한국인의 효도문화*, 서울: 문음사, 1997.
-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서울: 삼일서적, 1994.
- 이광규, *가족과 친족*, 서울: 일조각, 1993.
-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이정석, *신앙성장론*,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5.

- 이주영, *현대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임성빈 외,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1997.
-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최성규, *효가 살아야*, 서울: 성산서원, 1998.
- \_\_\_\_\_, *효신학 개론*, 서울: 성산서원, 2004.
- \_\_\_\_\_, *효신학 개론*, 개정판, 서울: 성산서원, 2007.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3년 10월.
- 한상인, “구약의 중심으로서의 효와 성경의 통일성,” *효와 성경*,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2100년 해수면 최대 59cm 상승,” *중앙일보*, 2007년 11월 19일자.

## 2 번역 서적

- Balswick, Jack & Judith,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 Beasley-Murray, G. R.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Berkhof, Louis,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Bonhoeffer, Dietrich,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Bounds, E. M.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_\_\_\_\_, *전인건강*, 이종현·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Fowler, James W.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개정 2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Glasser, Arthur F.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Grenz, Stanley J. *기독교물리학의 토대와 흐름*, 신원하 역, 서울: IVP, 2001.
- Gumbel, Nicky, *알파 시작하기*,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Horton, Stanley M. "오순절 교회 입장."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IVP, 1991.
- Jeremias, Joachim. *신약성서의 중심 메시지*. 김경선 역. 서울: 은성, 1987.
- \_\_\_\_\_. *신약신학*.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1.
- Kittel, Gerhard and Gerhard Friedrich ed. *신약성서 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Ladd, G. E. *하나님 나라*. 원광연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Ladd, George E.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2.
- McGavran, Donald. *교회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Neighbour, Ralph W.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NCD, 2000.
- Nichols, Michael P. & Richard C. Schwartz. *가족치료*. 김영애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 Niebuhr, H.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Oden, Thomas C.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Rabey, Lois & Steve. *21세기 제자도 사역핸드북*.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3.
- Schaeffer, Francis A. *진정한 영적 생활*.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Stott, John.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Wagner, Pet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Whitney, Donald S. *영적 훈련*.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7.
- Wilkins, Michael. *제자도*. 이억부 역. 서울: 은성, 1995.
- Willard, Dallas. *마음의 혁신*.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3.
- \_\_\_\_\_. *영성 훈련*.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3.
- \_\_\_\_\_. *하나님의 모략*.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0.
- Wolf, H. W.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 3. 외국 서적

- Johnson, Todd *Worship in Theory and Practice*. Syllabu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D.Min, Fall 2006.
- Marshall, L. H. *The Challenge of New Testament Ethics*. London: Macmillan, 1947.
- Maston, T. B. *Biblical Ethics*.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82.
- Pangritz, Andreas. "Who is Jesus Christ, for us, today?" John W. de Gruch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Rasmussen, Larry L.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don Press, 1972.
- \_\_\_\_\_. "A Question Of Method" William J. Peck, ed., *New Studies In Bonhoeffer's Ethics*.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87.
- Sanders, J. O. *Spiritual Maturity*. Chicago: Moody Press, 1962.
- Sherman, Frank. "Dietrich Bonhoeffer." Martin E. Marty and Dean G. Peerman, *A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ians*.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84.
- Sprintal, N. A. & R. C. *Sprintal. Edu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90.

Vita of  
Yong Suk Choi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Full Gospel Incheon Church  
Lecturer, Sung San Hyo Graduate School

Personal Data:

Birthdate: October 1, 1970  
 Birthplace: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So Young Kim with three children, Hyo Won, Hyo Min, and Hyo Joon  
 Home Address: 13-2 Kwankyo Dong, Nam Gu, Incheon, Korea  
 Phones: Office: (032) 421-2591  
 Denomination: Korea Assemblies of God  
 Ordained: 2000 at Full Gospel Incheon Church

Education:

B. A. In Ha University (History), 1995  
 M. Div. Han Sei University, 1998  
 M. A. Sung San Hyo Graduate School (Hyo), 200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Personal Experience:

1996 to 2002 Assistant Pastor (Worship leading & Young Adult), Full Gospel Church  
 2003 to 2004 YWAM (Youth With A Mission), Kona, HI  
 2004 to 2005 Chaplain & Lecturer, Sung San Hyo Graduate School